두 미소의 여인

La Femme aux deux sourires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1933년 발표 · 프랑스어 원문 번역 · 2026-06-13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Maurice Leblanc, « La Femme aux deux sourires » (1933)

저자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원전 출처

fr.wikisource — La Femme aux deux sourires (퍼블릭 도메인)

번역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3

번역 정책

> 프랑스어 원문에서 곧장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해 요즘 독자가 쉽게 읽도록 다듬되 20세기 초 신사 도둑 이야기 특유의 위트와

>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이 비극은 그 배경과 전개 과정을 포함해, 몇 페이지 안에 요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데 고려해야 할 가장 사소한 에피소드 하나도 어둠 속에 가려지지 않도록 했다.

이 모든 일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일어났다. 때때로 운명이 거대한 사건의 문턱에서 던지는 은밀한 위협 따위는 없었다. 폭풍이 몰아칠 것을 알리는 숨결도, 그 어떤 불안감도 없었다.

심지어 이 놀랍고도 작은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사이에도 걱정거리는 없었다. 비극적이었다. 그 사안을 둘러싼 신비의 규모가 너무도 방대했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렇다. 오베르뉴의 볼니크 성에서 손님을 접대하던 주베일 부부와 그 손님들은, 뛰어난 가수 엘리자베트 호르네의 비취 공연을 보러 비슈로 갔었다. 그 성은 뾰족한 탑이 여러 개 솟아 있고, 붉은 기와지붕이 덮인 넓은 저택이었다.

다음 날, 8월 13일이었다. 주베일 부인의 청을 받아 엘리자베트가 점심을 먹으러 왔다. 주베일 부인은 호르네 은행가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엘리자베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볼니크 성에서 비슈까지는 고작 열두 킬로미터 남짓 떨어져 있었다.

점심 식사는 매우 즐거운 자리였다. 성주들은 손님들을 맞이할 때면 특유의 우아함과 세심함을 잃지 않았다. 덕분에 각자 다른 성격을 지닌 손님들 모두 빛을 발할 수 있었다.

총 여덟 명이 모였다. 세 쌍의 젊은 부부와, 은퇴한 장군, 그리고 장드 에를몽 후작이 있었다. 후작은 사십 전후의 나이지만, 당당한 풍채와 어떤 여성이라도 눈치채지 않을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 열다섯 명의 시선은 모두 엘리자베트 호르네에게로 쏠려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호감을 사려 했고, 그녀에게 빛을 발하려 애썼다. 그녀가 있는 곳에서는 오직 그녀를 미소 짓게 하거나, 그녀의 시선을 끌려는 말들만 쏟아져 나왔다.

반면 엘리자베트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빛나려 하지도, 호감을 사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드물게 입을 열었지만, 그 말들은 지혜롭고 섬세할 뿐이었다. 재치도, 날카로움도 없었다. 왜 그랬을까? 그녀는 이미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그 모든 것을 대신해 주었다. 만일 그녀가 가장 깊은 진리를 말하더라도, 그 말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빛에 묻혀 사라졌을 것이다. 그녀를 마주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다. 오직

그녀의 푸른 눈, 관능적인 입술, 빛나는 피부, 그리고 얼굴의 윤곽만 생각했다.

극장에 앉아 있을 때조차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따뜻하고 풍부한 목소리, 그리고 진정한 가창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먼저 아름다움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늘 매우 단정한 드레스를 입었다. 그 옷은 아무리 우아해도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소박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몸매가 풍기는 우아함, 손짓발짓의 조화, 그리고 어깨에서 빛나는 광채에만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가슴에는 놀라운 목걸이들이 흐르듯 걸려 있었다.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눈이 부실 정도로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누군가 그 보석들을 칭찬하면, 그녀는 미소 지으며 감탄을 억눌렀다.

"극장용 소품이죠. 하지만 정말 잘 만든 걸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누군가가 말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그래요. 그리고 누구나 그 속임수에 빠지죠."

점심 식사 후, 에를몽 후작은 어딘지 모르게 꾀를 내어 그녀를 다른 손님들로부터 떼어냈다. 그리고는 둘만 남게 된 자리에서 그녀와 이야

기를 나눴다. 그녀는 흥미진진한 듯, 그러나 어딘지 몽롱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나머지 손님들은 집주인 부인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런데 그 한숨 섞인 독백이 그녀를 꽤나 불편하게 만든 듯했다.

"저 남자는 시간만 낭비하는군. 나는 엘리자베스를 수년째 알고 있다. 두 연인 사이에 희망은 없다. 그녀는 아름답기만 한 조각상이지, 무감각해. 그래, 친구여. 네가 그 작은 연기를 하고, 가장 잘하는 수를 다 동원해도 소용없어."

그들은 모두 성의 그늘 아래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그들 발치에는 오목한 정원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햇살 아래 직선으로 뻗은 길, 푸른 잔디밭, 노란 모래 길, 잘 다듬은 향나무 화단이 펼쳐져 있었다.

정원 끝에는 옛 성의 잔해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망대, 본관, 예배당의 터였다. 그 잔해들은 언덕 위에 계단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언덕 위로는 로즈마리와 박스우드, 호박나무가 엉켜 자랐고, 그 사이로 오솔길이 나 있었다.

그곳은 장엄하고 위엄 있었다. 게다가 그 광경은 더없이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눈앞에 펼쳐진 그 기이한 바위 더미 너머에는, 사실 공허한 절벽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의 이면은 가파른 절벽이었다. 그 절벽은 저택 부지를 둘러싼 협곡으로 떨어졌고, 그 깊숙한 곳에서는 50미터 아래에서 격류가 굉음을 지르며 흐르고 있었다.

"정말 멋진 배경이네요!" 엘리자베트 호르네인이 탄식했다. "우리 무대 배경의 그림 천막이나, 흔들리는 벽지, 잘려 나간 나무 모양의 테이프스트리를 생각하면 더더욱요. 정말 여기서 연극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노래라도 해보지 그래요, 엘리자베트?" 드 주벨경이 물었다.

"목소리가 이 광활한 공간에 묻혀 버릴 거예요."

"당신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아요." 장 드 에를몽이 반박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녀는 웃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간곡히 청하자, 그녀는 변명을 찾으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런 말을 한 게 잘못이었어요. 제가 웃으면 너무 우스꽝스러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연약해 보이는지 알아요!"

하지만 그녀의 저항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자작이 그녀의 손을 잡더니 데려가려 했다.

"오세요. 제가 길을 보여드릴게요. 오세요. 정말 큰 기쁨이 될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마음을 먹었다.

"좋아요. ruin(ruin) 아래까지 모셔다 주세요."

결심을 굳힌 그녀는 정원을 지나 걸어나갔다. 연극 무대 위에서처럼, 여유롭고 리듬감 있는 걸음걸이로.

잔디밭 너머로, 그녀는 돌계단 다섯 계단을 올랐다. 그곳은 성채와 마주 보는 테라스로 이어졌다.

더 좁은 계단이 이어졌다. 난간에는 제라늄 화분과 고대 석조 화병이 번갈아 놓여 있었다. 왼쪽으로는 아우카나무 가로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서자 마르키가 뒤를 따랐다. 그들은 관목의 장막 뒤에 사라졌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보였다. 이번엔 혼자였다. 그녀는 또 다른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한편 장 드를르몽은 빈 정원을 지나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나타났다. 훨씬 더 높은 곳이었다. 그곳은 세 개의 고딕식 아치가 있는 허물어진 예배당이 있는 평지였다. 뒤쪽에는 덩굴식물이 뒤덮은 벽이 공간을 막고 있었다.

그녀는 멈춰 섰다. 언덕 위에 서서 마치 받침대처럼 자신을 받쳐 주는 듯했다. 그녀는 매우 키가 컸고, 초인적인 비율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팔을 뻗으며 노래를 시작했을 때, 그녀의 제스처와 목소리는 푸른 하늘이 덮고 있는 거대한 나무와 화강암의 원형 극장을 가득 채웠다.

주베일 부부와 손님들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듣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경험하는 그 감정이 밀려왔다. 마음속 깊이, 잊지 못할 기억이 만들어져 갈 때 느끼는 그 느낌이다.

성채 직원들, 성채 벽에 맞닿은 쪽에 자리한 농장 직원들, 그리고 가까운 마을의 농부 열 명 정도가 모두 문과 수풀 구석에 모여들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순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엘리자베트 호르네가 부르는 노래는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낮고 넓으며 때로는 비극적인 음조로 높아지고 퍼져 나갔다. 하지만 그 안에는 희망과 생기가 숨 쉬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하지만 이 사건은 절대적인 안전 속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안전이 깨질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은 갑작스럽고 즉각적이었다.

관객들마다 느낀 감정은 달랐을지라도, 그들이 모두 확신했던 점은 하나였다. 그 사건이 예고도, 예측도 할 수 없는 폭탄처럼 터졌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증언에서 같은 표현이 반복되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비극이 찾아왔다.

마법 같은 목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닫힌 공간 저편에서 노래하던 살아 있는 조각상이 기단의 폐허 위에서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비명도, 두려움의 몸짓도, 방어나 안달의 움직임조차 없었다.

그 순간 우리는 확신했다. 싸움도,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죽어가는 여성에게 다가가게 될 것이 아니라, 첫 순간부터 이미 사망한 여성에게 다가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작 위쪽 광장에 도착했을 때, 엘리자베트 호르네인은 굳어 죽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뇌출혈일까? 심장마비일까? 아니었다.

그녀의 맨 어깨 위와 목덜미에서 피가 무럭무럭 흐르고 있었다.

그 붉은 피가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모두가 목격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누군가 경악의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목걸이가 사라졌어요!"

당시 사람들이 열렬히 관심을 보였던 그 수사의 세부 사항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지루할 것이다. 게다가 그 수사는 쓸모없었고, 금방 끝났다. 수사를 이끌었던 검사들과 경찰들은 초반부터 벽에 부딪혔다. 그들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끝난 단단한 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들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단순한 살인 사건이자 도둑질일 뿐이었다.

사건은 분명히 범죄였다. 물론 총알이나 총, 그리고 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관중 42명 중 5명은 어딘가에서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 빛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는 제각각이었다. 나머지 37명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소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세 사람은 총성이 아닌, 묵직한 폭발음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머지 39명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어쨌든 살인사건 자체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상처가 남았기 때문이다.

그 상처는 끔찍했다. 끔찍할 정도로 잔인했다. 왼쪽 어깨 정수리 부위, 목 바로 아래를 강타한 거대한 탄환이 남긴 자국이었다.

탄환?

만약 그렇다면, 범인은 무덤덤한 유적지 위에 올라서서 가수보다 높은 곳에서 사격해야 했다. 그리고 그 탄환은 살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내부 장기에 큰 피해를 줬어야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피가 흐른 그 상처는 둔기, 즉 망치나 두들기용 막대기 같은 것으로 파헤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망치나 막대기를 휘두른 이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행동이 아무에게도 목격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목걸이들은 어떻게 된 걸까? 만약 살인과 절도가 있었다면, 누가 그 둘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어떤 기적이 있었기에 공격자가 도망칠 수 있었을까? 최상층의 몇몇 창가에 자리 잡은 하인들은 가수가 노래하는 내내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가 노래하는 광장, 그녀가 쓰러질 때의 몸, 그리고 땅바닥에 누운 시체까지 모두 지켜보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한 남자가 오가거나, 관목 사이로 도망치거나, 필사적으로 달리는 모습을 말이다. 그 모든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장면을 목격했을 터였다.

게다가 그 뒤로는 폐허가 급경사의 절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곳은 오를 수도, 내려갈 수도 없는 곳이었다.

그는 담쟁이덩굴 아래로 숨었을까, 아니면 어딘가의 구덩이에 몸을 숨겼을까? 사람들은 두 주 동안이나 샅샅이 뒤졌다.

파리에서는 야심 있고 집요한 젊은 경찰관 고제레를 불러들였다. 그는 이미 한때 명성을 떨친 적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모든 수색은 헛수고였다. 조사 결과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사건은 결국 종결되었고, 이는 고제레에게 큰 실망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 비극에 경악한 주벨 부부는 볼니크를 떠났다. 그들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단언하며 떠났다.

성채는 모든 가구를 그대로 둔 채로 시장에 내놓았다.

6개월 뒤, 누군가가 이 성채를 사들였다. 하지만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매매를 중재한 오디가르 공증인이 모든 과정을 극비리에 처리했기 때문이다.

가축 사육부, 농부, 정원사까지 모두 해고당했다. 오직 성채 아래로 마차가 지나던 그 큰 탑만은 살아남았다. 거기에 한 노인이 아내와 함께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이름은 레바르돈. 전직 헌병이었다. 은퇴한 그는 이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입바닥 열게 만들려 애썼다. 하지만 그들의 호기심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일 년에 한 번꼴로, 시기는 제각각이었지만,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자동차로 도착해 성채에 묵었다가 이튿날 새벽에 떠나는 것이었다. 당연히 소유주일 것이다. 레바르돈과 면담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리라.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쪽에서는 더 이상 알아낸 것이 없었다.

십일 년이 더 흘렀다. 그사이 경비병 레바르동이 죽었다.

그의 부인은 성 안쪽 탑에서 혼자 살았다. 남편만큼 말이 없었던 그녀는, 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연 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또 사 년이 지나갔다.

제2장

상테즈역.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철제 울타리와 파르페듀 홀로 통하는 출구 사이로 여행자들의 물결이 오갔다. 출발하는 이들과 도착하는 이들로 나뉘어 흐르다,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며 문과 복도로 급히 쏟아져 나갔다.

바늘이 멈춘 시계판들이 목적지를 가리켰다. 직원들은 티켓을 확인하고 구멍을 뚫어 증명했다.

열두 명도 아닌 두 남자는 그 열광적인 서두름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들은 군중 사이를 유유히 거닐며, 마치 군중의 소동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산책객처럼 어딘가 딴생각에 잠겨 있었다.

한 명은 거구로 힘이 장난이었지만 얼굴은 그리 친근해 보이지 않았다. 표정이 굳어 있어 더없이 냉혹해 보였다. 다른 한 명은 여리여리하

고 비쩍 마른 체격이었다. 둘 다 멜론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런 안내 표시도 없던 출구 근처에서 멈춰 섰다. 그곳에는 네 명의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더 마른 남자가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다.

"15시 47분 열차가 몇 시에 도착합니까?"

직원은 비웃는 듯한 어조로 대답했다.

"15시 47분에 도착합니다."

뚱뚱한 신사는 동생의 멍청함을 안타까워하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는 차례로 물었다.

"리스ieux행 열차 맞지? 368번 열차?"

"맞습니다, 368번 열차입니다. 10분 후면 도착합니다."

"지연은 없나?"

"아니요, 지연은 없습니다."

두 사람은 걸어가다 기둥 하나에 기대어 섰다.

삼 분, 사 분, 오 분이 흘렀다.

"참 골치 아프군." 굵은 체격의 남자가 말했다. "경찰청에서 보내준 형사를 못 보겠어."

"그 형사가 필요하단 말인가?"

"물론이지! 연행장이 없으면 어떻게 그 여자를 잡겠나?"

"아마 우리가 있는 곳을 못 찾고 있는 걸세. 아니면 우리를 모르는지도 모르지."

"바보 같은 놈!" 고르제레 형사가 코웃음을 쳤다. "플라망, 네가 뤼팽을 모른다는 건 자연스럽지. 하지만 나는 다르다. 볼니크 성 사건 이후 줄곧 현장에 서 있는 수석 형사, 고르제레라고!"

비명을 지른 플라망은 억울하다는 듯 입을 열었다.

"볼니크 성 사건? 그건 이미 옛날이야. 십오 년 전 일이잖아."

"그럼 생토노레가 도둑맞은 사건은? 그리고 내가 대장 폴을 사로잡았던 그 함정은 언제였지? 십자군 전쟁 때야?" 고르제레가 쏘아붙였다. "그것도 아니고 두 달도 채 안 됐다고."

"당신이 잡았다고요… 네가 잡았다고요. 하지만 대장 폴은 여전히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작전을 완벽하게 짰다는 증거야. 그래서 지금도 나를 불러 쓰는 거지. 보라구, 파견 명령서에 내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걸."

그는 지갑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펼쳤다. 두 사람은 함께 그것을 읽어 내려갔다.

"큰 폴의 연인, 클라라 라 블롱드라는 여자가 리시외에서 온 368번 열차에 탔다. 오후 3시 47분 도착 예정이야. 고제레 경사를 즉시 보내."

"생체 영치장을 보내주마. 생트라자르 역에서 열차 도착 전에 전달할게."

"신원 확인 사항: 금발의 웨이브 머리, 푸른 눈. 나이는 스무 살에서 스물다섯 살 사이. 예쁘다. 옷차림은 소박하지만 자태는 우아해."

"보잖아, 내 이름이 적혀 있잖아. 큰 폴을 내가 항상 돌봐 왔으니, 그의 여자친구를 내가 맡게 된 거야."

"당신은 그 여자를 알고 있나요?"

"별로였어. 그래도 문부수 때려 부수고, 파울이라는 큰 형과 함께 방에 숨어 있던 그 녀석을 잡으러 갔을 때, 그 여자의 얼굴은 제대로 봤지. 하지만 그날은 운이 없었어. 내가 그 녀석을 껴안으려던 순간, 여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린 거야. 그리고 내가 그녀를 쫓는 사이, 파울은 도망쳐 버렸어."

"그럼 당신은 혼자였다는 말인가요?"

"아니, 셋이었어. 하지만 파울이 먼저 다른 두 사람을 쓰러뜨렸지."

"정말 무서운 놈이군!"

"그래도 내가 그 녀석을 잡았잖아!"

"제발 그 놈을 놓지 않았어야 했어요."

"내 자리라면? 친구야, 너도 다른 두 사람처럼 쓰러졌을 거야. 게다가 너는 이미 바보로 소문이 나 있잖아."

상테 형무소장 고르제 형사의 입에서는 이보다 더 결정적인 논쟁이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부하들을 모두 바보라고 여기며, 자신은 실수할 줄 모르는 인물이며 어떤 다툼에서도 항상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자라고 자부했기 때문이다.

플라망은 고개를 숙인 체하며 말했다.

"결국 운이 좋았던 거죠. 볼니크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오늘 아침, 그 대폴과 클라라에 대한 이야기까지. 형사님 수집품에 아직 빠진 게 하나 있죠."

"무엇이요?"

"아르센 뤼팽의 체포죠."

"저 녀석은 두 번이나 초 단위로 놓쳤어. 하지만 세 번째는 반드시 잡겠지." 고르제 형사가 투덜거렸다. "볼니크 사건은 항상 주시하고 있어. 대폴도 마찬가지고. 클라라 블론드에 관해서도…"

그는 동료의 팔을 꼭 잡았다.

"조심해! 열차가 오고 있어…"

"명함도 없는데!"

고제레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를 향해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때, 멀리 선로 끝에서 거대한 기관차의 앞부분이 모습을 드러냈다. 기차가 천천히 플랫폼을 따라 늘어났고, 이내 정차했다. 문이 열리자 군중이 쏟아져 나왔다.

출구로 나가는 승객들은 검표원들의 지시에 따라 한 줄로 늘어섰다. 고제레는 플라망의 이동을 막았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곳이 유일한 출구였고, 무리들은 하나씩 풀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명확한 특징을 지닌 한 여자를 어떻게 놓칠 수 있겠는가?

그때 그녀가 나타났다. 두 경찰의 확신은 즉각적이었다. 바로 그녀였다. 신고된 그 여자. 의심의 여지 없이, 클라라 라 블롱드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다.

"맞아, 맞아." 고제레가 중얼거렸다. "내가 알아봤어. 야, 미친놈아. 이번엔 도망칠 수 없게 됐네."

그 얼굴은 정말로 아름다웠다. 미소와 놀람이 섞인 표정. 물결치듯 곱슬거리는 금발 앞머리. 멀리서도 뚜렷이 보이는 선명한 푸른 눈. 그

리고 입맛에 따라 드러나거나 숨겨지는, 언제나 웃을 준비가 된 듯한 입술 사이로 빛나는 하얀 이빨.

그녀는 회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흰 린넨 칼라가 작은 기숙사생 같은 인상을 주었다. 태도는 신중했다. 마치 자신을 감추려 애쓰는 듯했다.

손에는 크지 않은 여행 가방과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두 가지 모두 깨끗했지만, 사치는 없었다.

"표 보여 주시겠어요, 아가씨?"

"표?"

문제가 생겼다. 표가 어디 있단 말인가? 주머니? 가방? 아니면 여행 가방 속?

그녀는 사람들을 기다리게 해서 당황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당황스러움을 재미 삼아 구경했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드디어 소매 안쪽 단추 밑에 핀으로 고정된 표를 찾아냈다.

그제야 그녀는 양옆으로 줄을 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다.

"젠장! 영장 하나 없이 왜 왔지! 이럴 줄 알았으면…" 고제레가 투덜거렸다.

"그래도 잡아야죠."

"바보냐? 그냥 따라붙으면 돼. 실수라도 하면 안 돼. 발끝까지 바짝 달라붙는 거야."

고제레는 현명했다. 이미 한 번 재주껏 빠져나간 여자를 쉽게 붙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의 경계를 일깨워서는 안 되었다. 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켜보았다. 클라라 블랑드가 망설이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것이 연기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잃어버린 방으로 들어가는 사람처럼 방향을 잡으려 애썼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묻지 못했다. 그저 목적지 없이 표류하듯 걸어갔다.

고제레가 중얼거렸다.

"정말 영리한 여자가 있군."

"어디가?"

"그녀가 역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른다고는 절대 믿지 않아. 그러니 망설이는 건 우리가 뒤를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심하는 거겠지."

"맞아요, 플라망." 플라망이 말했다. "그녀는 쫓기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정말 친절하죠. 게다가 그 우아함이라니!"

"흥분하지 마, 플라망! 그녀는 인기 있는 여자야. 그 큰 폴이 그녀에게 미쳐 있어. 자, 이제 계단을 찾았네. 서두르자."

그녀는 내려와 로마 광장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택시를 불렀다.

고르제레는 재촉했다. 그는 그녀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운전사에게 주소를 읽어주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낮게 말했지만, 그는 분명히 들었다.

"볼테르 강변 63번지로 가주세요."

그녀는 올라갔다.

고르제레도 뒤이어 택시를 불렀다. 하지만 그 순간, 그가 간절히 기다려 온 검찰청 특파원이 그를 막아섰다.

"아, 레노군요? 영장 있으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경찰이 대답하며, 고르제레에게 전달하라는 추가 설명을 몇 가지 덧붙였다.

그가 다시 혼자 있게 되었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부른 택시는 이미 멀리 사라져 있었고, 클라라의 택시는 광장 모퉁이를 돌아버린 뒤였다.

그는 또 세네, 네 분을 허비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주소를 알고 있었으니까.

"운전수, 볼테르 강변 63번지로 가시오."

두 형사가 기둥에 기대어 368열차의 도착을 감시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누군가 그들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나이가 지났고 얼굴은 마른 털로 덮여 있었으며, 피부는 누렇게 그을린 사내였다. 그는 너무 길고 낡아붙인 올리브빛 코트를 입고 있었다.

고르제레가 주소를 외치는 찰나, 이 사내는 형사들의 눈치를 피하며 차가 있는 곳으로 슬그머니 바싹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마자 택시 한 대를 잡아타고 외쳤다.

"볼타르 강변 63번지."

제3장

볼테르 강변 63번지는 센 강을 따라 서 있는 오래된 회색 건물이다. 창문이 매우 높게 뚫려 있다.

지하실 전체와 중간층의 3분의 2는 골동품 상점과 서점들이 차지하고 있다. 1층과 2층은 에를몽 후작의 넓고 호화로운 아파트다. 그 가문은 한 세기 넘게 이 건물을 소유해 왔다.

과거에는 부유했지만, 투자 실패로 인해 지금은 사정이 여의치 않다. 가문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가사 인력을 줄이고 생활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정이라 그는 중간층에 있는 작은 독립 세트를 빼내어 놓았다. 네 방으로 된 그 공간은, 만약 구매자가 성의를 다해 뇌물을 건넬 경우, 그의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해 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때부터 한 달째, 그 세트를 빌린 사람은 라울이라는 신사였다. 그는 밤을 새우는 일이 드물었고, 오후에 한두 시간씩만 찾아올 뿐이었다.

그는 관리인의 집 바로 위, 후작의 비서가 쓰는 방 바로 아래에 살았다. 어두운 현관을 지나면 거실이 나왔다. 오른쪽에는 침실이, 왼쪽에는 욕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후, 거실은 비어 있었다. 가구는 드물었고, 어디에서나 무작정 가져다 놓은 듯했다. 어떤 정리도, 친밀감도 없었다. 그곳은 잠시 머물다 가는 야영지 같은 느낌이었다. 우연한 사정으로 그곳에 오게 되었다가, 순간의 기분에 따라 언제든 갑자기 떠나게 될 것만 같았다.

세느강의 아름다운 풍경이 내려다보이는 두 창문 사이에는, 한쪽 등받이가 높은 안락의자가 있었다. 등받이는 푹신한 패딩으로 덮여 있었고, 안락의자는 출입문을 등지고 있었다.

그 안락의자 바로 오른쪽에는 작은 원탁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리큐어 통처럼 생긴 작은 상자가 있었다.

벽에 기대어 놓은 좁은 시계통이 네 번을 쳤다.

두 분이 흐른 뒤, 천장에서는 규칙적인 간격으로 세 번의 타격음이 울렸다. 극장에서 커튼이 오르기 전에 나는 세 번의 신호음과 똑같았다.

그리고 다시 세 번.

그때였다. 술 창고 쪽에서 갑자기, 하지만 은밀하고 낮게, 전화기처럼 날카로운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시 정적.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다. 발꿈치로 세 번 두드리는 소리. 전화기의 묵직한 떨림 소리. 하지만 이번에는 전화가 끊기지 않았다. 술 창고에서 마치 음악 상자가 돌아가듯 소리가 계속 쏟아져 나왔다.

"크레블루, 크레블루, 크레블루!"

거실에서 누군가 잠에서 깨어 나지막이 투덜거렸다.

커다란 안락의자 오른쪽으로, 창문을 향해 등을 돌린 채 놓인 자리에서 한 팔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팔은 작은 탁자 위의 작은 상자를 향해 길게 뻗어 나갔다. 손이 상자의 뚜껑을 들어 올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전화기 수화기를 잡아챘다.

수화기는 안락의자 등받이 너머로 옮겨졌다. 안락의자 구석에 몸을 파묻고 누워 있던 보이지 않는 남자의 목소리가 더 또렷이 들려왔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래, 나야, 라울… 너는 내가 잠들게 좀 내버려두지 못하냐, 쿠르빌? 네 사무실과 내 방을 연결하다니, 무슨 멍청한 생각인지. 할 말도 없겠지? 알겠어, 나는 자겠다."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발끝으로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와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결국 그는 양보했고, 안채의 라울 씨와 에를르몽 후작의 비서 쿠르빌 씨 사이에 낮게 속삭이는 듯한 대화가 오갔다.

"말해 봐. 다 털어놓게. 후작은 집에 있나?"

"네, 있습니다. 그리고 발텍스가 방금 그분을 떠나갔습니다."

"발텍스! 또 발텍스다! 오늘도 또!"

"젠장! 그 인간은 나보다 더 싫어. 분명히 우리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으니까. 문제는 그 목표가 뭔지 그는 알지만,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문 너머로 무슨 소리 들렸나?"

"네가 항상 아무것도 듣지 못하잖아. 그럼 왜 나를 깨우냐? 자고 있게 해 줘, 젠장! 나는 다섯 시에 약속이 있어. 멋진 올가와 차를 마시러 가는 거야."

문을 다시 닫았다. 하지만 통신이 그를 완전히 깨운 듯했다. 그는 안락의자 깊숙이 파묻힌 채 담배에 불을 붙였다.

푸른 연기가 등받이 위로 둥글게 올라갔다. 시계는 네 시 십 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울리는 전기 종소리가 갑자기 들렸다. 동시에, 두 창문 사이, 처마 밑에 있던 패널이 미끄러졌다. 분명히 종소리에 반응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 결과였다.

작은 거울만한 길이의 직사각형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영화관 스크린처럼 밝게 비춰진, 곱슬머리 물결이 아름다운 금발 소녀의 매력적인 얼굴이 비쳤다.

라울 씨가 속삭이며 벌떡 일어났다.

"아, 참 예쁜 소녀야!"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아니, 분명히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본 적이 전혀 없었다.

스프링을 누르자 패널이 다시 닫혔다. 그러자 그는 다른 거울 앞에 섰다. 거울에는 삼십오 살쯤 되어 보이는, 몸매가 잘 잡힌 우아한 신사의 모습이 비쳤다. 옷차림도 흠잡을 데 없었다. 이런 신사는 어떤 아름다운 여인의 방문이라도 당당히 맞을 수 있었다.

그는 현관으로 달려갔다.

금발의 방문객은 손에는 봉투를, 발 옆에는 여행 가방을 든 채 복도 카펫 위에 서 있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마담?"

"소녀입니다," 방문객이 낮게 말했다.

그가 다시 물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소녀?”

“이곳이 에를몽 후작의 집이 맞습니까?”

라울 경은 방문객이 층을 잘못 찾았다는 걸 깨달았다. 현관 안으로 두세 발짝 들어선 소녀를 보자, 그는 곧장 여행 가방을 낚아채고 당당하게 말했다.

“제가 바로 그분입니다, 아가씨.”

소녀는 거실 문턱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그 후작이… 나이가 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분의 아들이오.” 라울 경은 차갑게 단언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말도 안 되네. 그렇다면 내가 그분의 아들이 아니라고 치자고. 어차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에를몽 후작님과 사이가 아주 좋소. 비록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재치 있게 그는 그녀를 안으로 들인 뒤 문을 닫았다.

소녀가 항의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가야 해요… 층을 잘못 찾았어요.”

"바로 그거요… 잠시 숨을 고르세요… 계단이 절벽처럼 가파르거든요."

그는 태도가 너무 경쾌하고 거침없어서, 그녀는 살롱을 빠져나가려 애쓰면서도 어쩔 수 없이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 문고리가 다시 울렸다. 그리고 두 창문 사이로 다시 빛나는 스크린이 떠올랐다. 거친 수염이 얼굴을 가로지른, 퉁명스러운 표정의 남자가 나타났다.

"젠장! 경찰이야!" 라울 씨가 외치며 스크린의 전원을 끊었다. "저 녀석이 여기서 뭘 하러 온 거지?"

젊은 여자는 낯선 남자의 얼굴을 보고 당황하며 불안해졌다.

"제발, 선생님, 저를 보내주세요."

"하지만 그건 고르제르 경감이야! 찌질한 놈이잖아! 진상도 없이 골치만 아픈 녀석이지… 내 정체를 잘 알고 있는 놈이거든… 그 녀석이 당신을 보게 해서는 안 돼. 절대 보지 못하게 할 거야…"

"그가 나를 본들構いません, 선생님. 저는 떠나고 싶을 뿐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미스. 당신이 연루되는 일은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연루되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어서요, 제 방으로 들어가세요. 안 되나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든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정중하게 젊은 여자의 손을 내밀어, 넓은 안락의자에 앉게 했다.

"그만 움직이지 마세요, 미스. 여기서는 누구의 시선에도 안전한 곳입니다. 삼 분만 기다리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겁니다. 방은 피신처로 싫다면, 안락의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따랐다. 그의 기쁜 표정과 친근한 태도 속에 결정적인 권위가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쁨에 겨워 발끝으로 가볍게 튀어 올랐다. 이 일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러 갔다.

고제르 형사가 날렵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뒤이어 동료인 플라망 형사도 따라 들어왔고, 고제르 형사는 곧장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여기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경비 아줌마가 그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초인종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라울 씨는 부드럽게 그를 막으며 매우 정중하게 물었다.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법 경찰 소속 주사 고제르입니다."

"고제르라니!" 라울 씨가 외쳤다. "바로 그 유명한 고제르! 아르센 뤼팽을 거의 체포했던 그 사람!"

"언젠가 꼭 붙잡아 보겠다는 뜻이오." 형사가 가슴을 쫙 펴며 말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건 다른 일입니다. 아니, 다른 사냥감 말이죠. 한 부인이 올라오셨죠?"

"금발이었나요?" 라울이 물었다. "아주 예쁜 여자였나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제가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 부인은 정말로 예쁩니다. 놀라울 정도로요. 가장 달콤한 미소를 지니고 있고, 얼굴은 그윽한 freshness를 띠고 있죠."

"그녀가 여기 있습니까?"

"방금 나갔습니다. 삼 분도 채 안 되어 그녀가 종을 누르고, 제가 볼트아베르 대로 63번지에 사는 프르송 씨인지 확인하더군요. 저는 그녀가 잘못 오셨다고 설명하고, 올바른 길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떠났습니다."

"참 운이 없군!" 고제레가 중얼거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바퀴 의자를 힐끔 스치듯 바라보고는 문들을 살폈다.

"제가 열까요?" 라울 씨가 물었다.

"필요 없소. 저쪽에서 다시 만날 테니."

"고제레 형사와 함께라면 안심입니다."

"나도 그래." 고제레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모자를 다시 쓰며 덧붙였다.

"혹시 그녀가 자기 방식의 장난을 꾀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녀석, 정말 꾀 많은 여우 같아!"

"그 아름다운 금발이요? 꾀 많은 여자가?"

"어쨌거나, 방금 생트라자르 역에서 그녀를 거의 붙잡았잖소. 그녀가 탈 것으로 지목된 열차가 도착했을 때였지. 그런데 또다시 빠져나갔소."

"나에게는 아주 차분하고 친근해 보였는데!"

고제레는 반박하듯 몸을 움직이며, 억지로라도 내뱉었다.

"정말 골치 아픈 여자라고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대도 '파울'의 애인이라니요."

"뭐요? 그 유명한 강도요? 도둑질은 물론이고, 살인범일지도 모르고. 제가 거의 붙잡았다고 생각했던 그 '파울'이요?"

"그리고 저는 그 애인과, 그 여우 같은 '금발의 클라라'를 꼭 붙잡아 보일 겁니다."

"말도 안 되네요! 그 예쁜 금발 여자가, 신문에서 보도된 지 여섯 주째 수배 중인 그 클라라라는 말입니까?"

"바로 그 여자요. 그러니 이 작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시겠죠. 플라망, 갈까요? 자, 선생님, 주소는 맞습니까? 볼바르 대로 63번지, 프로상 씨 댁이요?"

"맞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알려준 주소입니다."

라울 씨가 그를 안내했다. 그는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행운을 빕니다." 그는 계단 난간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그 김에 루팽 씨도 붙잡아 주십시오. 이 모든 게 바로 그런 부류의 짓이니까요."

거실로 돌아왔을 때, 소녀는 서 있었다. 얼굴이 조금 창백했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에요, 마들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신원이 이미 알려져 있었죠."

"그럼 당신은 바로 유명한 그랑 폴의 애인, 금발의 클라라군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랑 폴이 누구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신문도 안 읽어요?"

"잘 안 읽어요."

"그럼 금발의 클라라라는 이름은요?"

"저도 몰라요. 제 이름은 안토냉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죠?"

"아무것도요. 그래도 그들은 저를 체포하려 했어요. 정말로…"

그녀는 말을 멈추고 미소 지었다.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유치했는지 갑자기 깨달은 듯했다.

"저는 정말 시골 출신이죠. 맞나요? 조금만 복잡해져도 머리가 돌아버리네요. 잘 가요, 선생님."

"그렇게 급하신가요? 잠시만요. 할 말이 많습니다. 당신에게는 기쁨에 찬 미소가 있잖아요. 정말 어지럽게 만드는 미소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 미소."

"들을 말이 없습니다. 잘 가요!"

"뭐라고요? 제가 방금 당신을 구해 주었는데…"

"제가 구해 주셨다고요?"

"당연하죠. 감옥… 재판을… 단두대. 이런 일을 당했으니 보답이라도 해야죠. 에를몽 후작 댁에 얼마나 머물러요?"

"한 시간쯤 될까요…"

"좋아요. 제가 지나가다 들를 테니, 여기서 함께 차라도 마시며 친구처럼 이야기합시다."

"차요, 여기요! 오, 선생님, 실수 하신 것 같아요. 정말요."

그녀가 그에게 던지는 눈빛이 너무도 정직했다. 그의 제스처가 실례임을 직감한 그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원하시든 원치 않든, 미스. 우연이 다시 우리를 마주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우연을 도와주겠지. 이런 만남은 반드시 다음 날을 가져오기 마련이야. 수많은 다음 날을요."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선 그는 그녀가 층계를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손으로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정말 사랑스러워… 그 상큼한 미소라니! 그런데 그녀가 마르키스 댁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더구나 그녀는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그녀의 삶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그녀가 바로 대(大) 폴의 애인이라니! 대 폴과 함께 비방을 당했을 가능성은 있겠지. 하지만 대 폴의 애인이라니,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는 경찰이나 지어낼 수 있는 말이지!"

그렇지만 그는 생각했다. 볼테아르 대로 63번지에서 코를 다친 고제레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만약 그렇다면 그와 이 소녀가 마주칠 위험이 있었다. 이 일은 반드시 막아야 했다.

하지만 그가 갑자기 자택으로 돌아왔을 때, 이마를 치며 중얼거렸다.

"젠장! 내가 깜빡했군…"

그는 숨 막히는 듯 전화를 향해 달려갔다. 숨죽여 숨겨둔 전화기가 아니었다. 시와 연결되는 직통 전화였다.

"베드롬 00-00! 여보세요!… 자, 서두릅시다, 미스. 여보세요!… 베르위츠 의상점입니다. 왕후께서 계신가요? (조급해하며) 제가 묻는 건 왕후께서 계신지 아닌지입니다… 지금 입어보고 계신가요? 알겠어요. 라울 씨가 전화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는 다시 위압적인 어조로 덧붙였다.

"말장난 하지 마세요, 알죠?… 왕후께 반드시 알리라고 하겠어요! 왕후께서 모른 체하면 크게 화내실 겁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수신기를 툭툭 치며 기다렸다. 전화 너머 누군가가 응답했다. 그가 불렀다.

"올가? 나, 라울인데. 어? 뭐라고? 연습을 멈췄어? …그리고 반쯤 벗은 상태야? 어쨌든 지나가다 너를 목격한 사람들은 운이 좋았겠군. 멋

진 올가. 중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깨를 가졌잖아. 하지만 부탁이야, 올가, 그렇게 'ㄹ' 발음을 굴리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 아, 참, 나도 똑같이 굴리네. …자, 이거야. 차 마시러 갈 수가 없군. … 아니, 사랑하는 올가. 진정해. 여자 문제는 아니야. 업무상 약속일 뿐이지. …자, 너는 합리적이지 못해. …자, 사랑하는 양배추야. …어때, 오늘 저녁? 저녁 식사 후? 내가 데리러 갈까? …좋아. 내 사랑스러운 올가."

그는 전화를 끊고는 재빨리 문틈이 약간 열린 문 뒤에 숨어 섰다.

제4장

에를몽 후작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방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후작은 책을 별로 읽지 않았다. 다만 아름다운 장정만은 아끼는 편이었다.

볼니크 성의 비극 이후, 장 드를르몽은 열다섯 해의 시간 차이에 비해 훨씬 더 늙어 보였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서렸고, 주름은 그의 얼굴을 파고들었다. 과거에는 수많은 미녀를 유혹했던 아름다운 드를르몽은 더 이상 없었다. 그는 여전히 당당한 기품과 곧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예전에는 사람을 끌고자 하는 열정이 빛났던 그의 표정은 이제 진지해졌고, 때로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자주 드나드는 클럽이나 살롱들에서도 그런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문이 두드려지자, 하인이 와서 한 젊은 여성이 면회를 원한다고 알렸다.

"유감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종업원이 나가더니 곧 돌아왔다.

"그분이 꼭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자작님. 리지에의 테레즈 씨의 딸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니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요."

자작은 잠시 망설였다. 기억을 더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테레즈…… 테레즈……'

그리고는 곧장 대답했다.

"들여보내라."

그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젊은 여성을 맞았다. 두 손을 내밀며 정중하게 환대했다.

"환영합니다, 미스. 물론 당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당신 어머니와 얼마나 닮았는지요! 같은 머리결…… 같은 약간 수줍은 듯한 표정……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지니던, 우리가 너무도 사랑했던 그 미소!"

"그래, 어머니가 당신을 보낸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미 오 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는 저에게 이 편지를 드릴 것을 약속하셨어요. 만약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평소 밝던 얼굴이 슬픔으로 어두워져 있었다. 어머니가 주소를 적어 넣은 봉투를 건네자, 그는 그것을 받아 편지를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 자리에 서 있던 자리에서 조금 떨어져 나갔다.

그가 읽은 내용은 이랬다.

"만약 내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걸 해주세요. 과거의 정을 기억해서요. 딸은 그 과거를 알고 있지만, 당신께서 단지 친구의 역할을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투완느는 저처럼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녀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만 요청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테레즈"

마르키는 말없이 자리만 지켰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때의 달콤했던 추억이 스쳐 지나갔다. 프랑스 중부의 한 온천 도시에서였다. 쥬느비에브가 영국 가정의 가정교사로 일하던 곳이었다. 테레즈도 함께 있었다.

장 드를르몽에게 그 만남은 그저 한때의 호기심에 불과했다. 시작되자마자 끝날 운명이었던 일이었다. 당시 그의 성정은 무심했고, 이기

적이었다. 자신을 그렇게도 무조건적으로 내맡기는 상대의 진심을 헤아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기억에 남은 것은 몇 시간 동안의 흐릿한 조각들뿐이었다.

그런데 테레즈에게는 그 일이 더 무거운 의미였을까? 그녀의 일생이 걸린 문제였을까?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끊어진 그 만남 뒤, 그는 뒤처진 이에게 고통과 파탄, 그리고 이 아이를 남겨둔 것은 아닐까?

그는 그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다. 그녀가 그에게 편지를 쓴 적도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편지가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과거로부터 튀어나온 것이다.

감정이 치밀어 오른 그는 젊은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안토닌, 너 나이가 몇이니?"

"스물셋입니다."

그는 자신을 단속했다. 날짜들이 일치하고 있었다. 그는 목소리가 메마른 채로 되물었다.

"스물셋!"

침묵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막고, 테레즈의 소원을 들어주며 동시에 젊은이의 의심을 돌리기 위해 그는 말했다.

"나는 너의 어머니와 친구였단다, 안토닌. 그리고 그분……의 친구이자 고백자였지."

"그건 말하지 맙시다, 제발요, 선생님."

"어머니는 그 시기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만 간직하고 계셨던 거야?"

"어머니는 그话题에 대해 침묵하셨어요."

"그렇군. 하지만 한 마디만 하마. 그녀의 삶이 너무 힘들지는 않았었나?"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그분은 저에게 모든 기쁨을 주셨죠.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저를 받아준 사람들과 더 이상 지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자세히 들려주시오, 아이야.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한 일은 당신의 앞날을 생각하는 거야. 무엇을 원하오?"

"누구의 의존도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럼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겠다는 뜻이오?"

"저는 복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할 줄 아시오?"

"모두 할 줄도 알고, 아무것도 할 줄도 모릅니다."

"그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군. 내 비서가 되어주겠소?"

"선생님에게는 이미 비서가 있으십니까?"

"있지. 하지만 그 녀석을 믿지 못하겠소. 문틈으로 소리를 엿듣고, 내 서류를 뒤지는 습관이 있거든. 네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겠소."

"저는 누구의 자리도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이봐, 그럼 참으로 곤란하군." 에를몽 후작이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다. 그는 경청하며 다정하게 대했고, 그녀는 편하게, 때로는 무심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가끔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그게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그녀에게 너무 성급하게 재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를 더 잘 알아가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차를 타고 출장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다. 그 일이 끝나면 약 보름간 해외에 머물러야 했다.

그녀는 그의 자동차 여행에 동행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쪽지 한 장에 파리에 머물 예정인 여관 주소를 적어주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가 그녀를 데리러 오기로 약속했다.

안채 복도에서 그가 그녀의 손을 입맞췄다. 우연히도 쿠르빌이 지나가고 있었다. 후작은 담담하게 말했다.

"또 만나자, 내 아이야. 다시 나를 찾아올 거지, 그렇지?"

그녀는 작은 손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고, 경쾌했으며, 곧 노래를 부를 것처럼 보였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너무도 예상치 못했고, 너무도 빨랐다. 그녀는 일관성 없는 여러 가지 감각의 연속만 인지했고, 그것은 그녀를 뒤흔들었다. 층의 마지막 계단에서 — 계단 난간은 꽤 어두웠다 — 그녀는 지하실 문 앞에서 사람들이 다투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몇 마디의 말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당신은 나를 속였군요, 선생님… 볼바르 대로 63번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네요, 형사님! 하지만 볼바르 대로 자체는 존재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제가 이 곳에 왔을 때 주머니에 넣었던 중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클라라 양에게 발행된 수표 같은 건가요?"

젊은 여성은 고르제레 형사의 목소리를 알아보고서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는 대신 그 자리에 그대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수석 형사는 그 비명을 들었다. 그는 돌아서서 도망치는 여성을 보고는 그녀를 향해 뛰어올랐다.

그때 두 손이 그의 손목을 잡아채며 현관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자신감 있게 버텼다. 상대가 누구든, 자신의 거구와 근육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깜짝 놀랐다. 도망치는 것은커녕, 아예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이다. 상대의 손아귀에 완전히 묶인 셈이었다. 그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제발 좀 놓아주지 그래!"

"제발 따라와 주세요!" 라울 씨가 외쳤다. "영장 문서가 제 집에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요구하셨잖아요."

"영장 따위, 알바 아니야."

"저는 아닙니다! 제가 돌려드려야 합니다. 당신이 직접 요구하셨으니까요."

"미친놈이냐! 그 사이 여자애는 도망가고 있는데!"

"친구는 밖에 없나?"

“거리에는 있지만, 바보라서…”

순간, 그는 현관으로 옮겨 가 있었고, 닫힌 문에 막혀 있었다. 그는 분노로 발을 구르며 끔찍한 저주를 입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문을 두드린 다음, 자물쇠를 공격했다. 하지만 문도 자물쇠도 움직이지 않았다. 자물쇠는 특별한 종류로 보였고, 열쇠는 끝없이 돌아갔지만, 그 비밀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기 당신의 영장입니다, 가니마르 형사님," 라울 씨가 말했다.

고르제레는 그의 옷깃을 잡으려 했다.

"당신은 정말 대담하군요! 이 영장은 제 코트 주머니에 있었어요. 첫 번째 방문 때부터요."

"아마 떨어졌겠죠, 차분하게 라울 씨가 말했다. 나는 여기서 바닥에서 찾았어요."

“장난이군요! 하지만 볼바르 거리 이야기를 하며 저를 현혹한 건 부인 못 하겠군요. 제가 그곳으로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소녀는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뭐?”

“그녀는 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등 뒤에 있는 안락의자에 앉아 계셨죠."

"세상에! 세상에!" 고르제가 팔짱을 끼며 반복했다. "그녀가 그 의자에 있었다니… 그리고 당신은 감히…? 도대체, 당신은 미친 건가? 누가 허락했단 말인가…"

"제 마음씨 좋은 분, 라울 씨가 달콤한 어조로 대답했다. "자, 가니마르 형사, 당신도 착한 사람 아닙니까. 아내나 아이들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그 예쁜 금발 여자를 감옥에 던져 넣으라고 팔아넘기시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제 자리였다면 당신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고, 볼바르 드 볼테르 거리에서 저를 쫓아냈겠죠. 시인하세요."

고르제레는 숨이 턱 막혀 버렸다.

"그 여자가 있었어요! 그대 폴의 애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당신한테는 큰일 나는 겁니다, 젊은이."

"그대 폴의 애인이 있었음을 당신이 증명한다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증명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시인했잖아요."

"혼자서, 눈을 마주보며 시인했죠. 그게 아니라면… 끝장입니다."

"경감으로서의 제 증언은…"

"게으름 피우지 말고, 고등학생처럼 속았다고 인정할 용기는 좀 내라."

고르제르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대체 이 '바보'는 누구인가. 자신을 도발하는 것을 즐기는 듯한 그 남자가 이상했다. 그는 그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름과 신분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묘하게도 이 특이한 인물에게 압도당하고 있었다. 그는 그냥 말했다.

"그럼, 당신도 큰 폴의 여주인 친구인가?"

"나? 나는 그녀를 단 삼 분간만 봤다."

"그럼 어쨌다는 건가?"

"그럼, 그녀가 마음에 든다는 뜻이다."

"그게 충분한 이유인가?"

"그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찮은 일을 시키지 않으려고."

고제레는 주먹을 쥐고 라울 씨를 향해 휘둘렀다. 라울 씨는 태연한 표정으로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인 자물쇠인 양 단번에 문을 열었다.

가니마르 형사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그 문을 나섰다. 가슴을 내밀고 얼굴을 굳힌 채, 그는 반드시 보복할 기회를 기다리는 남자처럼 보였다.

다섯 분 뒤, 창밖을 통해 고제레와 동료 형사가 천천히 걸어가는 것을 확인한 라울 씨는 안도했다. 금발의 아가씨에게 더 이상 당장은 위험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는 천천히 천장을 두드리더니, 에를몽 후작의 비서인 쿠르빌 씨를 집 안으로 들이자마자 그를 붙잡았다.

"저기 위쪽에 금발의 예쁜 여자가 있었지?"

"네, 경작님께서 접견하셨습니다."

"네가 엿들었나?"

"그리고 뭐라고 들었단 말인가?"

"바보야!"

라울은 고르제레가 플라망에게 쓰던 바로 그 말을 쿠르빌에게도 자주 썼다. 하지만 어조는 여전히 온화했고, 동정심이 섞여 있었다. 쿠르빌은 하얗고 각진 수염을 기른 존경받는 신사였다. 나비넥타이를 매고 항상 검은 양복을 입었으며, 지방의 판사나 장례식 진행자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완벽하게 교양 있는 어휘를 구사했고, 말에는 절제가 있었으며, 어조에는 약간의 장중함이 섞여 있었다.

"경작님과 그 젊은 여인은 가장 날카로운 청각으로도 들을 수 없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오라울이 말을 끊었다. '형님, 그 말씀은 성직자 설교 같아서 제 기분을 완전히 망쳐놓네요. 대답은 하되, 말은 그만두세요.'

쿠르빌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모든 거절과 냉대를 우애의 표시로 여기는 사람이었다.

'쿠르빌 씨,' 오라울이 다시 말했다. '저는 남에게 베푼 은혜를 되새기는 게 습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당신을 알지 못했던 시절부터 당신의 흰 수염이 주는 존경스러운 인상 덕분에, 당신을 가난에서 구해내고 노모와 노친을 부양할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당신에게 안락한 직책을 주었죠.'

'선생님, 저의 감사는 끝이 없습니다.'"

"잠시만. 네 대답을 듣기 위해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하는 거지."

"계속해."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맡겨서 고생시켰지. 솔직히 인정해야 해. 네가 그 일을 얼마나 엉성하게, 그리고 멍청하게 처리했는지."

"하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아. 하얀 수염과 완벽한 정직한 사람인 척하는 너의 모습에 대한 내 존경심은 조금도 식지 않았으니까."

"다만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야.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너를 에를몽 후작을 위협하는 음모로부터 보호하는 자리에 앉혔어. 그 자리에서 네 임무는 간단했지. 비밀 서랍을 뒤지고, 의심스러운 문서를 수집하고, 대화를 엿듣는 것뿐이었어."

"그런데 네가 얻어낸 결과는 뭐야? '피오드제비'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지."

"게다가 에를몽 후작이 너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게다가 우리가 특별히 설치한 전화기를 사용할 때마다, 자고 있는 나를 깨워 끔찍할 정도로 멍청한 소리를 늘어놓잖아."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저에게 여덟 날을 주시죠." 쿠르빌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니, 내가 이 일을 직접 맡겠소. 맡는 이유는 내가 만난 여인 중 가장 아름다운 금발의 소녀, 안토닌, 일명 '블론드 클라라'가 이 일에 얽혀 있기 때문이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야 하오. 발텍스라는 자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마르키의 비밀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갑자기 나타난 '대(大) 폴'의 애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하오."

"애인?"

"이해하려 하지 마시오."

"뭘 이해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당신에게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그 진실에 대해요."

쿠르빌이 중얼거렸다.

"모르는 게 나을 텐데……"

"진실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라울이 엄숙하게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

"아르센 뤼팽. 도둑놈."

쿠르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라울 씨가 이런 사실을 자신에게 밝히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진실이 그의 정직함에 얼마나 고통을 주든, 그로 인해 라울 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줄어들지 않았다. 라울 씨의 위엄은 여전히 그의 눈앞에서 빛나고 있었다.

라울이 계속 말했다.

"알려주마. 나는 언제나 그랬듯,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채, 에를몬트란 모험에 뛰어들었다. 단서 하나에 기대어 나머지는 모두 운과 직감에 맡긴 거지."

"이번엔 어땠느냐?"

"내 정보망에 따르면, 에를몬트 경이 성들과 영지를 하나둘씩 처분하고, 도서관의 귀한 책들 몇 권까지 팔아치우는 바람에 귀족 사회에서 의아해하고 있었어."

"그건 왜?"

"내 조사 결과, 에를몬트 경의 외할아버지는 무모한 정복자 같은 여행가였어. 인도에 막대한 영지를 소유하고 나바브의 작위까지 받은 인물이지. 프랑스에 돌아왔을 때는 초호화 생활을 할 만큼 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자자했어."

"그런데?"

"그는 곧장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그 부는 현재 마르퀴스인 에를몬트 경의 어머니에게로 넘어갔지."

그 보물들은 결국 어디로 사라진 걸까. 장 드를르몽이 탕진했다고 보기엔, 그의 생활 태도가 평소에도 매우 절제된 편이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내게 뜻밖의 단서가 하나 들어왔다.

마르퀴의 서명이 있는, 반쯤 찢어진 편지였다. 겉보기에도 오래된 문서였다. 사소한 내용들 틈바구니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제가 당신에게 맡긴 임무가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은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우리 계약의 두 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절대적인 비밀 유지, 그리고 당신에게 지급할 수익의 10퍼센트(최대 100만 프랑).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빠른 결과를 기대하며 당신들에게 의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 뿐입니다…"

편지 한쪽 구석에는 날짜도, 주소도 없었다. 분명 정보 기관의 것이었지만, 어디의 기관인지 알 수 없었다. 그걸 찾는 데 소중한 시간을 허

비하기보다, 마르키와 협력하고 너를 현지에 파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쿠르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말씀하신 대로 협력을 결정하셨다면, 마르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아닙니까. 보수의 10%를 주기로 하고, 당신께서 그 일을 맡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라울이 그를 쏘아보았다.

"바보 같은 소리야. 한 기관에 수백만 프랑의 수임료를 제안하는 사건이라면, 그 규모는 최소한 2천에서 3천만 프랑은 될 거야. 그런 금액이면 나도 기꺼이 뛰어들지."

"그렇다면, 당신의 협력이라는 건요?"

"내 협력은 모든 것을 독점하는 거야."

"마르퀴는요?"

"그는 10퍼센트를 가져갈 거야. 독신이고 자식도 없는 그에게 이보다 더한 행운은 없을 거야. 하지만 내가 직접 발을 들여넣어야 해. 결론은 이렇지. 언제 마르퀴 댁에 나를 소개해 줄 수 있나?"

쿠르빌은 당황하며 조심스럽게 반대했다.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생님, 마르퀴에게 저는……"

"배신이지. 인정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친구. 운명이 너를 잔인하게도 의무와 은혜 사이, 마르퀴와 아르센 뤼팽 사이에 끼워넣었어. 선택해라."

쿠르빌은 눈을 감고 대답했다.

"오늘 밤 마르퀴는 외식하십니다. 새벽 한 시에나 돌아오실 거예요."

"하인들은?"

"저와 같은 위층에 삽니다."

"열쇠를 줘라."

새로운 양심의 갈등이었다. 그전까지만 해도 쿠르빌은 마르퀴의 보호를 돕는 일이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 열쇠를 건네고, 절도를 용이하게 하며, 거대한 사기에 가담하는 일이라니. 섬세한 영혼을 가진 쿠르빌은 주저앉았다.

라울이 손을 내밀었다. 쿠르빌이 열쇠를 건넸다.

"고마워." 라울이 말했다. 그는 쿠르빌의 양심적 고민을 놀리듯 즐기는 데서 악마적인 쾌감을 느꼈다. "열 시에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 하인들 사이에 소동이 생기면 내려와서 나에게 알려줘.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내일 봐."

쿠르빌이 떠난 뒤, 라울은 멋진 올가와 함께 외출해 저녁을 먹으려고 차려입었다. 하지만 그는 잠들어 있었고, 열 시 삼십 분에야 깨어났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전화기에 달려가 트로카데로 파리스 호텔로 연결을 요청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트로카데로 궁전입니까? 폐하의 아파트를 연결해 주십시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가 전화기 옆에 있습니까… 타이피스트라고요… 줄리, 너 맞지? 잘 지내, 사랑스러운 사람아. 그런데 여왕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알겠지? 여왕님한테 넘겨주라… 아! 그래, 너 좀 귀찮게 굴지 마. 내가 너를 여왕님 곁에 앉힌 건 불평하라고 한 게 아니야… 얼른 그녀에게 알리라고… (잠시 정적이 흐르고 라울이 다시 말을 잇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올가, 너 맞지…?

사랑하는 사람아, 내 약속이 길어졌단다… 어쨌든 난 기분이 좋아. 일이 잘 해결됐거든. 하지만 아니야, 내 사랑, 내 탓이 아니야… 금요일에 같이 점심을 먹을까? 내가 너를 데리러 갈게… 날 미워하지는 않지, 그렇지? 내가 너를 무엇보다도 우선한다는 걸 알잖아… 아, 나의 사랑스러운 올가!"

제5장

아르센 뤼팽은 야간 작전에 나설 때 검은색이나 짙은 회색 같은 특수한 복장을 입지 않는다.

"나는 있는 그대로 간다. 손은 주머니에 쑤셔 넣고, 무기도 안 들고. 담배 사러 나가는 것처럼 마음은 평온하고, 자선 활동을 하러 가는 양 양심도 편안하다."

그는 그저 몸을 풀기 위해 몇 가지 스트레칭을 하거나, 소음 없이 제자리에서 가볍게 점프를 하곤 한다. 혹은 어둠 속에서 물건을 부딪치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연습하기도 한다. 그날 밤도 그는 그렇게 준비했고, 성공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비스킷 몇 개를 먹은 뒤 물 한 잔을 쭉 들이키고, 계단 난간 안으로 들어섰다.

열한 시 사십오 분. 어둠이 짙게 깔렸고,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입주자나 하인을 만날 위험도 없었다. 입주자는 없었고, 하인들은 이미 잠들었으며, 쿠르빌은 위층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토록 안전한 조건에서 일을 처리하다니,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문을 부수거나 자물쇠를 따야 하는 귀찮음도 없었다.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향을 잃을까 봐 조바심 낼 필요도 없었다. 평면도를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

그는 집안처럼 편하게 들어섰다. 그리고 집안처럼, 서재로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 걸어가 그 방의 전등을 켰다.

빛이 가장 잘 드는 곳에서야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이었다.

두 창문 사이에 놓인 큰 거울이 그의 모습을 비춰 주었다. 그가 다가오는 자신의 상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몇 가지 과장된 예절을 취했다. 그는 본래 장난기 많은 성품이라, 남들보다 오히려 혼자서 희극을 연출하는 데 더 익숙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아 둘러보았다. 참새처럼 허둥지둥 움직이거나, 초조하게 서랍을 뒤지거나, 서고를 뒤섞으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먼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눈으로 꼼꼼히 살피고, 사물의 적절한 비율을 파악하며, 각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치수를 재야 한다.

어떤 가구는 본래那样的 선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어떤 안락좌는 빌려온 듯한 인상을 풍겨서는 안 된다. 쿠르빌 같은 도둑에게는 숨겨진 공간도 있지만, 뤼팽에게는 비밀이 없다.

열 분간 그 서재를 찬찬히 둘러본 끝에, 그는 책상 앞으로 곧장 달려갔다. 무릎을 꿇고 satin처럼 매끄러운 나무 결을 손끝으로 더듬어 보며, 구리 봉의 위치를 살폈다.

그가 일어나자 손놀림이 빠르기 시작했다. 마술사처럼 손가락을 휘저으며 서랍을 하나 열었다. 그리고는 그 서랍을 통째로 빼냈다. 한쪽을 누르고 다른 쪽을 밀자, 특정한 주문을 읊조리며 혀를 차는 소리를 냈다.

'딸깍.'

숨겨져 있던 두 번째 서랍이 안쪽에서 쏙 튀어 나왔다.

그는 다시 혀를 찼다. 머릿속으로 중얼거렸다.

'헐, 내가 막 시작하면 이런 건가! 백발 노인이 사십 날을 찾아도 못 찾았다는데, 내겐 사십 초면 족하다니. 내가 정말 천재로군.'

하지만 그 발견에 의미와 결과가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다. 그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안토닌이 후작에게 가져다 준 편지였다. 그는 곧 그 편지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다.

먼저 노란색 큰 봉투가 나왔다. 안에는 천 프랑 지폐가 열 장쯤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슬렸다. 이웃의 용돈이나 집주인의 돈, 혹은 오래된 프랑스 귀족의 돈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봉투를 혐오감에 밀쳐냈다.

나머지 내용물을 대충 살펴보니, 그곳에는 여성들의 편지와 초상화들뿐이었다. 분명히 추억의 유물들이었다. 정복한 여인들을 위한 남자의 유물들. 그는 과거의 흔적을 불태우지 못했다. 그 과거는 그에게 행복과 사랑 그 자체였으니까.

그 편지들? 모두 읽어서 각각의 편지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찾아내야 했다. 엄청난 일이었고, 아마 헛수고일 수도 있었다. 게다가 그는 그 일을 시작하는 데 주저했다.

그는 본디 연인이자 정복자였다. 너무도 섬세한 자존심을 품고 있었기에, 여성들의 사적인 고백과 속마음에 무례하게 침입하는 것을 꺼렸다.

그런 사진들을 보지 않을 용기가 어떻게 생기겠는가. 사진은 대략 백 장쯤 되었다. 하루 만에 벌어진 모험도 있었고, 일 년 동안 이어진 추억도 있었다. 다정함의 증거인지, 열정의 흔적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

모두들 아름다웠다. 우아했고, 사랑스럽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무언가를 약속하는 듯했다. 거절할 수 없을 만큼 흐트러진 자세, 다시 찾아오겠다는 듯한 미소, 때로는 슬픔과 불안까지 담겨 있었다.

사진마다 이름과 날짜, 헌사가 적혀 있었다. 연애의 어떤 에피소드를 암시하는 글귀들도 있었다. 귀부인이든, 예술가든, 작은 사무직 여직원이든, 그들은 모두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이 남자에 대한 공통된 기억 하나로 서로 아주 가까운 존재들이었다.

라울은 모든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 서랍 깊숙이, 두 장의 종이로 감싸져 있는 큰 사진 한 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곧장 그쪽으로 손을 뻗어 종이를 걷어내고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라울은 눈이 부셨다. 이 사진 속 여인은 정말로 가장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움은 남다랐다. 드물게 찾아오는 그런 특별한 입체감과 개인적인 표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드러난 어깨선은 훌륭했고, 머리를 가누는 자세와 태도만 봐도 이 여인이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쩌면 공공장소에 모습을 드러내는 법까지 잘 알고 있을 것 같았다.

"분명 예술가군요." 라울이 결론을 내렸다.

그의 시선은 초상화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초상화를 돌려보며 글이나 이름이 적혀 있지나 않은지 확인했다. 그러자 그는 깜짝 놀랐다. 처음부터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은 판지를 가로지르는 큰 서명, '엘리자베트 호르냉'이라는 글자였다.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죽음 너머까지 당신에게."

엘리자베트 호르냉! 라울은 당시의 사교계와 예술계를 잘 알고 있었기에, 유명한 가수의 이름을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정확히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이 아름다운 여성이 야외에서 노래하던 공원에서 알 수 없는 부상을 입고 결국 죽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에리자베트 호르네가 마르퀴의 애인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확실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사진을 다른 사진들과는 달리 따로 보관하고 있던 모습은,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 주었다.

종이 두 장 사이에는 닫지 않은 작은 봉투가 끼어 있었다. 라울은 그것을 꺼내 내용을 살펴봤다. 내용은 그를 더 놀라게 했지만, 동시에 의문을 품게 했다.

봉투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다. 머리카락 한 가닥, 마르퀴에게 첫사랑을 고백하며 첫 약속을 잡은 열 줄짜리 편지, 그리고 또 다른 그녀의 초상화였다. 초상화에는 라울을 매우 궁금하게 만드는 한 가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에리자베트 발텍스'.

그 초상화 속의 그녀는 아직 풋풋한 소녀였다. '발텍스'라는 이름은 에리자베트가 호르네 은행가와 결혼하기 전의 본명임이 분명했다. 연도만 봐도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면,' 라울은 생각했다. '현재의 발텍스는 호르네 부인의 친척, 아마도 조카나 사촌쯤 되겠군. 나이가 서른쯤으로 봐주자.'

그런 연유로 발텍스는 에를몽 후작과 연결되어 있고, 후작이 거절할 용기가 없어 돈을 뜯어내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의 역할이 단순히 돈벌이에만 그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

그는 내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추구하고 있는 목표를, 더 확실한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걸까?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이 수수께끼를 밝힐 것이다. 지금 나는 바로 그 게임의 한복판에 서 있으니까.

그는 다시 조사를 이어갔다. 다른 초상화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 뜻밖의 일이 그를 멈춰 세웠다.

어딘가에서 소리가 났다.

그가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아주 미세한 삐걱거림이었다. 라울이 아니면 듣지 못했을 소리였다. 소리는 현관문, 곧 계단 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 누군가 열쇠를 꽂았다. 열쇠가 돌아갔다. 문이 살며시 열렸다. 거의 들리지 않는 발걸음이 서재 옆 복도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서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라울은 다섯 초 만에 서랍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그리고 전등을 꺼버렸다. 그 뒤 그는 네 개의 장판이 펼쳐진 가림막 뒤로 몸을 숨겼다.

그런 경보는 그에게 큰 기쁨이었다. 무엇보다도 위험을 피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흥미의 요소, 자신에게 유리한 단서를 잡아낼 수 있다는 기대감.

마침내, 만약 낯선 사람이 마르키의 집으로 몰래 들어왔고, 라울이 그 밤의 방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손잡이가 조심스러운 손에 잡혔다. 문이 천천히 열려도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라울은 그 미묘한 움직임을 눈치챘다. 약한 전구의 빛이 뚫고 나왔다.

화분 사이 틈으로 라울은 앞으로 나아가는 형체를 보았다. 그는 그것이 여성이라고 확신하기보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마른 체격에 밀착된 치마를 입은 여자. 모자는 없었다.

그 인상은 걸음걸이와 흐릿하게 비친 실루엣에서 더욱 확신했다.

그 여자는 멈춰 섰다. 머리를 좌우로 돌려 방황하는 듯했다. 방향을 잡으려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곧장 책상 쪽으로 향했다. 손전등 빛을 책상 위를 훑었다. 그곳에서 정보를 확인한 그녀는 등불을 내려놓았다.

라울은 생각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녀는 숨겨진 곳을 알고 있다. 그녀는 이미 경고를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사실, 그 시간 내내 그녀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책상 주변을 돌아 서서 몸을 굽혔다. 그리고 주서랍을 빼내어 적절히 조작한 뒤, 안쪽 서랍을 꺼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라울이 그랬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 지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진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다른 사진들보다 특별히 한 장을 찾아내려는 것인 양.

그녀는 빠르게 움직였다. 호기심이 동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초조한 손으로 무언가를 찾았다. 그 손은 하얗고 가느다란 손이었다.

그녀는 찾아냈다. 그가 판단할 수 있는 바로는, 그것은 중간 크기의 사진이었다. 13x18 사이즈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응시했다. 그러곤 사진 뒷면을 뒤집어 글씨를 읽었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너무 깊이 빠져있어서, 라울은 기회를 엿보았다. 그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채, 그는 스위치 쪽으로 다가가 구부정한 실루엣을 살펴본 뒤, 손끝으로 불을 켰다.

그리고는 재빨리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여자를 향해 달려갔다.

"도망치지 마요, 아름다운 분.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그는 그녀를 따라잡아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녀의 고개를 돌렸다.

"안토닌!"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속삭였다. 오후에 우연히 찾아왔던 그 방문객을 알아본 것이다.

그는 단 한 순간도 진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안토닌, 그 순수한 표정과 맑은 눈빛으로 자신을 사로잡았던 시골 소녀가 바로 범인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서서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당황해했다. 뜻밖의 결말이 그를 너무도 당황하게 만들어, 그는 비웃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지금껏 후작을 찾아가던 당신의 진짜 이유가 있었군요. 처음엔 정탐을 온 거였군요. 그리고 오늘 밤은…"

그녀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말을 더듬었다.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지폐도 만지지 않았고요."

"나도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성모님을 모셔올 겸이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가 그녀의 팔을 꽉 잡았다. 그녀는 신음하며 몸을 빼려고 애썼다.

"당신이 누구예요?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그는 폭소를 터뜨렸다.

"아, 그건 좀 심하군요. 오늘 우리 작은 다락방에서 만난 직후인데, 내가 누구인지 묻다니요. 기억력이 너무 없네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했는데, 예쁜 안토닌이여!"

그녀는 날카롭게 반박했다.

"나는 안토닌이 아니에요."

"하! 나도 라울이 아니라고요. 우리 일에는 이름이 수두룩하거든요."

"무슨 일?"

"도둑질이지."

그녀는 격분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도둑이라고요?"

"음, 당신이 돈이 아니라 사진을 훔쳤다는 건, 그 사진이 당신에게 큰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사진을 얻으려면 호텔 쥐처럼 은밀하게 행동해야 했을 테고요. 그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당신을 보자마자 주머니에 넣었던 그 소중한 사진을."

그는 그녀를 억지로 끌어당기려 했다. 그녀의 몸을 꼭 껴안는 그의 강력한 팔에서 그녀는 몸부림쳤다. 싸움에 열이 올랐는지, 그는 그녀에게 키스를 하려 했으나, 그녀는 마지막 힘을 모아 간신히 몸을 빼냈다.

"이봐요! 당신이 좀 과잉 반응하는군요." 그가 말했다. "대장 파울의 애인이라니, 그토록 순결한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속삭이듯 물었다.

"뭐라고요? 대장 파울? 그게 누구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죠." 그가 너스레를 떨며 그녀를 부르는 말로 대했다. "아름다운 클라라, 당신은 아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녀는 점점 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반복했다.

"클라라… 클라라? 그게 누구란 말이에요?"

"기억나지 않아요? 금발의 클라라?"

"금발의 클라라?"

"방금 고르제네가 너를 잡으려던 그때, 너는 그렇게 떨지 않았잖아. 일어나, 안토닌이든 클라라든. 오늘 오후에 내가 경찰의 손아귀에서 너를 두 번이나 구해 준 건, 내가 너의 적이 아니라는 뜻이야… 미소 지어 줘, 예쁜 금발아. 너의 미소는 정말 취하게 만드는 걸!"

약해진 기운이 그녀를 짓눌렀다. 창백한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고, 라울이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아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이를 밀어낼 힘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그 손길은 친구적인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어, 젊은 여성이 경계할 이유조차 없었다.

"진정해, 안토닌… 그래, 안토닌. 이 이름이 더 좋군. 큰 폴 앞에서는 클라라였지만, 나 앞에서는 안토닌이라는 이름으로, 소도시에서 올라온 여대생 같은 모습으로 처음 만났던 그대로 있어 줘. 네가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낫단다. 하지만 울지 마… 다 잘될 거야. 큰 폴이 너를 괴롭히고 있는 건 분명해, 그렇지? 그리고 너를 쫓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무서운 거야? 걱정 마… 내가 여기 있잖아. 다만, 모든 일을 내게 다 말해 줘야 해."

그녀는 기운이 빠져나가듯 속삭였다.

"할 말이라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

"말해 봐, 내 사랑."

"아니야… 당신을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그럼에도 나를 믿고 있잖아. 인정해 봐."

"아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기분이 들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너에게 이로운 일을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걸 하려면 네가 나를 도와줘야 해. 네가 그 큰 폴을 어떻게 알았지? 왜 여기 있는 거지? 왜 그 초상화를 찾았지?"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저를 묻지 마세요.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당장 말해야 해. 하루를 잃는다는 건, 한 시간을 잃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는 걸."

그는 여전히 그녀를 쓰다듬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그녀의 손을 입맞춤하고, 입술이 팔을 따라 올라갈 때, 그녀는 지친 눈빛으로 간청했다. 그 덕분에 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고, 너임법을 멈추었다.

"약속해 줘."

"다시 만날 거요? 그건 약속할게요."

"나에게 자신을 맡길 거요?"

"그동안,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녀가 재촉했다. "저를 따라오세요."

"뭔가 걱정되세요?"

그녀가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오늘 밤 들어올 때, 누군가 이 집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경찰인가요?"

"그 거인 폴이요… 그 거인 폴의 친구들이요…"

그녀는 그 이름을 두려움으로 발음했다.

"확신하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멀리서도 그를 알아챈 것 같았어요… 강둑 난간 근처에서요. 그리고 그의 주동자, 아랍인이라고 불리는 자도 알아봤어요."

"그 거인 폴을 언제 보지 못하셨습니까?"

"여러 주가 지났어요."

"그렇다면 그가 오늘 당신이 올 줄 알았을 리는 없겠군요?"

"그럼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도 이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죠."

"즉, 남작 주변을 배회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당신과 같은 이유에서요?"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제가 앞에서, 그 여자가 자신을 죽일 만큼 미워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왜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공범들을 아시나요?"

"아라브인 말고는요."

"어디서 만나요?"

"저도 몰라요. 아마 몽마르트르의 어느 바에서일 거예요. 어느 날 그가 그 곳 이름을 속삭이듯 말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에크레비'요."

그 이상은 묻지 않았다. 그날로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제6장

"갑시다.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두렵지 마세요. 모든 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그러고는 전등을 끄고, 안토닌의 손을 잡은 채 어둠 속으로 이끌었다. 그는 부드럽게 문을 닫고 그녀와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그 젊은 여성이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닌지, 또 그들을 쫓아오는 자들과 맞서 싸우고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그의 마음은 긴장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가 잡고 있던 그 작은 손은 너무도 차가웠다. 그는 멈춰 서서 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저를 더 잘 아시면 아실수록, 위험 따위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저 곁에 있으면 말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손이 다 따뜻해지면, 얼마나 평온하고 용기가 솟구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맞잡은 채 서 있었다.

몇 분의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그녀는 안심한 듯 말했다.

"이제 갈까요."

그는 관리인의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밖으로 나섰다.

밤은 안개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다. 이 시각이라 사람 발길도 드물었다.

하지만 라울은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다. 도로를 가로질러 두 개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주차된 자동차 그림자 뒤로 숨어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 차 근처에서는 또 다른 두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라울은 순간적으로 젊은 여자를 데리고 반대 방향으로 피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바꿨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없었다.

게다가 네 남자는 서로 흩어져서, 두 사람을 포위하려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분명 저들이야." 안토닌이 다시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그리고 키 큰 폴은, 다리가 유난히 긴 저 남자야?"

"좋아. 그러면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두렵지 않아요?"

"안 돼. 소리 지르지 않는 한."

이때 선착장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다리가 긴' 남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친구와 함께 보도 쪽으로 몸을 낮췄고, 나머지 두 명은 벽을 따라 움직였다. 자동차 엔진이 들썩거렸다. 보이지 않는 운전사가 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가느다란 휘슬 소리가 났다.

순간이었다. 세 명의 남자가 젊은 여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그녀를 차까지 끌고 가려 했다. '큰 폴'이라 불리는 남자는 라울 앞에 서서, 총구를 라울 코앞까지 들이댔다.

총을 쏘기 직전, 라울은 손등으로 그의 손목을 후려쳤다. 총이 떨어졌다. 라울은 비웃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바보야. 먼저 쏘고, 그다음에 조준하는 거야."

그는 나머지 세 무리도 따라잡았다. 그중 한 명이 인도 위로 몸을 돌렸고, 딱 그 순간 턱을 강렬한 발차기로 얻어맞아 균형을 잃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나머지 두 동행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차에 몸을 던져 도망쳤다. 안토닌은 해방되자 반대쪽으로 달아났고, 큰 폴이 그녀를 쫓았다. 그런데 갑자기 라울과 부딪쳤다.

"통행 금지다!" 라울이 외쳤다. "저 금발 애를 놓아주게. 네가 잊어야 할 구시대 이야기야, 큰 폴."

큰 폴은 여전히 길을 뚫고 나가려 했다. 상대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느라 안간힘을 썼다. 라울이 그 앞을 막아섰지만, 그는 싸움을 피하면서도 여전히 기회를 엿보며 발버둥쳤다.

"통과할 거야… 통과 못 할 거야. 아이들이랑 장난치기 재미있지, 그래? 키 큰 녀석이 뛰고 싶어 하고, 더 작은 녀석이 안 된다고 버티고 있잖아. 그 사이, 아가씨가 빠져나가는 거야… 이제 됐어. 그녀한테는 더 이상 위험이 없어.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지. 준비됐어, 폴?"

그가 재빠르게 점프해 적에게 달려들었다. 적의 팔뚝을 낚아채는 순간, 적을 제 앞에 꼼짝 못 하게 고정했다.

"쑥! 손목에 수갑을 채운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 그래, 폴, 넌 네 무리에서 가장 쟁쟁한 놈은 아니야. 동료들이 다 바보 같아. 손가락으로 툭 치면 다 도망가 버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네 얼굴을 제대로 봐야 해."

다른 한 명은 사방팔방으로 몸부림쳤다. 자신의 약함과 어쩔 수 없는 무력감에 깜짝 놀라 벌벌 떨었다.

무슨 수를 써도 그 두 개의 사나운 포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철사 고리처럼 몸을 옥죄는 그 힘에 저항할 길이 없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있기조차 버거울 지경이었다.

"자, 자네. 농담이야. 이 아저씨 얼굴 좀 보여줘."

라울이 말했다. "그리고 찌푸리지 마. 내가 기억나는지 확인해 봐야 하잖아."

"그래, 뭐야? 옛 친구. 투덜거리지 마. 내 흐름에 맞춰주지 않는 거야?"

그는 상대방을 천천히 돌렸다. 너무 무거워 쉽게 움직일 수 없었지만, 작은 간격으로 조금씩 밀어내듯 돌렸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큰 폴은 빛이 가장 선명하게 떨어지는 쪽으로 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주자, 라울은 목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그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정말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남자의 얼굴을 보고 나서였다.

"발텍스!"

그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한 채 또 외쳤다.

"발텍스! … 발텍스! … 어이구,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모를까! 그래서 발텍스가 바로 대 폴이요? 대 폴이 발텍스라니요? 발텍스는 잘 재단된 재킷에 멜론 모자를 쓰고 다니고, 폴은 꼬불꼬불한 바지에 캡을 쓰다니. 천만세,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당신은 신사 행세를 하지만 실상은 갱단의 두목이로군."

분한 대 폴이 으르렁거렸다.

"나도 너를 알아. 너는 바로 지하실 층의 그 자네."

"네, 맞습니다. 라울 씨,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둘은 같은 함정에 빠진 셈이군요. 운이 정말 없으시군요. 게다가 클라라 블롱드를 내가 먼저 차지할 테니 말입니다."

클라라라는 이름은 대 폴을 격분시켰다.

"그 여자, 내게 건드리지 못해!"

"너가 나한테 말리다니? 자네 자신을 좀 보게나, 친구. 나보다 반 머리쯤 큰데, 권투와 칼 쓰는 법도 다 배웠다는데, 내 손아귀에 꾀여 꼼짝도 못 하고 있잖아. 제발 좀 저항이나 해봐, 자네! 진심이야, 자네가 불쌍해."

그가 손을 놓았다. 상대가 비명처럼 내뱉었다.

"빌어먹을 놈! 내가 다시 찾아가겠어."

"왜 다시 찾아오냐? 내가 여기 있잖아. 가봐."

"만약 그 애를 건드렸다면…"

"이미 끝났어, 친구. 우리 셋은 이제 친구야."

분한 나머지 큰 폴이 이를 갈며 말했다.

"거짓말! 그런 게 있을 수 없어!"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야. 다음 편에서 계속되지. 알려줄게."

그들은 서로를 빤히 응시하며 맞섰다. 바로 옆에 붙어 있을 만큼 가까웠다. 싸움은 눈앞에 닥쳐 있었다.

하지만 대프랑스인 폴은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듯했다. 그는 몇 마디 욕설을 뱉어냈고, 라울은 웃으며 받아쳤다. 그리고 마지막 위협을 남긴 채 그는 떠났다.

"네 가죽을 벗기겠어, 친구."

"그건 그렇치고, 도망치는 건가? 또 보자, 겁쟁이!"

라울은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다른 쪽은 절뚝거렸다. 대프랑스인 폴의 속임수였을 것이다. 발텍스는 절뚝거리지 않았으니까.

'이 녀석은 조심해야겠다.' 라울은 생각했다. '이런 놈들은 꾀를 부리는 법이야. 고르제와 발텍스… 흠,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겠군!'

라울은 집으로 돌아서는 길이었다. 대문 옆에 앉아 신음하는 남자가 눈에 띄었다. 라울은 그 남자가 자신이 구두창으로 턱을 내리쳤던 그 인물임을 직감했다.

그 남자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더 멀리 쓰러져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라울은 그를 자세히 살펴봤다. 피부는 까맣게 그을렸고, 모자에서 뻗어 나온 긴 곱슬머리가 인상적이었다. 라울이 다가갔다.

"말 좀 해, 동무. 넌 분명히 그랜드 폴의 무리에서 '아랍'이라 불리던 녀석이지. 천 프랑짜리 지폐 한 장을 벌고 싶니?"

턱이 심하게 상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남자가 대답했다.

"그랜드 폴을 배신하라는 거라면, 절대 안 돼."

"좋아, 너는 믿을 만하구나. 하지만 문제는 그자가 아니야. 클라라 라 블롱드라는 여자를 찾아야 해. 그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아?"

"그랑 폴은 알고 있나?"

"그렇다면 마르키의 집 앞에서 왜 매복하고 있었지?"

"방금 그 집에 들어왔어."

"어떻게 알았지?"

"내가 알아냈지. 고제레 형사를 미행하고 있었거든. 생라자르 역에서 그가 무언가 작전을 세우는 것을 봤어. 그리고 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지. 바로 그 여자가 파리행으로 올라타는 열차였어. 그녀는 지방 소녀로 분장하고 있었지."

"고제레는 그녀가 택시 기사에게 알려준 주소를 들었어. 나는 고제레가 다른 기사에게 같은 주소를 알려주는 것을 들었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랑 폴에게 달려가서 알렸고, 우리는 밤새도록 감시를 서 있었지."

"그랑 폴은 그녀가 돌아올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나?"

"확실하죠. 그는 제게 자기 일에 대해선 절대 입을 열지 않아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한 바에서 만나죠. 그가 내리는 지시는 제가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우리는 그대로 실행합니다."

"더 말한다면 천 프랑을 더 주겠네."

"모르는 게 있어요."

"거짓말이군. 그가 본명으로 발텍스라는 걸 알고 있고,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그럼 내가 그를 마르키의 집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야. 경찰에 고발할 수도 있고."

"그가 당신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당신이 어느 층에 사는지,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소녀가 당신을 찾아왔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이 게임은 위험합니다."

"나는 숨길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다행이군. 대프랑스는 원한을 잘 품고 있고, 그 소녀에게 미쳐 있거든. 조심해. 마르키도 경계해야 해. 그쪽에서 대프랑스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거든."

"어떤 것들요?"

"말은 충분히 했다."

"좋소. 여기 지폐 두 장. 그리고 이 떠돌이 차를 태우라고 이십 프랑 더."

라울은 잠이 오지 않았다.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으며, 그 아가씨 매혹적인 미소를 떠올리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었다.

그의 처지에 얽힌 수수께끼는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수수께끼가 있었다.

안토닌일까, 클라라일까.

그가 만난 그 매력적인 여자의 진정한 정체는 두 얼굴 중 어느 쪽이었을까. 그녀는 가장 솔직하면서도 가장 신비로운 미소를 지녔고, 가장 순진해 보이는 눈동자 속에는 가장 관능적인 빛이 서려 있었다. 겉모습은 천진난만해 보였지만, 태도만큼은 불안할 정도로 위험해 보였다.

그녀는 슬픔과 기쁨 모두에서 그를 흔들었다. 그녀의 눈물과 웃음은 때로는 맑고 깨끗한 샘물에서 우러나오는 듯했고, 때로는 어둡고 탁한 물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비서 코르빌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르키스 님이신가요?"

"아니요, 오늘 일찍 떠나셨어요. 하인이 차를 가져다주었고, 마르키스 님은 짐을 싼 두 개의 트렁크를 직접 들고 가셨죠."

"그럼, 외출이시군요……."

"며칠 정도 계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금발의 그 젊은 여성과 함께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주소를 알려주셨나요?"

"아니요, 사장님. 마르키스 님은 항상 행적을 감추시죠. 제가 어디에 가시는지 알 수 없도록 잘 꾸미십니다. 그분에게는 특히 쉬운 일이에요. 첫째, 직접 운전하신다는 점, 그리고 둘째……"

"너는 정말 멍청한 놈이야." 이 말로 결론을 내리고, 나는 안마루를 비우기로 했다. 너는 직접 그 특수한 전화 설비를 제거하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치워라. 그다음에 몰래 이사 간다. 안녕. 나는 사정이 있어서 사흘에서 나흘 동안은 연락이 없을 거야. 할 일이 많으니까.

아, 한 마디 더. 고제레를 조심해! 그가 집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몰라. 경계해. 그는 무식하고 허영심이 강하지만,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놈이야. 게다가 눈치가 좀 있어.

제7장

볼니크 성은 여전히 작은 탑들과 누런빛 타일로 덮인 넓은 지붕을 갖춘 귀족의 저택 같은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몇 창문의 닫개는 부서져 나뒹굴고 있었고, 많은 타일이 빠져나가 허술한 모습이었다.

대부분의 길은 가시덤불과 쐐기풀에 뒤덮여 있었다. 거대한 폐허의 덩어리는 벽돌의 화강암을 뒤덮은 덩굴나무 더미 속에 사라져 버렸다. 그 덩굴은 무너져 가는 탑과 요새의 형태조차 바꿔놓았다.

특히 엘리자베트 호르네인이 노래하던 예배당의 잔디마당은 이 푸른 물결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구분하기 어려웠다.

성문 밖 벽면에는 큰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정문 양옆에 걸린 이 포스터는 성채 매각 소식을 알렸다. 안뜰로 들어가는 거대한 문이 그 사이에 있었다.

포스터에는 관련 시설들의 상세 정보도 적혀 있었다. 거기에 주거 공간, 공동 시설, 농장, 초원 등이 포함됐다. 이 모든 것이 성채에 딸린 재산이었다.

이 포스터가 붙고 지역 신문에 광고가 실린 지 삼 개월째였다. 정해진 시간에 성문은 자주 열렸고, 잠재적 구매자들이 견학을 할 수 있었다.

레바르돈 과부는 현지인 한 명을 고용해 테라스를 정리하고, 폐허로 오르는 길을 손봐야 했다. 그 비극의 기억을 되새기려는 구경꾼들도 찾아왔다.

하지만 레바르돈 과부나, 오디가르 공증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젊은 공증인은 예전에 내려진 침묵의 엄명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누가 예전에 이 성을 샀고, 오늘 다시 되팔고 있는 것일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날 아침 — 에를몽이 파리를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1층 창문 중 하나를 닫고 있던 창문이 갑자기 열렸다. 안토닌의 금발 머리가 고개를 내밀었다. 봄날 같은 안토닌이었다. 회색 드레스를 입고, 어깨 위로 빛나는 후광처럼 내려앉은 짚모자를 썼다. 그녀는 6월의 햇살과 푸른 나무들, 손볼 틈 없이 자란 잔디밭, 그리고 짙푸른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다.

"대부님! … 대부님!"

그녀는 1층에서 서른 걸음쯤 떨어진 곳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에를몽 후작을 발견했다. 그는 썩어빠진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그 벤치는 티아 나무 한 무리가 햇볕을 가려주고 있었다.

"아, 일찍 일어났네." 그가 신나게 외쳤다. "아직 아침 열 시뿐인데."

"여기서 잠이 정말 잘 와요! 그리고 장롱에서 이것을 찾아냈어요, godfather... 낡은 밀짚모자 하나요. 최대한 예쁘게 다듬어 놨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계단을 세차게 내려왔고, 테라스를 가로질러 마르키스 앞으로 다가가 이마를 그의 품에 기댔다.

"주님, godfather... 그럼 아직도 godfather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주님,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godfather가 저에게 얼마나 좋은지. 갑자기 동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어요, 안토닌… 당신이 말한 당신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보면 알겠네요. 저는 짧다고 말했지만, 당신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죠?"

안토닌의 맑은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고, 그녀는 말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현재만 중요하죠. 그리고 이 현재가 영원히 계속되길 바랄 뿐이에요."

"왜 안 되죠?"

"왜요? 오늘 오후에 성이 경매에 부쳐지고, 내일 밤이면 우리는 파리에 있을 테니까요. 정말 아쉽네요. 여기서는 숨도 참 잘 쉬이고, 마음과 눈이 모두 기쁨으로 가득 차거든요."

마르키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쥐더니, 다정하게 물었다.

"당연히 팔아야 하죠?"

"그렇지." 그가 말했다. "어쩔 수 없지. 내가 친구인 주벨 부부에게 충동적으로 이 성을 산 뒤로, 단 이십 사시간 동안이나 달려와서 열 번도 못 왔거든. 그러다 보니 돈이 필요해져서 결국 결심한 거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는 미소를 띠며 덧붙였다.

"게다가, 네가 이 땅을 좋아한다면,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군."

그녀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그전부터 그 공증인 오디가 씨가, 이미 죽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하는 그 아들이, 유난히 자주 찾아오더군요. 음, 그 사람이 외모는 그리 매력이 없지만, 제 조카딸에게 그런 열정을 보이다니 말이에요!"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장난하지 마세요, godfather. 저는 오디가 공증인 선생님을 거의 눈여겨보지 못했어요. 이 성이 처음부터 제 마음에 들었던 진짜 이유는, 여기 godfather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정말이냐?"

"물론이죠, godfather."

그는 감동했다. 처음부터 그는 그녀가 자신의 딸임을 알았지만, 그 사실은 외로웠던 독신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깊은 우아함과 순수함을 지니고 있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또한 그녀를 둘러싼 신비로운 분위기도 그를 끌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끊임없이 입을 닫고 있었다. 어떤 때는 매우 개방적이고 친근하게 행동하며, 확장적인 성격의 열정을 보였지만, 다른 때는 갑자기 거리감을 두며 놀라울 정도로 신중하게 행동했다.

그녀가 자발적으로 '대부'라고 부른 그 남자의 배려와 관심에 대해 그녀는 무관심해 보였으며, 심지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성에 도착한 이후로 그는 이 소녀에게 매번 같은 느낌을 받았다. 기쁨과 침묵이 교차하고, 행동 속에 어느 모순이 섞여 있을 때 생기는, 다소 어색하고 거친 인상이었다.

사실, 서로에 대한 호감과 애정이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었지만, 서로를 잘 모르는 두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장벽을 허물 수는 없었다. 장 드를르몽은 종종 그녀를 이해하려 애썼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정말 어머니와 닮았구나. 너에게서 얼굴을 변화시키는 그 미소를 다시 보게 된다."

그는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그녀가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에, 늘 다른 질문으로 돌려받아 왔다. 그래서 그는 결국 성에서 벌어진 비극과 엘리자베트 호르네인의 죽음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었고, 그 이야기는 소녀의 큰 관심을 끌었다.

그들은 레바르돈 과부가 차려낸 점심을 먹었다.

오후 두 시, 공증인 오디가르가 와서 커피를 마시며 오후 네 시에 열릴 경매 준비를 살폈다. 경매는 특별히 개방된 살롱 중 한 곳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는 창백하고 어색한 외모의 젊은이로, 말버릇이 있고 수줍음이 많았으며 시를 사랑했다. 그는 대담하게도 자신이 직접 지은 알렉산드린 시조를 대화 속에 섞어 던지며, "시인이 말했듯이"라고 덧붙이는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소녀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살피기 위해 그녀에게 눈길을 던졌다.

안토닌은 인내심을 다해 참아보았지만, 끝없이 반복되는 그 작은 연극 같은 행동에 결국 참을성이 바닥나 버렸다. 그녀는 두 남자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정원으로 나갔다.

경매 예정 시간이 가까워지자, 성의 본뜰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사람들은 성의 한쪽 날개를 돌아 테라스와 안뜰 앞마당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부유한 농부들이었고, 근처 작은 도시의 부르주아들도 섞여 있었다. 지역 양반들도 몇 명 보였다. 하지만 가장 많았던 것은 구경꾼들이었다. 그중에는 오디가르 씨의 예상대로 잠재적 구매자가 반쯤 되는 수만큼 섞여 있었다.

안투아닌은 오랫동안 관광객들에게 폐쇄되었던 유적지를 둘러보려 온 몇몇 사람들을 만났다. 그녀는 장엄한 풍경에 이끌린 산책객처럼 그곳을 거닐었다.

그러나 작은 방울 소리가 사람들을 성으로 다시 모으자, 그녀는 홀로 남았다. 그리고 풀과 덩굴이 엉킨 채 손질되지 않은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알 리도 없이 제법 밖으로 나섰고, 15년 전 살인이 자행된 언덕을 둘러싼 평지로 향했다. 만약 남작이 그 비극의 모든 정황을 그녀에게 말해 주었다 해도, 엉킨 가시덤불과 고사리, 그리고 덩굴나무들이 뒤엉킨 그 혼란스러운 숲속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안토닌은 애써 그 덤불을 헤치고 나왔다. 그리고 갑자기 더 넓은 공간으로 나서는 순간, 비명 한 줄을 삼키며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로부터 열 걸음쯤 떨어진 곳. 그녀와 똑같이 놀람에 굳어버린 채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흘 전, 그녀는 그 남자의 거구와 광활한 어깨, 그리고 거친 얼굴을 잊지 못했다.

그는 고제레 형사였다.

그가 마르키의 계단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녀는 단번에 알아챘다. 바로 그 남자였다.

그녀가 거친 목소리와 날카로운 어조로 들어본 경찰관, 역에서 자신을 쫓아온 남자, 그리고 반드시 자신을 붙잡겠다고 선언한 자였다.

그의 거친 얼굴이 야만적인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악의 가득한 웃음이 그의 입가를 비틀며, 그는 중얼거렸다.

"이거, 운이 좋네! 며칠 전 세 번이나 놓친 금발 아가씨라니… 자, 여기선 뭐 하러 그러는 거야, 어린 아가씨? 너도 성의 경매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공포에 질린 안토닌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힘이 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뒤로는 장애물들이 그녀를 막고 있어 달아날 길이 없었다.

그는 비웃으며 한 발 더 다가섰다.

"도망칠 길이 없군. 완전히 막혔어. 고르제에게 얼마나 보복당한 셈이지? 그 동안 이 성의 음침한 사건을 눈치껏 지켜보며, 경매 날이라는 기회에 이곳을 뒤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뜻밖에도 대 폴의 여주인인 당신과 마주쳤네.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이 나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군."

그는 또 한 발을 내디뎠다. 안토닌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온몸을 굳혔다.

"무언가 두려움이 느껴지네. 표정까지 굳어 버렸잖아. 실제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아. 두 배로 나빠. 고르제에게 클라라 라 블랑드와 그레이트 폴의 연결고리가 성 이야기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그레이트 폴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야 해. 정말 흥미진진한 사건이지. 하지만 고르제의 입장은 정말 안쓰러울 정도야."

세 걸음 더 걸었다. 고르제 지갑에서 영장 서류를 꺼내며 비웃는 듯한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내 작은 종이를 읽어 드릴까요? 필요 없겠죠? 당신도 순순히 내 차까지 따라올 거고, 비시에서 파리행 기차를 타게 될 테니까. 정말, 경매 행사는 이제 그만두는 게 낫겠어. 내가 잡은 사냥감은 충분하니까.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일이?"

그가 말을 멈췄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금발의 얼굴에서 공포의 빛이 서서히 사라졌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오히려 희미한 미소가 그 얼굴을 밝히기 시작하는 듯

했다. 믿을 수 있는 일인가? 그녀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떨어질 수 있는가?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짐승이나, 마비된 듯 떨고 있는 새의 표정이 아니었다. 대체 그녀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미소 짓고 있는 것인가?

고르제레가 몸을 돌렸다.

"젠장, 이 녀석이 왜 여기 있단 말인가."

실제로 고제레는 기둥 한쪽 끝에서, 오래된 예배당 잔해가 기댄 자리에서, 한쪽 팔이 내밀려 있고 한손이 총구를 자신 쪽으로 겨누고 있는 것만 보았다.

하지만 소녀의 긴장이 갑자기 누그러진 것을 보고, 그는 단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 팔과 손이 그녀를 지키려 애쓰는 라울 씨의 것임이 분명했다.

볼니크 성에서 '금발의 클라라'라는 말은 곧 라울 씨의 존재를 의미했다. 그리고 보이지 않으면서도 권총의 위협으로 상황을 주도하는, 바로 라울 씨 특유의 유쾌한 수법이었다.

고제레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매우 용감했고, 위험을 앞두고 결코 물러선 적이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 소녀가 도망친다면 — 그리고 그녀는 반드시 도망칠 것이다 — 그는 공원이든 마을이든 그곳에서

그녀를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외치며 앞으로 돌진했다.

"너, 이 자식, 여기서 빠져나갈 순 없어."

손이 사라졌다. 그리고 고제레가 아치형 입구의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그가 본 것은 한쪽 아치에서 다른 쪽 아치까지 드리워진 담쟁이덩굴의 커튼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적이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지나가던 순간, 담쟁이덩굴 사이에서 팔이 튀어나왔다. 그 팔은 무기를 휘두르지 않았다. 다만 주먹이 달려 있었는데, 그 주먹이 고제레의 턱을 정확히 강타했다.

한 방, 정확하고도 가혹했다. 그 타격은 깔끔하게 일을 끝냈다. 고르제의 균형이 무너져 내렸다. 마치 한 발차기에 쓰러진 아랍인처럼.

고르제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는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다.

안토닌은 숨을 헐떡이며 테라스에 도착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앉아 쉬어야 했다. 성 안에는 방문객들이 하나둘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지켜준 이 낯선 남자에게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믿음 덕분에 그녀는 곧 진정할 수 있었다. 그녀는 라울이 경찰관을 제지하되, 해는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라울은 또다시 어찌하여 그녀를 위해 싸우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무너진 성벽을 응시했다. 특히 그 사건이 벌어졌을 법한 성벽 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주변은 고요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수상한 기척은 전혀 없었다.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었다. 고르제레가 다시 공격해 올 경우를 대비해, 다른 탈출로를 확보해 두기로 했다.

하지만 성 안에서 벌어지려는 작은 의식에 시선이 사로잡혔다. 그녀는 위험 따위 잊은 채, 그 장면에 빠져들었다.

큰 거실은 현관과 대기실을 지나면 나왔다. 사람들은 몇몇 사람에게 둘러싸여 서 있었다. 그 몇몇은 공증인이 구매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이었고, 공증인은 그들을 앉게 했다.

테이블 위에는 세 개의 작은 성찬용 촛불이 꽂혀 있었다.

오디가트 씨는 장엄한 태도로 행동했고, 강조하며 말했다. 가끔 그는 에를몽 후작과 이야기를 나눴다. 후작은 이미 군중들이 그에게 소유자의 자격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약간 일찍, 오디가트 씨는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성채의 위치, 역사적 중요성, 아름다움, 그림 같은 풍경을 강조하며, 그 매입이 좋은 거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매의 규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세 개의 촛불은 각각 약 일 분간 불타오를 것이다. 마지막 촛불이 꺼지기 전까지 대화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네 시가 울렸다.

오디가 씨가 성냥갑을 꺼내 한 개를 뽑아 문지른 뒤, 첫 번째 촛불에 불을 붙였다. 그의 동작은 마치 모자에서 토끼 열 마리나 꺼내 보일 듯한 마술사의 손놀림과도 같았다.

첫 번째 촛불이 타올랐다.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특히 앉아 있던 여성들의 표정이 묘해졌다. 어떤 이는 무관심한 척했고, 어떤 이는 고통스러워했으며, 또 어떤 이는 절망에 빠진 듯했다.

촛불이 꺼졌다. 공증인이 경고했다.

"불빛이 두 개 남았습니다. 여보시고 선배님들."

쾅, 성냥이 하나 더 붙었다. 잠시 타오르던 불꽃이 다시 꺼졌다.

오디가트 공증인은 음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 불빛입니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촛불은 이미 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 번째뿐이죠. 입찰 시작가는 80만 프랑입니다. 그 이하의 입찰은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촛불이 켜졌다.

주저하는 목소리가 하나 들려왔다.

"82만 5천."

다른 목소리가 즉각 반박했다.

"85만."

한 부인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기색을 보이자, 공증인이 그분을 대신해 말했다.

"87만 5천."

"90만." 한 수집가가 다시 외쳤다.

그리고는 정적이 흘렀다.

공증인은 당황한 듯 재빨리 물었다.

"구십만? 구십만?"

침묵이 감돌았다.

"제발, 여러분. 그건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성은……"

또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촛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녹은 밀랍 사이로 마지막 빛이 깜빡거릴 뿐.

그때, 방 뒤쪽 현관 쪽에서 한 목소리가 또렷이 울려 퍼졌다.

"구십오만."

군중이 갈라졌다. 한 남자가 미소 띤 얼굴로, 평온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구십오만 프랑."

안토닌은 처음부터 그 남자가 라울 경이라고 알아봤다.

제8장

냉정함을 가장했지만, 공증인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직전 입찰가의 두 배나 되는 금액. 그런 일은 흔치 않았다.

"아홉십오만 프랑? 아무도 더 내지 않습니까? 아홉십오만! 낙찰합니다."

모두가 새로 온 남자에게 몰려들었다. 불안하고 주저하던 오디가 공증인은 그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구하고, 이름과 신분을 묻으려 했다. 하지만 라울의 시선을 보고 그는 이내 마음을 접었다. 이 남자는 쉽게 움직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떤 관습과 예의는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설명은 공공연한 자리에서 하는 법이 아니다.

법무사는 급히 사람들을 밖으로 내몰았다. 특이한 사건이 하나 들어온 터라, 접견실을 혼자 쓰기 위해서였다.

법무사가 다시 들어왔을 때, 라울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기펜을 꺼내 수표를 쓰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장 드를르몽과 안토닌은 말 없이 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직도 느긋하고 평온한 태도로 라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신사처럼 태연한 어조로 법무사에게 말했다.

"곧, 오디가르 선생님. 저는 사무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맡길 서류들을 먼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법무장은 그 행동에 경악하며 반문했다.

"먼저 성함을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도 루이스 페레냐입니다. 포르투갈 국적이지만 프랑스 출신이지요. 여권과 필요한 참고 자료도 모두 준비했습니다. 대금 정산을 위해 리스본의 포르투갈 신용은행에 개설된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 절반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대화 끝에 드 에를몽 씨가 정해 주시는 시기에 지급하겠습니다."

"대화라니요?" 놀란 후작이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당신께 전할 흥미로운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법무사도 점점 당황해졌다. 그는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려다 말았다. 과연 누가 계좌에 충분한 돈이 들어있다고 증명할 수 있겠는가? 수표 결제까지 필요한 시간 동안 자금이 고갈되지 않았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눈앞의 남자는 그를 위압했고, 자신의 직감은 그 남자가 성실한 인물이라기보다는, 규정 따위에 얽매이는 법무사에게는 꽤 위험한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결국 그는 신중하게 판단했다. 잠시 생각해 보겠다고 그는 말했다.

"제 사무실에서 만나시죠, 선생님."

그는 팔 아래로 서류 가방을 끼고 나갔다.

자신과 몇 마디 나누고 싶어 했던 장 드를르몽은 그를 테라스까지 배웅했다.

라울의 해명을 들으며 안절부절못하던 안토닌도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라울은 문을 닫고 젊은 여자를 밀어냈다.

당황한 그녀는 복도로 바로 이어지는 다른 쪽 문 쪽으로 달아났다. 라울이 그녀를 쫓아붙여 허리를 잡았다.

"어째서 그래? 오늘따라 왜 그렇게 wild해?"

그는 웃으며 말했다.

"지금껏 우리가 알고 지냈던 사이가 아니라고? 방금 전 고르제레를 물리쳤고, 그전 밤에는 거대한 폴을 무너뜨렸는데, 그 모든 게 이제 더 이상 미스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건가?"

그는 그녀의 목덜미에 입맞추려 했지만, 닿은 것은 옷감뿐이었다.

"저를 놓아주세요." 안토닌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놓아주세요… 이건 너무해요."

그녀는 문을 향해 고개를 굳게 돌린 채, 열쇠를 돌려 문을 열려 안간힘을 썼다. 라울이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그녀의 목을 감싸 안고 머리를 뒤로 젖혔다. 그리고 피하려는 입술을 급하게 찾아갔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참, 창피하다! 내가 소리칠 거야. 정말 창피하다!"

라울이 갑자기 물러섰다. 현관 바닥을 내리찍는 자크의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라울이 비웃듯 웃었다.

"참 운이 좋네! 내가 이렇게 당할 줄 알았으면… 헛, 작전 실패다. 저번 밤, 자크의 서재에서는 훨씬 순종적이었잖아.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예쁜 아가씨."

그녀는 더 이상 문을 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물러서기만 했다. 장 드를르몽이 들어왔을 때, 그는 그녀가 자신과 마주 서서 망설임과 감동에 휩싸인 채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말씀드리려던 건데……"

"무슨 말이지?"

"아니에요. 별일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확실히 말씀드려요, 삼촌."

마르퀴스는 곁에서 미소 짓고 있던 라울을 돌아보았다. 라울은 삼촌의 의아한 시선을 받아쳤다.

"아마도 미스께서 사소한 오해를 말씀드리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그 오해를 직접 풀어드릴 생각이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monsieur." 마르퀴스가 말했다.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 진짜 이름은 루이스 페레냐 경입니다. 하지만 사적인 사정이 있어서 파리에선 가명, 라울 씨로 살고 있죠. 바로 그 가명으로 볼테르가에서 방을 얻으셨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 미스께서 제 문앞에서 종을 누르신 거예요. 본래 미스께서 누르셔야 할 곳은 선생님의 집이었죠. 제가 실수라고 설명드리면서 가명으로 소개를 했더니, 오늘 아침 미스께서 많이 놀라셨겠죠?"

장 드를르몽의 놀라움은 그치지 않았다. 도대체 이 이상한 남자는 누구인가. 그의 행적은 의구심을 자아냈고, 신원 역시 뚜렷하지 않았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와 면담을 요청하셨는데,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로요?" 라울이 물었다. 그는 대화 내내 젊은 여자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으려 애썼다. "무슨 사건 때문에 말입니다."

"나는 사건 따위 안 다룬다!" 드를르몽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나도 직접 하지는 않지만, 남의 사건은 맡습니다." 라울이 단호하게 말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이것이 일종의 협박인가?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적의 경고인가? 드를르몽은 권총이 들어 있는 주머니를 더듬어 본 뒤, 시선으로 조카딸에게 확인했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간단히 말합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전에 빼앗겼던 유산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유산?"

"당신의 할아버지의 유산 말입니다. 사라진 유산이고, 당신은 그 사안을 조사해 달라고 기관에 무용한 돈을 썼죠."

"아, 좋습니다!" 남작이 웃으며 외쳤다. "당신은 정보 제공자로 자청하는군요."

"아닙니다. 다만 남을 도와주고 싶은 취미가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수사에 빠진 편입니다. 호기심에서 비롯된 열정이죠. 진실을 알고, 의문을 풀고, 수수께끼를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진짜로요? 저는 인생에서 어떤 놀라운 성과를 거뒀는지, 수백 년 된 난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떤 역사적 보물을 찾아냈는지, 또 어떤 어둠에 빛을 비췄는지…… 말로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훌륭하군요!" 남작이 기쁜 마음으로 외쳤다. "그리고 당연히 작은 수수료라도 받으시겠지요?"

"없습니다."

"무료로 일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 즐거움을 위해서죠."

라울도 함께 웃으며 이 말을 맺었다. 그가 쿠르빌에게 밝힌 계획과는 얼마나 동떨어진 일인가. 자기 몫으로 이천만에서 삼천만 프랑, 그리고 후작에게 십 퍼센트를 내준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는 상대방, 특히 젊은 여자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과시하고 멋진 역할을 연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돈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돈을 내주었을 것이다.

그는 고개를 쑥 내밀고 거실을 오갔다. 드를르몽을 손아귀에 넣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방황하며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후작은 더 이상 아이러니한 어조를 섞지 않고 말했다.

"당신, 나에게 알려줄 정보가 있는가?"

"반대로요, 제가 오히려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라울이 경쾌하게 말했다. "제 목표는 간단합니다. 제 협력을 받아보시는 겁니다. 보세요, monsieur. 제가 관여하는 모든 일에는 초기의 시행착오 단계가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만약 처음부터 저를 믿고 맡겨준다면 이 과정은 훨씬 짧아질 텐데, 그런 일은 드물죠. 저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우유부단함과 은폐 시도에 부딪히기 마련이고, 결국 모든 것을 제 손으로 하나하나 밝혀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에서 구해내고, 예를 들어 그 신비로운 유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이미 고소를 했는지까지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신이 알고 싶은 게 다 그거야?"

"하물며요!" 라울이 외쳤다.

"그 외에는?"

"그 성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해, 볼니크를 소유하기 전인 그 시절의 일을 미셸 앞에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까?"

마르키는 몸을 움찔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물론이지. 나는 내 가신인 조카딸에게 엘리자베트 호르네인의 죽음에 대해 직접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신은 아마도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겠죠. 사법당국에게 숨겼던 그 기묘한 비밀은요?"

"어떤 비밀이요?"

"당신이 엘리자베트 호르네인의 연인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르앙은 장 드를레몽이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계속했다.

"바로 그 부분이 설명되지 않고, 저를 가장 궁금하게 만드는 점입니다. 한 여자가 살해당하고 보석들을 빼앗겼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모든 참석자를 심문하듯 당신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여자와 당신 사이에 연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침묵을 지켰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왜 그 성을 사셨습니까? 당신도 조사를 해보셨나요? 당시 신문에서 제가 읽은 것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결국, 볼니크의 비극과 당신이 피해 입은 유산 도난 사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두 사건은 같은 곳에서 시작되어 같은 과정으로 발전했으며, 같은 사람들이 관여했습니까? 이것이 제가

묻는 질문들입니다, 선생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후 긴 침묵이 흘렀다. 남작은 입을 열지 않으려는 의지가 너무 뚜렷했다. 라울은 어깨를 살짝 으쓱였다.

"아쉽군요! 정말로 당신이 말을 피하는 게 아쉽습니다. 당신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사건은 결코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건은 관련자들의 마음속에서, 혹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 이익을 쫓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이어집니다. 그런 생각이 당신을 생각하게 하지 않나요?"

그는 남작 옆에 앉았다. 그리고 문장마다 박자를 맞추며, 단어를 하나하나 찍어 내듯 말했다.

"당신의 과거를 둘러싼 그 개별적인 시도들, 저는 네 가지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하나는 저입니다. 처음에는 볼테르 강변의 안채로, 이어 이 성으로까지 저를 이끌었던 시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성을 사가지 못하도록, 제가 직접 사들인 곳이지요. 제가 조사 주도권을 쥐고 싶었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겠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클라라 라 블롱드입니다. 유명한 도적 폴의 전 애인이죠. 그 클라라는 지난밤 당신의 파리 도서관에 침입해, 책상 서랍의 비밀칸을 부수고 사진들을 뒤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라울은 잠시 멈춰 섰다. 그는 젊은 여자를 보지 않기 위해 얼마나 신중하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후작에게 몸을 기울이며 자신의 모든 주의를 그에게 집중시켰는지.

그는 장 드를르몽의 당혹감을 틈타, 눈과 눈을 맞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 번째 도둑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마도 가장 위험한 자일 겁니다. 발텍스에게로 넘어가죠."

후작이 깜짝 놀랐다.

"발텍스? 무슨 말씀이세요?"

"네, 발텍스입니다. 조카든 사촌이든, 어쨌든 엘리자베트 호르네인의 친척이죠."

"말도 안 돼! 불가능해!" 드를르몽이 반박했다. "발텍스는 도박꾼이고 방탕한 자야. 도덕성이 의심스러운 건 인정하지만, 그가 위험하다니? 말이 안 돼."

라울은 여전히 후작을 마주 보고 계속했다.

"발텍스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하. 엄밀히 말하면 별명이지요. 그는 범죄 세계에서 그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범죄계의 세계라니?"

"발텍스는 경찰이 쫓고 있는 인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발텍스는 바로 대프랑스의 두목, 그 유명한 '대프랑스'입니다."

마르퀴의 반응은 극에 달했다. 그는 숨이 막힐 듯 놀랐고, 분노에 떨었다.

"대프랑스? 그 조직의 두목이라고? 잠깐, 이건 말이 안 돼…… 발텍스가 대프랑스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아니, 아니야. 발텍스는 대프랑스가 아니야!"

"발텍스는 바로 대保罗(파울)입니다." 라울이 차갑게 되뇌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밤, 대保罗는 동조자들과 함께 부두에 숨어 옛 연인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여기서 나가자, 그는 그녀를 납치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싸우다가, 정면에서 그를 마주쳤죠. 한 달째 그분이 주변에서 벌이는 수법을 감시해 온 발텍스임을 알아챈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침입자로 넘어가죠. 경찰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건을 포기한 체하지만, 고집스럽고 복수심 강한 한 형사의 손을 빌려 끈질기게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의 무력한 조력자였던, 고참 형사 고제레를 말입니다."

라울은 두 번이나 젊은 여자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안토닌이 역광에 서 있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라울은 그녀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

었다. 자신의 역할, 그 신비로운 역할이 이 이야기 속에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을까.

마르퀴는 라울의 고백에 깊은 혼란에 빠진 듯 보였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고르제레는 기억납니다. 그가 저를 직접 심문한 적은 없지만요. 그가 저와 엘리자베트 호르냉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라울이 단정했다. "하지만 그 역시 경매 공고문을 읽고 왔을 겁니다."

"확신하십니까?"

"그가 폐허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즉, 경매에 참석했다는 뜻이군요?"

"아닙니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는 폐허를 떠나지 않았소."

"무슨 소리요!"

"네, 내가 그를 그곳에 묶어두기로 했지. 입에는 작은 수건을, 눈에는 작은 천을 덮어주고, 팔과 다리에는 작은 줄을 동여맸소."

마르퀴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나는 그런 행위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소!"

라울이 미소 지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으실 겁니다, 각하. 이 행위의 책임은 오직 저 혼자에게 있습니다. 단지 예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일 뿐이오. 제가 우리 공통의 안전과 이 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은, 제가 실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장 드를르몽은 자신이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 협력 관계를 원하지 않았지만, 상황과 상대방의 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었다.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라울이 다시 말을 이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아주 심각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특히 발텍스 쪽에서요. 그래서 저는 지금 즉시 개입해야 합니다.

파울이라는 거물의 옛 연인이 그에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울이 당신을 향해 움직일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나섭니다. 내일 밤 경찰에게 그를 체포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파울과 발텍스가 동일인물임이 밝혀질까요? 파울이 열다섯 년 전, 엘리자베트 호르네인과의 당신의 관계를 폭로하며 당신을 연루시킬까요?

모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라울은 기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작의 망설임이 길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라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요. 혼자서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총격전도 있을 수 있고, 말하자면 '혼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원하신 대로 된 거죠. 여기서 언제 떠나십니까?"

"내일 아침 8시, 자동차로 떠납니다."

"알겠습니다. 고르제 씨는 오전 10시 기차를 타러 비시까지 가야 하니, 당분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성의 경비원이 고르제 씨에게 미스 님과 당신에 대해 어떤 정보도 흘리지 않도록만 주의해 주십시오. 파리에 머무르십니까?"

"하룻밤만 있고, 약 3주 동안 자리를 비웁니다."

"3주라니요. 그럼 25일 후, 7월 3일 수요일 오후 4시에 성 앞 테라스의 벤치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괜찮습니까?"

"네, 에를몽이 말했다. 그 때까지 생각해 보겠소."

"무엇을?"

"당신의 제보와 제안에 관해서 말이오."

라울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미 늦을 걸요, 선생님."

"늦다니?"

"음, 에를몽 사건에 쓸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이십오일 뒤면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무엇이?"

"장 드 에를몽 사건이요. 7월 3일 오후 4시, 저는 그 사건과 그를 복잡하게 얽은 모든 수수께끼의 진실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유산도 함께요. 그러면 아가씨께서 원하실 경우, 방금 제가 서명해 드린 수표를 돌려주시는 것만으로 이 아가씨가 너무 좋아하는 성을 계속 소유하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드를르몽은 심정이 격동된 듯 말했다. "정말 그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를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라울은 모자를 집어들었다. 그는 안토닌과 후작에게 넓은 제스처로 인사를 건넸다. 그 이상 말하지 않고, 그는 몸을 돌려 나갔다. 그의 몸짓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허리를 비틀어 걷는 특유의 모습이었다. 이 동작은 그가 특히 자신에게 만족했을 때 자주 보이던 습관이었다.

현관에서는 그의 발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탑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제야 후작은 경악에서 깨어났다. 그는 여전히 생각에 잠긴 듯 중얼거렸다.

"아니…… 아니……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법이 아니다…… 물론, 그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그런 자들과 함께할 수는 없는 법이지."

안토닌이 침묵하자, 그가 물었다.

"내 생각과 같지? 맞아?"

그녀는 당황한 듯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대부님… 저는 의견이 없어요…"

"어떻게요? 모험가라니!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나이, 어디서 튀어나온지도 모르는 채로 나타나서, 도대체 무슨 목적을 향해 달려드는지 알 수 없는 자라니… 내 일에 간섭하고, 경찰을 조롱하면서도 정작 큰 폴은 경찰에 넘기는 건가?"

그는 라울의 행적을 열거하던 말을 멈췄다. 잠시 일 분, 두 분 정도 생각에 잠긴 뒤, 이렇게 결론 내렸다.

"정말 무시무시한 놈이군.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나이야."

"특별하다…" 젊은 여자가 반쯤 속삭이듯 되뇌었다.

제9장

라울과 오디가르 공증인의 면담은 짧았다. 공증인은 쓸데없는 질문을 던졌고, 라울은 단호하고도 단호한 답변으로 맞받아쳤다. 공증인은 자신의 총명과 식견에 스스로 만족하며,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라울은 overtly하게 자신의 자동차를 몰고 마을을 떠났다. 비슈로 가서 방을 하나 잡고 저녁을 먹은 뒤, 밤 열한 시쯤 볼니크로 돌아왔다. 그는 이미 주변 환경을 철저히 조사해 두었다. 다른 이들에게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벽의 옆면에, 그에게만 열려 있는 틈이 있었다. 그는 그 틈을 빠져나와 폐허 쪽으로 향했고, 덩굴식물이 감싸고 있는 곳에서 고제레 형사를 다시 찾았다. 형사는 로프와 입마개도 그대로의 상태였다.

라울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방금 몇 시간 동안이나 푹 쉬게 해준 친구입니다. 그 잠이 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간식이라도 가져왔습니다. 햄과 치즈, 그리고 적포도주요."

그는 다정하게도 조마를 풀어주었다. 하지만 조마는 목이 메어 터져 나오는 듯한, 분노에 찬 욕설을 퍼부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목이 메고 격렬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조차 없었다.

라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배고프지 않다면 억지로 드실 필요 없잖아요, 고제레 씨. 방해해 드려 죄송합니다."

그는 다시 조마의 입을 막고, 모든 묶임을 꼼꼼히 확인한 뒤 자리를 떴다.

정원은 고요했다. 테라스는 비어 있었고, 불은 모두 꺼져 있었다.

라울은 오후에 차고 지붕 아래에 있는 사다리를 눈치챈 뒤, 그것을 내려받았다. 장 드를르몽이 잠자는 방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다리를 세우고 올라갔다. 밤공기는 무더웠지만, 닫혀 있던 창문 뒤로 열려 있는 창문이 있었다.

그는 창문의 잠금을 쉽게 풀고 안으로 들어섰다.

마르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듣고, 그는 손전등을 켜 의자에 깔끔하게 접어 둔 옷들을 바라보았다.

조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고, 그 지갑 안에는 안토닌의 어머니가 마르퀴에게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바로 그 편지가 라울이 이 모험을 떠난 이유였다. 그는 편지를 읽었다.

'맞는 말이군.'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훌륭한 분도 과거에는 매력적인 후작의 수많은 애인 중 한 분이셨고, 안토닌은 그분의 딸이시지. 그래, 나도 아직 실력 유지는 되고 있군.'

그는 물건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다.

세 개의 창문 더 떨어진 오른쪽, 그곳이 안토닌의 방이었다. 그는 사다리를 다시 걸치고 다시금 방으로 올랐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문은 닫혀 있고 창문만 열려 있었다. 그는 안으로 몸을 날렸다. 손전등 빛이 침대를 찾았다. 안토닌은 벽을 등진 채 잠들어 있었고, 금발 머리는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는 일 분을 기다렸다. 또 한 분. 그리고 또 한 분.

왜 그는 움직이지 않았을까? 왜 그녀가 무방비로 누워 있는 그 침대로 다가가려 하지 않았을까?

어제 밤, 자작의 서재에서 그는 안토닌이 자신 앞에서 얼마나 약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에게 잡힌 손을, 팔을 쓰다듬는 그 손의 포옹을 그녀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받아들였는지도.

오후 내내 안토닌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그녀가 저항할 힘을 지니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그는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

'대박.' 성을 나서며 그는 생각했다. '때로는 가장 영리한 자들도 그저 바보에 불과할 때가 있군. 어차피 내가 원하기만 했다면……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는 비시 쪽으로 다시 길을 재촉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이른 아침부터 그는 파리행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그는 광장 한복판, 즉 에를몽 후작과 그 딸 안투안느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안투안느는 그의 뜻대로 움직였고, 역사적인 성은 그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었다.

사건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한 이후, 단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의 반전이라니. 물론 그는 에를몽 후작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공로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아니, 나는 겸손한 자야. 내 야망은 제한적이고, 영예 따위는 내게 그리 중요하지 않아. 내가 노리는 건…… 어쨌든 내가 노리는 게 뭐지? 후작의 유산? 성? 성공의 쾌감? 헛소리일 뿐이야. 진짜 목표는 안토닌이지. 그게 전부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봐라. 백만 장자도, 수수료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귀족 행세를 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놀라게 하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물에 던져버렸지. 야바위꾼이로구나! 돈 키호테! 그리고 과잉 연기쟁이!"

하지만 라울은 자신도 놀랄 만큼 간절하게 그녀를 생각했다. 그가 떠올린 안토닌은, 볼니크 성에서 그의 시선을 피하던 불안하고 신비로운 여인이 아니었다. 더구나 첫날 밤 서재에서 어둠의 임무를 수행하던 비굴하고 고통스러우며 운명의 법칙에 복종하는 듯한 안토닌도 아니었다.

그가 떠올린 것은 다른 안토닌이었다. 바로 시작 부분의 그녀, 즉 그가 자신의 거실의 밝은 화면에서 처음 마주했던 그 안토닌이었다.

그 순간, 그리고 그가 불의에 들렀던 짧은 시간 동안, 안토닌은 매혹과 무심함, 삶의 기쁨, 그리고 희망 그 자체였다. 거칠고 무거운 운명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이었지만, 그는 그 순간들의 달콤함과 환희를 깊이 음미했다.

그런데 말이다. 그는 이 문제를 자주, 그리고 성가신 마음으로 생각했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동기가 있는가?

마르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녀가 꾸민 기묘한 수작 뒤에는 어떤 신비로운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

그녀는 자신이 그의 딸임을 눈치챈 걸까?

아니면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려는 걸까?

그녀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재력인가?

라울은 그 다채롭고 이해할 수 없으며 사랑스러운 존재의 기억과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 평소와 달리 그는 가장 느린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다. 중간에 점심을 먹고, 파리에는 세 시쯤에야 도착했다. 쿠르빌의 준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는 의도였다.

그가 자신의 층의 절반쯤 올라갔을 때였다. 갑자기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네 계단을, 다시 네 계단을 뛰어올랐다. 그는 미친 듯이 자신의 문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방을 정리하고 있던 쿠르빌을 밀쳐내고는, 시끄러운 비명을 지르며 시외전화기에 몸을 던졌다.

"크레블뤼! 내가 아름다운 올가와 점심을 약속했다는 걸 완전히 잊어버렸군. '여보세요, 미스! 트로카데로 파리스? … 그분의 아파트를 연결해 주세요. …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마사지부? … 아, 샤를로트 씨구나? 잘 지내? 직장은 마음에 들어? … 왕이 내일 도착한다니? 올가는 기분이 어떨까! … 그녀와 연결해 줘. 서두르자, 내 사랑."

그는 몇 초간 기다렸다. 그러곤 부드럽고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드디어 찾았네, 멋진 올가! 두 시간이나 너를 기다렸어… 바보 같은 소리지? 뭐라고? 나 같은 도둑이? 올가, 화내지 마. 차가 고장 나고 파리에서 팔십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너는 어때? 마사지라도 받고 있어? 아, 멋진 올가, 내가 너 곁에 있었더라면…”

전화기 너머서 ‘딸깍’ 하는 소리가 났다. 분노한 올가는 통화를 끊었다.

“운이 좋았네.” 그가 비웃었다. “화가 잔뜩 난 모양이군. 아, 나도 이미 ‘폐하’한테 지쳤어.”

“보로스티리아의 여왕이요!” 쿠르빌이 책망하는 어조로 중얼거렸다. “여왕한테 지쳤다고?”

“그녀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쿠르빌.” 라울이 외쳤다.

“어제 그 소녀가 누구인지 알아? 알지? 어째서 너는 이렇게 영리하지 못한 거야? 그 여자는 에를몽 후작의 사생아란다. 후작은 정말 매력적인 남자야. 방금 전까지 시골에서 이틀을 함께 보냈지. 나는 그에게 아주 잘 통했어. 그는 내게 딸의 혼인을 허락했어. 너는 내 신랑 친구가 되어주게. 아, 참. 그가 너를 쫓아낼 거라고.”

“뭐?”

“아니, 쫓아낼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 미리 행동으로 옮기게. 그에게 쪽지를 남겨서, 네 누나가 아파서 떠난다고 알리라고.”

“나는 누나가 없어.”

"그래서 더 좋은 거야. 불운을 부르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옷가지를 챙겨서 얼른 사라져."

"어디로 피신하지?"

"다리 밑에서 만나자. 아니면 오퇴유의 우리 저택, 차고 위 방으로 올 수도 있어. 어때? 그럼 가. 얼른 해. 그리고 장인 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해 둬. 안 그러면 너를 감옥에 넣을 거야."

쿠르빌은 놀라서 달아났다. 라울은 잠시 더 머물며 수상한 물건이 남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서류들을 불태웠다. 그리고 오후 네 시 반, 차를 타고 재차 출발했다.

리온 역에서 그는 비시행 급행 열차 정보를 물어본 뒤, 안내받은 플랫폼 끝자락에 자리를 잡았다.

기차에서 내려 출구로 서두르는 군중 속에서, 그는 고르제레의 거구 같은 어깨를 발견했다.

형사는 직원에게 신분을 확인시켜 주고는 통과했다. 그러자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친절한 얼굴이 그를 맞았고, 미소 띤 입술이 말을 꺼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형사님?"

고제레는 쉽게 당황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경찰 생활을 하며 그는 기이한 사건과 기묘한 인물들을 수없이 봐왔다. 하지만 그는 이번만큼

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언어로 옮길 수 없을 정도였다.

라울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친구? 혹시 아픈 건 아니죠? 제가 만나러 와서 기쁘게 해드리려던 건데 말입니다. 어쨌든 이건 친절과 우정의 표현이잖아요."

고제레는 라울의 팔을 꽉 잡아끌며 멀리 데려갔다. 그리고 분노에 떨며 입을 열었다.

"감히! 내가 어제 밤, 폐허에서 당신이 누군지 모를 줄 알았나? 너 같은 개새끼! 불량배! 어쨌든 지금 당장 경찰청으로 따라와. 거기서 이야기하자."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마음에 들면 좋겠네, 친구." 라울이 말했다. "하지만 생각해 봐. 내가 여기까지 왔고, 너에게 말을 건넸다는 건, 내게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야. 그냥 놀라고 늑대 입에 뛰어드는 바보가 아니잖아. 게다가 그 늑대의 입은 얼마나 크던가?"

그 논리는 고르제에게 먹혔다. 그는 억눌린 듯 입을 다물었다.

"그래, 뭐든 빨리 말해."

"나 너한테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거야."

"누구라고?"

"네가 미워하는 사람, 네 개인적인 원수, 네가 붙잡았지만逃脱한 자, 그 사람의 체포가 네 생각의 중심이자 네 경력의 영광이어야 할 그 사람."

"이름을 말해야 해?"

고르제색이 조금 창백해지며 중얼거렸다.

"대형 폴?"

"맞아, 대형 폴." 라울이 확인했다.

"그리고?"

"그리고, 뭐라고?"

"대범한 폴 이야기를 하려고 역까지 따라온 거야?"

"그래서 넌 나에게 뭔가 알려줄 게 있는 거야?"

"그보다 더한 것. 제안이 있어."

"무슨 제안?"

"그의 체포."

고제레는 얼굴도 붉히지 않았다. 하지만 라울이 이미 눈여겨본 작은 징후들, 콧구멍의 미세한 떨림, 눈꺼풀의 깜빡임이 그의 감정을 배신하고 있었다. 그는 은근히 물었다.

"사흘 뒤인가? 열흘 뒤인가?"

"오늘 밤."

콧구멍과 눈꺼풀이 다시 한 번 덜컥 떨렸다.

"대가로 얼마가 필요해?"

"3프랑 50센트."

"장난하지 마.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나와 클라라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좋아."

"약속이야?"

"약속이야." 고제레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단언했다.

"그리고," 라울이 덧붙였다. "너를 제외하고 남자 다섯 명도 필요해."

"젠장! 다른 자들도 많단 말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지."

"그럼 내가 다섯 명을 데리고 가마."

"아랍인을 아느냐?"

"물론이지. 무서운 녀석이야."

"그가 바로 대(大) 폴의 오른팔이란다."

"헛소리하지 마."

"그들은 매일 저녁 아페리티브를 마시며 만나."

"몽마르트르의 '가재(bar des Écrevisses)' 바에서."

"알고 있네."

"나도 알아. 그곳 지하실로 내려가면, 숨겨진 출구가 있어서 도망칠 수 있어."

"그렇지."

라울이 덧붙여 말했다.

"정오 사십오 분, 그곳에 모여. 지하실로 뛰어 들어갈 거야. 총을 겨누고 한꺼번에 들이닥치지. 나는 너희보다 먼저 도착할 거야. 하지만 주의해라! 영국 조련사 같은 얼굴의 착한 사나이를 쏘지 마라. 그 사람

이 바로 나야. 그리고 숨겨진 출구 앞에 경찰 두 명을 배치해서, 도망치는 자들을 잡게 해."

"합의된 거야?"

고제레는 오랫동안 그를 응시했다. 왜 함께 가다가 헤어지려는 걸까? 그 바까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꾀일까? 아니면 자신을 속이려는 의도일까?

거대한 폴처럼, 고제레도 그 남자를 미워했다. 그 남자는 자신에게 너무 쉽게 장난을 치고, 전날 밤 성터에서 그런 모욕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유혹은 너무 컸다. 거대한 폴을 사로잡는 것! 그런 업적이 일으킬 파장!

'바, 생각했다. 고제레는. 이 녀석은 나중에 다시 잡으면 되지. 클라라 블랑드도 같이.'

그리고 큰 소리로 덧붙였다.

"좋아. 여섯 시 사십오 분, 기습 공격."

제10장

에크레비스 바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다. 그림이나 저널리즘에서 실패한 자들, 일도 안 하면서도 일하기를 거부하는 직원들, 창백하고 눈치가 빠른 젊은이들, 깃털 모자를 쓰고 화장을 진하게 한 여인들이 주류였다.

하지만 크게 보면 꽤 평온한 곳이었다. 더 다채로운 광경과 특별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바깥쪽 골목을 따라가야 했다. 그곳은 뒷좌식 공간으로 이어졌고, 거기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건 한창 찐 살집이 흘러넘치는 큰 남자였다. 그는 안락의자에 파묻혀 있었다. 바로 이 바의 주인이었다.

새로 온 손님은 누구든 반드시 이 의자 앞에 멈춰 섰다. 주인과 몇 마디 수다를 떨고는, 결국 작은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길게 뻗은 복도. 못이 박힌 두꺼운 문 하나.

그 문을 열면 음악 소리가 몰아쳐왔다. 담배 연기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눅눅하고 습한 공기가 함께 밀려났다.

계단 15계단, 아니면 벽에 박힌 사다리 발 15개를 타고 올라갔다. 그러자 넓고 아치형 천장의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그날은 바이올린의 삐걱거리는 소리에 맞춰 네다섯 쌍의 커플이 춤을 추고 있었다. 바이올린은 한 노안 노인이 힘겹게 연주하고 있었다.

깊은 곳, 아연으로 된 카운터 뒤에는 주인 부인이 앉아 있었다. 남편보다 더 살이 오른 그녀였으며, 목과 귀에는 보석 같은 장신구를 두르고 있었다.

테이블 여섯 개쯤은 이미 손들로 가득 찼다. 그중 한 테이블에서는 두 남자가 묵묵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바로 아랍인과 대장 폴이었다.

아랍인은 올리브빛 코트를 걸치고 더러운 펠트 모자를 썼다. 반면 대장 폴은 모자를 쓰고 목이 없는 셔츠에 갈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얼굴에는 나이를 먹인 듯한 분장을 하고 있어 재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천박한 더러움이 풍겨 보였다.

"정말 추잡한 표정이다!" 아랍인이 비웃었다. "백 년은 먹은 것 같고, 장례식 가는 상주 얼굴이다."

"입 다물어," 대장 폴이 말했다.

"아니, 아니지." 상대가 재차 말했다. "네 얼굴에 백 년의 주름이 박여도 괜찮아. 하지만 그겁에 질린 표정, 겁쟁이 같은 눈빛은 왜 그래? 도대체 이유가 뭔데?"

"있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무슨 이유?"

"내가 쫓기고 있는 것 같거든."

"누구한테? 넌 같은 침대에서 사흘도 못 자. 그림자도 믿지 않고 주위엔 동료들뿐이야. 그들을 잘 살펴봐. 여기 있는 스물네 명 중 열두 명은 너를 위해 불 속에도 뛰어들 거야.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내가 그들을 고용했으니까."

"그게 뭐가 문제야? 어쨌든 넌 왕처럼 보호받고 있는 거잖아."

주점에는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혹은 연인끼리 모여들었다. 그들은 앉거나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아랍인과 큰 키의 폴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훑어보았다. 아랍인은 하녀 중 한 명에게 손짓하며 속삭였다.

"저기 맞은편에 있는 영국인 같은 놈은 누구야?"

"사장님이 말하길 조련사라고 했어요."

"자주 오나?"

"저는 새로 온 거라 잘 몰라요."

한 여인이 깨진 콘트랄토 성음으로 탱고를 불렀다. 얼굴이 석고처럼 하얗고 차가운 그 여인의 목소리는, 낮은 음역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지며 슬픈 침묵을 강요했다.

그때 아라비가 물었다.

"무엇이 너를 짓누르는지 아니?"

클라라 때문이야. 네가 그녀의 도피 이후로 아직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 거지."

큰 파울이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입 다물어. 나는 그녀가 도망간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야. 그녀가 아마도 그 비루한 놈에게 반한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라고."

"라울?"

"아, 그놈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른다!"

"그놈을 무너뜨리려면, 먼저 그놈을 찾아야 해. 내가 사흘 밤낮으로 발버둥 쳐 봤자, 보잘것없는 성과밖에 없었어."

"그렇지만 이대로 끝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네가 망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 너는 무서운 거야."

큰 파울이 몸을 놀랐다.

"무서워? 넌 미쳤나 봐. 그냥 나는 느꼈어. 나랑 그 녀석 사이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어야 한다는 걸, 그리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상대가 그 녀석이었으면 좋겠다고?"

"물론이지!"

아랍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바보야! 여자를 위해서라니… 넌 늘 이런 섹스 관련 일에 휘말려 다니잖아."

"클라라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야. 그녀야말로 내 생명이야. 그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그녀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어."

"바로 그거야… 그녀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니! 정말로, 그날 오후에 그녀가 라울의 집에서 나왔다는 게 확실해?"

"당연하지. 내가 이미 말했잖아. 관리인을 심문했어. 지폐 한 장이면 원하는 대로 말을 끌어낼 수 있는 법이지."

큰 폴은 주먹을 꽉 쥐고 분노의 말을 씹어 삼켰다. 아랍인이 계속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마르키의 집으로 올라갔지. 내려올 때는 이미 일이 꼬여 있었어. 중간층에서 싸움이 벌어졌거든. 고제레가 그건데, 그 아이는 도망쳤어. 저녁에는 라울과 함께 마르키의 아파트에서 일을 했지."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찾으러 갔을까?" 큰 폴이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다.

"그녀는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열쇠로 들어갔겠지.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찾았을까? 마르키와 관련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지?

한번은 그녀가 어머니가 그 노인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어. 그리고 어머니가 죽기 전에 그 노인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해줬다고 했지.

무슨 이야기였을까? 그녀는 나에게 대답하지 않았어.

정말 이상한 애야. 나는 그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그녀가 거짓말을 좋아하는 건 아니야. 아니, 그렇지. 그녀는 이름처럼 맑아. 하지만 동시에 교활하고, 자기 안으로 깊이 숨어 버린 아이지."

아라브가 비웃듯 웃었다.

"제발 좀 정신 차려, 친구. 울기 전에. 오늘 밤 새로 여는 카지노에 간다고 하지 않았나?"

"응. 블루 카지노야."

"그럼 거기서 다른 여자를 하나 잡으면 되지. 네겐 그게 구원일세."

그때쯤 지하방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담배 연기가 짙게 깔린 가운데 열다섯 쌍의 커플이 돌며 노래했다. 맹인과 plaster 가면 쓴 여자가 가장 시끄럽게 굴었다. 소녀들은 어깨를 드러냈고, 곧바로 여관 주인이 단속하며 단정한 복장을 요구했다.

"지금 몇 시야?" 그랑 폴이 물었다.

"일곱 시 스무 분 전쯤. 조금 더 지났을지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뒤 그랑 폴이 말했다.

"내가 그 기수랑 눈을 마주친 게 이번이 두 번째야."

"파리 경찰서 직원이 아닐까? 농담이야." 아랍인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술 한 잔 대접할래?"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바이올린은 소리를 죽인 채 연주하다가 멈췄다. 큰 적막이 감돌았다. 얼굴에 가루를 가득 바른 가수가 몇 마디 낮은 음으로 탱고를 마무리하려 했다. 단골들은 늘 그 부분을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기다렸다. 가수가 한 음, 또 다른 한 음을 뱉어냈다.

그때 천장 쪽에서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났다. 군중이 즉각적으로 계단 쪽으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계단 문이 열렸다. 남자 한 명이 나타났다. 이어 두 명. 그리고 고제레가 권총을 겨누며 나타나 소리를 질렀다.

"손 들어! 움직이는 자는…"

그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고 쐈다. 그의 형사 세 명이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가며 함께 외쳤다.

"손 들어!"

사십 명쯤 되는 사람들이 경찰들 앞에서는 순종했다. 하지만 도망치려던 사람들이 카운터 쪽으로 몰려드는 힘이 너무 세어서, 영국인 조키가 가장 먼저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큰 폴에게로 길을 뚫지 못했다.

주인아내가 아무리 항의해도 카운터는 넘어졌다. 그 카운터 뒤에는 비밀 문이 있었는데, 혼란과 소동 속으로 도망자들이 하나둘씩 밀려 들어갔다.

몇 초 동안 갑자기 움직임이 멈췄다. 두 사람이 누가 먼저 지나갈지 다투며 분통을 터뜨리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인 조키는 의자 위에 올라서서 아랍인과 큰 폴을 알아봤다.

몸을 부딪친 격투는 끔찍할 정도로 거칠었다. 두 사람 모두 경찰에게 잡히길 원치 않았다. 총알 두 발이 날아왔지만 그들을 맞추지 못했다. 곧 아랍인이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그때 거대한 폴이 출구의 어두운 구멍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경찰이 개입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뒤로 문을 닫았다. 경찰들은 빗장 친 문이라는 단단한 장애물에 부딪혔다.

고르제레가 달려와 승리의 웃음을 터뜨렸다. 갱단원 다섯 명이 그 장애물에 부딪혔다.

"표에 걸릴 만한 좋은 수확이군." 그가 중얼거렸다.

"특히, 그가 들을 수 있도록, 특히 큰 폴이 출구에서 잡힌다면 말이야." 조키가 덧붙였다.

고르제레는 그 영국인을 주시했다. 라울임을 알아챈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 해결됐어. 난 강력한 놈인 플라망을 투입했지!"

"형사님, 저부터 하세요. 어차피 더 나은 방법일 테니까."

고르제레는 지시를 내렸다. 일당 중 몇몇은 묶어 버리고, 나머지는 권총을 들이댄 채 한구석으로 몰아넣었다.

라울이 가니마르를 붙잡았다.

"잠시만요. 제가 아랍인한테 몇 마디 하도록 해주세요. 저기 있는 사람요. 지금이야말로从他한테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고르제레는 승낙하고는 자리를 떴다.

라울은 아랍인 곁에 쪼그려 앉더니 속삭였다.

"나를 알아봐, 알지? 볼바르 부두에서 당신에게 지폐 두 장을 건넨 라울이잖아. 지폐 두 장 더 줄까?"

아랍인이 더듬거렸다.

"음… 음요. 배신하는 건 싫거든요… 그래도…"

"그래, 바로 그 큰 폴이 당신이 도망가는 걸 막았지. 하지만 어차피 저놈은 곧 잡히게 돼. 그게 당신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어?"

아랍인이 격분했다. 목소리는 분노로 들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른 게 있어. 새로 생긴 계단이지. 골목으로 이어지는."

"젠장!" 라울이 분한 듯 말했다. "고르제레를 믿은 보람이 없군."

"너도 경찰이냐?"

"아니. 하지만 가끔 함께 일할 뿐이야. 내가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지금은 아무것도 못 해. 지폐를 다시 빼앗길 테니까. 하지만 나를 잡을 증거는 없어. 석방되면 사서로 돈을 보내줘. A.R.B.E. 우편국 79번."

"너는 나를 믿는구나?"

"그래야지."

"옳은 말이야. 얼마나 필요해?"

"오천."

"헐! 욕심이 세군."

"그 이상은 안 돼."

"좋아. 네 정보가 맞다면 주마. 그리고 클라라 블롱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해. 그럼 그 큰 폴을 찾을 수 있겠지?"

"그래, 그가 불쌍하군… 내가 장난을 당했어."

"언제쯤 찾을 수 있겠니?"

"오늘 밤."

"열 시. 블루 카지노에서. 새로 오픈한 곳이지."

"혼자 갈 거야?"

"왜 거기로 가는 줄 알아?"

"그는 여전히 금발 여자를 찾고 있어. 네 여자 말이야, 응? 하지만 오늘은 특별 모임이야. 네가 아는 그 거친 폴은 나타나지 않을 거야."

"발텍스인가?"

"그래, 발텍스야."

라울은 몇 가지 더 질문했지만, 아랍인은 자신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은 듯 더 이상 말하기를 거절했다.

게르제가 입구 쪽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얼굴이 완전히 빠져 있었다. 라울은 그를 비웃으며 끌어냈다.

"손바닥만 하고 왔네? 뭐 어때? 너희는 항상 멍청하게 행동해.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말이야. 괜찮아, 낙담하지 마."

"아랍인이 말했나?"

"말 한마디도 하지 마. 괜찮아. 네 실수는 내가 메꿔주마. 오늘 밤 열시, 블루 카지노 검문소에서 만나자. 세상 떠나는 사람처럼 차려입어라. 그래야 눈에 띄지 않을 테니까."

고르제레는 놀라 입을 다물었다.

"세상 떠나는 사람이라고 했지. 정장이고 모자고." 라울이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볼과 코에 밀가루 가루를 살짝 바르렴. 볼이 너무 붉잖아. 그리고 코는 술주정뱅이 코 같아. 나중에 보자, 친애하는 친구."

라울은 가까운 골목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찾아냈다. 그리고 파리를 가로질러 오트이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당시 그곳은 그의 주요 거점이자 활동의 중심지였다.

그 집은 이용객이 드문 넓은 대로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꽤 좁은 정원 깊숙이, 스타일도 색채도, 그 누구의 시선도 끌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건물이 있었다. 두 층으로 된 그 건물은 각 면에 방 하나씩만 있는 단순한 구조였다.

뒤쪽 방은 차고로 쓰지 않는 안마당으로 통했다. 차고로 들어가는 길은 다른 골목에 있었다. 라울의 모든 거점이 가진 가장 중요한 안전 장치였다.

아래층에는 두 방을 합쳐 만든 깊고 넓은 식당이 있었다. 가구는 간단했지만 쓸 만했다. 위층에는 욕실이 딸린 안락하고 호화로운 방이 하나 있었다. 하인들은 빈 차고 위층에 잠을 잤다. 충실한 하인 한 명과 늙은 요리사가 그곳에서 생활했다. 라울은 차를 백 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해 뒀다.

여덟 시가 되자 그는 식탁에 앉았다. Courville가 모습을 드러내며 말했다. 마르퀴스가 여섯 시에 도착했고, 그 소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라울은 걱정했다.

"그럼 그녀는 파리의 한구석에 혼자 있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운이 나쁘면 발텍스에게 넘어갈 수도 있어. 서둘러야 해."

"나랑 같이 저녁 먹어, Courville. 그다음엔 음악당에 데려다줄게. 정장을 입어야 해. 너는 턴드레스 차림이 잘 어울려."

라울의 세수는 길었다. 몸을 풀기 위한 스트레칭도 곁들였다. 밤이 꽤 뜨거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잘했다." 쿠르빌이 다가오자 라울이 말했다. "대공(大公)처럼 생겼군."

비서 특유의 단정하고 네모난 수염이 깨끗한 앞치마 위에 단정히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외교관처럼 단단한 가슴을 내밀고, 공처럼 둥근 배를 내밀고 서 있었다.

제11장

블루 카지노 개장식은 사회적 이벤트였다. 이 카지노는 샹젤리제 거리의 유명한 카페-콘서트 자리에 지어졌다. 두 천 장의 초대장이 발송되었고, 모두 저명한 사회인, 예술가, 그리고 잘 나가는 반조계 여성들에게 보내졌다.

아venue의 큰 나무들 아래, 기둥으로 된 입구 앞에는 초록빛 달빛처럼 차가운 푸른빛이 비치고 있었다. 입구 앞은 판넬과 포스터들로 어지럽게 가득했다. 통제요원들의 지시에 따라 군중은 이미 홀 안으로 밀려들고 있었다.

열 시가 되자 라울이 초대장을 한 장 들고 나타났다.

그는 쿠르빌에게 명령을 내렸다.

"나를 알아보면 안 돼. 내게 다가와서도 안 되고. 다만 내 주변을 배회해 주게. 그리고 고르제레 쪽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고르제레는 적이었다. 그는 그자를 독처럼 경계했다. 만약 그자가 라울과 대파울을 한꺼번에 처리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는 건 자명했다. 그러니 그자를 눈에서 떼지 말고, 귀에서도 떼지 말아야 했다. 고르제레는 정예 요원들을 거느릴 테고, 그들과 대화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중요한 순간이다. 그가 입 밖으로 내뱉은 말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지 않은 말의 속뜻까지 포착해야 했다.

쿠르빌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턱수염을 앞으로 내밀며 적을 자극하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그가 위엄 있게 말했다. "하지만 제가 경고할 시간도 없이 당신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하죠?"

"두 팔을 쭉 뻗고 턱수염을 모두 동원해 내 퇴로를 지켜주게."

"그들이 그걸 무시하고 지나치려 한다면요?"

"말도 안 돼. 수염이 너무 정중해."

"그렇다면?"

"그럼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야지. 당장 고제레를 풀어줘. 그리고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를 에워싸."

명령을 받은 고제레는 '사교계 인사' 분장에 나섰다. 빛나는, 하지만 너무 타이트해서 어깨선에서 바스락거리는 양복. 열지도 못해 아예 포

기한 구부정한 지붕모자. 밀가루를 뿌려 하얗게 먼지 낀 얼굴. 어깨 위로는 전선 trench-coat 같은 낡은 코트를 단정하게 접어 올렸다.

라울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젠장,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군. 진짜 신사 같아. 완전히 눈에 띄지 않을 거야."

고제레는 또다시 '이 놈이 나를 장난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분노가 담긴 표정이 얼굴을 스쳤다.

"당신의 부하들은?"

"네 명."

고제레는 일곱 명을 데려왔지만, 그렇게 답했다.

"너만큼 완벽하게 위장했나?"

라울이 시선을 두루 둘러보았다. 곧장 일곱 명쯤의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위장한 경찰들이었다. 겉으로는 귀족처럼 차려입었지만, 사실은 모든 시선을 한몸에 받으려는 경찰들이었다.

라울은 곧장 가니마르 형사 앞에 서서 섰다. 형사가 동료들에게 자신을 지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입장객들은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라울이 속삭였다.

"저기 있군."

"어디?" 고제레가 재촉하듯 물었다.

"통제소 근처, 두 부인 뒤에 서 있는 남자. 흰색 실크 목도리를 맨 키 큰 남자가."

고제레가 고개를 돌리며 속삭였다.

"아니야. 저人是 아니야. 그 큰 폴은 아니지."

"그가 맞다. 신사 차림으로 변장했을 뿐이야."

형사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맞는군… 아마도… 그래, 놈이 맞구나!"

"그래, 하지만 그 자리에 있을 때였지, 그렇지? 네가 그를 그런 모습으로 본 적 없어?"

"아… 아… 생각해보니 있는 것 같아. 주사위판 같은 곳에서 말이야. 하지만 나는 그걸 알지 못했어. 그의 진짜 이름은 뭐지?"

"그가 원하면 알려줄 거야. 하지만 불필요한 소동을 피우지 말고, 너무 서두르지나 않게. 그가 떠날 때, 그리고 그가 왜 왔는지 알게 되었을 때 체포해."

고르제레는 자신의 부하들과 상의하러 갔다. 그는 그들에게 거대한 폴을 보여준 뒤, 라울에게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서로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거대한 폴은 왼쪽으로 갔다. 두 사람은 오른쪽으로 향했다.

큰 원형 홀 안은 점점 더 열기로 가득 찼다. 모든 색조의 푸른 빛 줄기 스무 가닥이 얽히고설키며, 서로 부딪치고 섞였다.

테이블 주변에는 필요한 인원보다 두 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빽빽이 몰려 있었다. 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는 한 샴페인 회사가, 손에 들어오는 모든 잔을 채워주었다.

이 공연의 새로운 점은 중앙에 마련된 공간에서 춤을 추었다는 것이다. 춤이 끝날 때마다, 뒤편에 설치된 작은 무대에서 바로 카페콘서트의 한 장면이 시작되었다. 전환은 빠르고 즉각적이었다. 모든 것이 숨막힐 듯하고, 격렬한 리듬에 맞춰 진행되었다. 관객들은 후렴구를 함께 부르며 화답했다.

고르제와 라울은 오른쪽 복도에 서서 프로그램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스무 발짝 앞의 발텍스를 놓치지 않았다. 발텍스는 키가 크다는 걸 최대한 숨기려 어깨를 웅크리고 있었다. 그 뒤로는 고르제의 부하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고, 가니마르 형사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인도인 곡예사들의 공연이 끝나자 홀에서는 탱고가 흘러나왔다. 왈츠 다음에는 희극 코드가 이어졌다. 이어지는 순서에는 공중제비, 노래, 철봉, 그리고 끝없는 춤사위들이 이어졌다.

관중들은 점점 소란스러워졌다. 시끄러운 소리와 가짜 웃음에 취해 흥분한 상태였다. 관중과 광대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향하는 욕설과 고함이 오갔다.

그때 무대 위에 커다란 판넬이 올라왔다. 다채로운 포스터 형식으로, 얼굴에 가면을 쓴 무용수의 날씬한 실루엣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스물 개의 형광 화면이 같은 문구를 알렸다.

« 가면 무용수 ».

관현악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무용수가 무대 뒤에서 튀어나오듯 등장했다. 어깨와 가슴에 리본이 교차하게 묶인 옷차림이었고, 금빛 반짝이가 박힌 푸른 치마를 입었다. 치마는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그녀의 맨다리를 드러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가장 우아한 타나그라 상처럼 고요했다. 매우 가는 금색 거즈가 머리와 얼굴의 일부를 감싸고 있었다. 그 사이로 빛나는 금발의 곱슬머리가 살짝 흘러내렸다.

“크레블로!” 라울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뭐야?” 고페레가 곁에서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만 라울은 그 금발과 실루엣을 열렬한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먼저 아주 부드럽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동작으로 몸을 움직이면서도 자세는 고정된 채였다. 몸의 미세한 떨림 하나

도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다. 그렇게 맨발의 발끝으로 서서 두 번이나 무대 주변을 돌았다.

"아니, 그 큰 폴의 표정을 좀 봐라." 고페레가 속삭였다.

라울은 말문이 막혔다. 남자의 얼굴 전체가 격렬한 집중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강도가 너무 커서 고통스러울 지경이었다. 더 잘 보기 위해 그는 몸을 더 곧게 펴고 있었다. 그의 눈은 가면을 쓴 춤추는 여자에게 미친 듯이 고정되어 있었다.

고페레가 비웃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헤어스타일이 그렇게 흥분시키는 거야? 클라라를 떠올리게 되어서? 아니면…"

그는 뜻밖의 생각을 입 밖으로 내미는 것을 망설였다. 결국 그는 단편적인 말로 마무리했다.

"아니면… 아, 맞다. 바로 그녀일지도 몰라. 네 여자친구, 아니 내 여자친구 말이지. 정말 재미있겠군!"

"당신 미쳤어요!" 라울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하지만 그 역시 첫 순간부터 그 생각이 그를 덮쳤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머리카락과 그 색상이 정확히 닮았고, 곱슬머리의 가벼움도 비슷하다는 사실만 보았다. 그러자 발텍스의 감정이 눈에 띄게 그를 강타했

다. 그는 금빛 가면을 벗겨내고 얼굴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발텍스가 클라의 무용가로서의 재능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그는 다른 무대, 다른 나라에서 그녀가 춤추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어린 듯한 우아함과 꿈결 같은 환상적인 매력에 대해 무지하지 않았다.

"그녀야… 바로 그녀야…" 라울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런데 정말 가능할까?

마르키스 드 에를몽의 딸이라는 소도시 출신 소녀가, 어떻게 그런 지식과 기술을 가질 수 있었단 말인가? 볼니크에서 돌아온 뒤,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여기까지 올 시간이 과연 있었을까?

하지만 그는 반박할수록, 자신의 의구심은 반박의 논리에 무너지고 있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가능한 일들의 연결고리는 가장 논리적인 순서로 하나둘씩 맞춰져 갔다.

아마도 그녀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일 가능성을 맹목적으로 부정해야 할까?

저쪽에서는 관객들의 소동이 점점 커졌다. 그녀도 그 열기에 실려 차츰 생기를 띠었다.

정교한 동작으로 제자리에서 돌았다. 동작은 갑자기 멈췄다, 그러더니 관현악의 박자에 맞춰 또다시 힘차게 재개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가 날카롭게 움직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관객들의 열광이 폭발했다.

아름다운 곡선을 그린 그녀의 가는 다리. 팔보다 더 생동감 있고, 유연하며, 경쾌했다.

고르제레가 말했다.

"큰 폴이 무대 뒤로 슬그머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모양이군."

사실, 복도 끝 오른쪽과 왼쪽에는 경사로가 있었다. 그곳에는 검표원이 무례한 시선을 막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네." 라울이 대장 폴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나서 말했다. "그는 무대 뒤에서 그 여자에게 접근하려 할 거야. 그런데 너, 형사들이 예술가용 출구 쪽에 대기하도록 해. 그 출구는 옆도로에 나있잖아. 비상시에 거기로 뛰어들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어."

고르제레도 그 말에 동의했다. 그는 자리를 떴다.

삼 분 뒤, 형사가 자신의 부하들을 모으느라 애쓰고 있을 때, 라울은 홀을 나섰다.

바깥으로 나온 그는 카지노 건물을 돌아나갔다. 이렇게 하면 형사들보다 앞서 나가는 셈이었다. 그때 쿠르빌이 그를 따라잡아 보고를 올렸다.

"방금 고르제레의 지시를 들었습니다, 각하. 그분은 당신을 체포하고, 가면을 쓴 무용수를 붙잡으라고 하더군요."

라울이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었다. 안무가가 안토닌인지 아닌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고르제에게 확인해 보는 데는 아무런 위험이 없었다. 만약 그 여자가 안토닌이라면, 그녀는 경찰과 거대한 폴 사이에 끼여 완전히 끝장날 운명이었다.

라울은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무서웠다. 거대한 폴의 딱딱하고 위협적인 얼굴빛을 보고, 그 악당이 안토닌과 마주친다면 어떤 잔혹한 짓도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기 때문이다.

라울과 쿠르빌은 작은 현관문을 지나쳤다. 라울이 경비원에게 신분증을 내보이며 "경찰입니다"라고 말했다. 경비원은 그제야 물러섰다.

계단과 복도를 따라가자 예술가들의 대기실로 이어졌다.

그때, 그중 한 로지에서 무용수가 나왔다. 박수갈채가 이어지는 동안, 그녀는 두 번째 무대 번호를 위해 큰 샤를 다시 가져오러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무대 뒤를 점령한 검은 정장들을 피해 슬그머니 몸을 비볐다. 그녀가 무대로 돌아오자,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다. 라울은 일어나서 열광적인 함성을 지르는 관객 전체를 직감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그는 큰 폴이 자신 옆에 서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폴은 이 여자의 지나감에 충격을 받아 주먹을 꽉 쥐고 이마의 정맥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이 순간, 라울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바로 그녀라고. 그리고 그는 불쌍한 그녀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을 진심으로 느꼈다.

고르제레의 눈길을 찾았다. 저 멍청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전장이 바로 저 좁은 공간 안에 있다는 걸,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와 부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걸까?

그는 주저 없이 싸움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적의 맹목적인 위협을 자신에게로 돌리려 했다.

그는 발텍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발텍스가 돌아서자, 그제야 그에게서 증오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던 라울의 비웃는 듯한 얼굴이 보였다.

"당신…… 당신……"

그가 악의에 찬 표정으로 속삭였다.

"당신이 그녀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그녀를 따라가는 거지?"

그는 자신을 억눌렀다. 비록 그들은 군중 뒤쪽에 서 있었지만, 주변은 오가며 움직이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무언가를 보려 애쓰는 이들도

있었고, 무대 직원과 의상 담당 여자들까지 섞여 있었다. 목소리가 조금만 높아져도 바로 들릴 판이었다.

라울은 같은 어조로, 그러나 낮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함께 가고 있어. 그녀가 나를 보호해 달라고 부탁했지. 누군가 그녀를 쫓아다닌다는 소문이 돌거든. 내가 얼마나 재밌는지 상상해 봐."

"왜 재미있다는 거야?" 다른 남자가 포효하듯 물었다.

"내가 무언가 시작하면 항상 성공하기 때문이야. 습관이지."

발텍스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성공했다는 거야?"

"물론이지."

"장난이냐? 네가 성공한 건 내가 죽고 나서야 될 거야. 하지만 나는 살아 있고, 여기 있잖아!"

"나도 여기에 있어. 방금 전에는 지하 창고에 있었지."

"뭐?! 무슨 소리야?"

"저기서 조키 분장한 건 나였어."

"빌어먹을!"

"그리고 경찰을 불러 네가 숨어 있는 곳을 들켜버린 것도 나야."

"실패했지." 상대가 웃으려 애쓰며 말했다.

"아까는 실패했지. 하지만 오늘 밤, 이 일은 다 끝난 거야."

발텍스가 그에게 몸을 바짝 붙이며 눈앞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뭐라고 떠드는 거야?"

"고르제와 그 무리가 여기 있어."

"거짓말!"

"정말이야. 너한테 알리는 거야. 얼른 도망치라고. 빨리. 당장 꺼져. 시간 있어…"

발텍스가 초조한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쫓기는 짐승 같은 표정이었다. 물론 그는 도망친다는 생각을 받아들였다. 라울은 안도했다. 무엇보다 안토닌의 안전이 우선이었으니까. 발텍스가 사라진다면, 경찰로부터 그 젊은 여자를 지키는 건 별일 아니었다.

"가, 얼른 가. 말처럼 빨리 달리고."

"제발, 남아서 죽자고 하진 마."

"달려."

이미 늦었다. 무용수가 나타났다. 그녀는 무대 밖으로 힘차게 뛰쳐나왔다.

그와 동시에, 계단에서 내려오며 예술가들의 로브를 지나 달리는 고르제와 그 뒤를 따르는 다섯 명의 형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고르제는 적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발텍스는 얼굴을 찌푸리며 잠시 망설였다. 다가오다 멈춰 선, 두려움에 떠는 듯한 무용수를 바라보았다. 이어 단 다섯 여섯 걸음 앞까지 다가온 고르제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라울이 그에게 덤볐다. 그는 몸을 비틀어 빠져나와, 허둥지둥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권총을 꺼내 무용수를 겨눴다.

소동이 극에 달한 순간, 총성이 울렸다. 라울이 재빠르게 팔을 들어올렸다. 총알은 아마도 배경 소품들 사이로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무용수는 기절하며 쓰러졌다.

일어난 일은 고작 십 초쯤 지속되었을 뿐이다.

사람들이 뒤섞이며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 틈을 통해 고르제트가 거구 폴을 덮쳐 팔로 그를 감싸 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동시에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나한테 와, 플라망! 나머지는 라울과 무희를 붙잡아!"

뚱뚱수염 하얀 작은 신사가 나타나, 다리를 벌리고 분노에 찬 표정으로 경찰들을 막아섰다. 그는 경찰들의 무자비한 행위에 항의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때 매우 세련된 차림의 한 신사가 나타났다. 그는 이 개입과 일어난 혼란을 틈타, 금빛 가면을 쓴 무용수를 바닥에서 끌어올렸다. 그리고는 그녀를 어깨에 업었다.

그는 라울이었다.

쿠르빌의 거침없는 용기에 보호받으며, 그는 공격자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군중의 물결이 그들을 늦출 테니까. 라울은 자신의 짐을 안고 객석 쪽으로 향했다. 그곳이라면 퇴각이 가능해 보였다.

그는 맞았다. 객석에서는 무대 뒤에서 벌어진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흑인 재즈 밴드가 유머러스하게 탱고를 힘차게 불렀다. 춤은 다시 이어졌다. 사람들은 웃고 노래했다.

그때 라울이 오른쪽 램프를 막히고 있는 검은 정장들 사이로 나타나더니, 천장을 향해 팔을 쭉 뻗은 채 한 여자를 안고 내려왔다. 사람들은 그 여자가 바로 가면을 쓴 무용수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다.

관중들은 이를 장난이나, 신사 차림의 곡예사가 허락한 포로를 안고 객석을 거니는 묘기라고 생각했다. 좌석 사이가 그에게로 열렸다가, 다시 좁아지며 다른 이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는 듯 적대감으로 가득 찼다. 의자와 테이블이 치워졌다.

그런데 무대 깊은 곳에서 외침이 들려왔다.

"잡아라! … 잡아라!"

웃음소리는 더 커졌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장난이라고 확신했다. 재즈 밴드가 온몸을 기울여 열렬히 연주했다. 모든 악기가, 모든 목소리가 한껏 고조되었다. 그 흐름을 막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미소를 띠고, 힘들이지 않은 듯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운동을 계속했다. 열광하는 군중의 박수가 그를 따랐다. 그는 입구 홀의 문까지 그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 중 한 명이 그의 앞으로 밀려났다. 그는 밖으로 나섰다. 관객들은 그가 카지노를 한 바퀴 돌아 무대 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뜻밖의 장난에 신이 난 검표원들과 경찰들은 그를 막지 않았다.

하지만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는 춤추던 여자를 어깨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어깨에 업었다. 그리고 나무들 아래로 드리운 빛과 그림자 사이를 가로지르는 옆길로, 발걸음을 재촉하며 달리기 시작했다.

카지노에서 오십 보쯤 떨어진 곳, 그는 여전히 경보를 알리는 비명을 들었다.

"멈춰라! 멈춰라!"

그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다. 그의 차는 길게 늘어선 차량 줄 한복판에 서 있었다. 운전자들은 잠들거나 무리를 지어 수군거렸다. 그들

은 비명을 들었지만,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다. 의아해하고 놀랐지만, 움직이지는 않았다.

라울은 의식을 잃은 채, 적어도 움직이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는 그 무용수를 차에 태웠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다. 다행히도 엔진은 곧 살아났다.

'행운만 따른다면, 교통 체증도 없겠지. 성공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행운은 늘 고려해야 할 변수다. 라울의 원칙 중 하나였다. 이번에도 행운은 그 편에 서주었다. 교통 체증은 없었고, 출발했을 때 불과 스무 발짝 뒤뿐이었던 경찰들은 순식간에 뒤처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 달렸다. 또 다른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운을 너무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는 콩코르드 광장에 도착해 센 강을 건넜고, 강을 따라 내려갔다. 적이 닿지 않는 거리가 되자, 그는 속도를 줄였다.

'호, 다행이다. 이제야 한숨 돌린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는 무작정 행동에 뛰어들었지만, 이제야 문득 의문이 들었다.

'만약 안토닌이 아니라면?'

그를 행동으로 몰아세웠던 확신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하지만 아니었다. 절대 그녀가 아닐 것이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 많았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그녀가 범인이라고 받아들였지만, 그 사실에 반하는 증거들은 하나같이 견고했다. 반면 그녀가 범인임을 증명하는 긍정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거대한 폴은 미친 것이었다. 정신이 나간 자였다. 그의 격앙된 감정은 진실을 가리키는 기준이 될 수 없었다.

라울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여자의 신비로움이 그를 혼란스럽게 할 때면, 그는 왜 이렇게 순진한 태도를 보일까? 진짜 고등학생 같았지만, 그 고등학생은 모험에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안토닌이든 다른 사람이든, 어차피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구했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조화로운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가 그에게 무엇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그는 다시 속도를 높였다.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를 자극했다. 왜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자물쇠처럼 단단히 막는 망사로 가렸을까? 그녀의 몸에서 나오는 신성한 아름다움이 왜곡된 특징이나 끔찍한 병 때문에 망가지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 그녀가 정말 아름다우면, 왜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을까? 어떤 이상한 이유, 두려움, 불안정성, 변덕, 사랑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는 다시 센 강을 건넜다. 강변 도로를 따라 다른 쪽 강가로 들어섰다. 오트유. 시골 같은 거리들. 그러다 넓은 대로가 나타났다.

그가 차를 멈췄다.

그의 포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굽혀 그녀에게 물었다.

"일어서서 탈 수 있겠소? 내 말 들리시오?"

대답은 없었다.

그는 정원의 철문을 열고 초인종을 누른 뒤, 무녀를 두 팔로 안아 가슴에 꼭 붙였다. 그녀가 자신의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 자신의 입술과 아주 가까이에 그녀의 입술이 있다는 예감, 그리고 그녀의 숨결을 맡는 순간, 그는 도취감에 휩싸였다.

"아, 너는 대체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그는 갈망과 호기심으로 몸이 떨리며 속삭였다. "안토닌인가? 아니면 외국 여인인가?"

그의 하인이 나타났다.

"차를 차고로 가져가라. 나만 남겨두라."

그는 별장에 들어섰다. 가벼운 짐을 든 듯 가볍게 계단을 올랐다.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포로로 잡힌 그녀를 소파 위에 눕혔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금빛 가제천을 풀어주었다.

그는 기쁨의 비명을 터뜨렸다.

"안토닌!"

몇 분 정도가 흘렀다. 그는 그녀에게 소금을 맡겼고, 이마와 관자놀이에 찬물을 적셔 주었다. 그녀는 눈을 살짝 떴다.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안토닌! 안토닌!" 그는 경탄하며 반복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미소 속에는 쓴맛이 섞여 있었지만, 그 깊고 진한 애정만큼은 분명했다.

그는 그녀의 입술을 찾았다. 그녀는 볼니크의 살롱에서 그랬듯 그를 밀어낼까? 아니면 받아들일까?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제12장

주인방 두 사람은 방 안의 작은 원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끝내고 있었다. 창문은 정원을 향해 열려 있었고, 꽃망울을 터뜨린 회양목 향기가 실내로 스며들고 있었다. 좌우로 우뚝 선 마로니에 나무 사이로 도로가 보였고, 그 위로는 해가 눈부시게 빛나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라울이 말을 이어갔다.

그의 승리에 찬 기쁨이 넘쳐흘렀다. 고르제에게, 그리고 대(大) 폴에게, 그리고 사랑스러운 클라라에게 이겼다는 기쁨이었다. 그 기쁨은 코믹한 과잉으로, 유쾌한 낭만주의로, 그리고 거침없는 자랑으로 분출되었다. 그는 말수가 많아졌고, 그 말들은 기이하면서도 매혹적이고, 순진하면서도 냉소적이었다.

"또 말해줘요… 계속 말해줘요."

그녀는 그의 눈을 떼지 못한 채 간청했다. 그 눈에는 젊은 날의 해맑은 웃음과 깊은 우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가 이야기를 끝내자, 그녀는 재차 독려했다.

"말해 봐. 자세히 들려줘. 내가 이미 아는 내용이라도 괜찮아. 자, 볼니크 성터에서 고르게레와 벌인 일부터 시작해 봐. 살롱에서 벌어진 경매 이야기, 그리고 자작과 나눴던 대화도."

"하지만 그건 네가 다 보고 있었잖아, 안토닌!"

"상관없어. 네가 한 일, 네가 한 말이 다 궁금해. 더구나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

그녀가 물었다.

"그래, 정말 밤중에 내 방에 올라왔어?"

"내 방에."

"그리고 내 곁까지 오지 못했지?"

"물론이지! 네가 무서웠어. 볼니크 성에서 네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전에, 자작을 먼저 들렀지?"

"네 godfather인 자작 댁에 들렀지. 네가 그에게 건넸던 네 어머니의 편지를 확인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드디어 네가 그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나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어머니의 사진을 그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파리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요. 기억나시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다시 시작해 보세요. 설명해 주시라고요."

그는 다시 시작했다. 설명을 했고, 몸짓으로 표현했다. 그는 곧장 우스꽝스럽고 딱딱한 오디가르 선생이 되더니, 곧이어 불안하고 당황한 에를르몽으로 변했다. 그리고는 우아하고 유연한 안토닌이 되기도 했다.

그녀가 반박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식이 아니라고요."

"그전에는 그랬어요. 그제와 제가 계셨던 날에도요. 그 작은 표정이 있었고, 또 다른 표정도 있었죠. 보세요, 이렇게요."

그녀는 웃었지만, 양보하지 않았다.

"아니요… 당신도 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하지만 그래, 내가 알지. 너의 오늘 아침 모습을. 눈은 반짝이고 이빨은 하얗게 빛나고. 그날의 시골 소녀도, 성의 어린 아이도 아니야. 내가 보려 하지 않았지만 짐작했던 그 아이도 말이야. 너는 달라졌지만, 변함없는 그 소박하고 정숙한 표정은 그대로야. 그리고 어젯밤 알

아챘던 금발도, 무용수 복장을 입은 그 우아하고 다정한 전체적인 실루엣도."

그녀는 여전히 그 무용수 복장을 입고 있었다. 리본으로 장식된 가슴 부분과 별이 박힌 푸른 치마. 그는 그녀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자, 곧장 안아들었다.

"맞아요. 당신이 그토록 매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이미 꿰뚫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면을 쓰고 계실 때면, 당신을 찾아 헤매기 바빴죠. 그리고 가면을 벗길 때면 두렵기 그지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당신이었어요. 바로 당신이었죠! 그리고 내일도, 우리 이곳을 떠난 후 평생 동안에도, 당신은 오직 당신일 거예요."

가볍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오세요!"

가사였다. 그는 신문 몇 장과 몇 통의 편지를 들고 들어왔다. 편지는 이미 열어보고 쿠르빌이 분류해 둔 것이었다.

"아, 완벽하군. 이제 블루 카지노와 고르제, 그리고 대 폴에 대한 기사들을 살펴볼까. 아마 크레비즈 바에 대한 소식도 있을 테고. 정말 역사적인 하루였군."

가사가 나가자, 라울은 곧장 신문으로 눈을 돌렸다.

"이봐, 우리 이름이 1면에 실렸네…"

그는 제목을 한눈에 본 순간 얼굴이 굳었다.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투덜거렸다.

"아, 바보들! 그 고르레가 왜 이리 멍청한 거야!"

그리고는 반쯤 속삭이듯 글을 읽었다.

'대(大) 폴이 몽마르트르의 바에서 벌어진 단속을 피해 도망친 지 얼마 안 되어, 블루 카지노 개장식에 참석했다가 다시 체포되었다. 그는 주경비 고르레 형사와 그 일당에게 다시 손아귀에 잡혔다.'

"아!" 그녀가 놀라 외쳤다. "무서워요!"

"무서워?" 그가 말했다. "왜 그래? 그는 언젠가 또 잡히게 돼 있어. 그건 내가 맡을게."

그 탈옥은 그에게 깊은 고통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위험한 도둑이 다시 자유를 얻자, 안토닌은 다시 쫓기게 되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적에게서 생명을 위협받았다. 그 적은 분명히 기회를 엿보며 그녀를 쓰러뜨릴 것이다.

그는 기사를 다시 훑어보았다. 기사에는 아랍인 몇몇과 그 주변 부하들이 체포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잡았다고 크게 떠들었다. 또한 가면을 쓴 무용가를 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녀가 관

중 중 한 명에게 납치되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 관중은 경쟁자로 의심받았지만, 라울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단서는 없었다.

마스크를 쓴 무희는 아무도 그 정체를 본 적이 없었다. 카지노 총괄은 한 베를린 에이전시를 통해 그녀를 영입했다. 그 에이전스에 따르면, 그녀는 지난겨울 마스크 없이 무대에 올랐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총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틀 전, 그녀는 알 수 없는 곳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출연하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얼굴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죠.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관객의 관심을 더 끌 것이라 생각해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를 직접 심문할 생각도 했죠. 하지만 그녀는 밤 8시가 되어서야 도착했고, 온몸을 가린 채로 자신의 탈의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말았습니다."

라울이 물었다.

"이 이야기가 모두 사실입니까?"

"네, 클라라가 말했다."

"그동안 얼마나 춤을 추었니?"

"난 항상 내 즐거움을 위해, 남에게 들키지 않도록 춤을 추었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옛 무용수에게 레슨을 받고 여행도 다녔지."

"클라라, 그때 네 삶은 어땠니?"

"나를 묻지 마. 난 혼자였고, 많은 남자에게 관심을 받았어. 항상 자신을 지킬 줄 알았던 건 아니야."

"그 '대형 파울'을 어디서 만났니?"

"발텍스? 베를린에서였지. 난 그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는 내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어. 그래서 그를 경계하지 않았던 거야. 어느 날 밤, 그가 자물쇠를 부수고 방에 들어와 나를 덮쳤어. 힘에서 그가 이겼지."

"역적이로구나! …그런 일이 오래갔니?"

"몇 달 정도였어. 그 후 파리로 와서, 그는 한 사건에 연루됐어. 경찰이 그의 방을 포위했던 거지. 난 그와 함께 있었고, 그래서 '대형 파울'이 누군지 알게 됐어. 그는 몸부림쳤지만, 나는 공포에 질려 도망쳤지."

"그럼 당신은 지방으로 피신한 거야?"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도 해보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어요. 재산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카지노에 내가 오겠다고 미리 연락을 했죠."

"하지만…… 마르키스를 방문한 이유는 무엇이었어?"

"마지막으로라도 나쁜 생활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싶었죠."

"그래서 볼니크로 간 거군요?"

"네. 그리고 어젯밤, 파리에서 혼자 있다가 생각 없이 극장으로 향했어요. 춤을 추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약속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건 단 이틀 동안의 약속이었지만요. 더 이상은 원치 않았어요.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제 두려움은 정당했던 거예요."

"아니야," 그가 말했다. "내가 여기에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너도 여기 있잖아."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가 속삭였다.

"정말 이상한 꼬마네. 너무 뜻밖이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그들은 그날과 이틀 뒤까지 별채를 떠나지 않았다. 신문을 펼쳐 들고 사건 관련 기사를 모두 읽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은 대부분 엉터리였다. 이번에도 경찰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실과 일치하는 추측은 단 하나였다. 가면 쓴 무용수는 과거 폴 대령 사건 때 언급되었던 '금발의 클라라'일 것이라는 점이었다. 발텍스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고르제와 부하들은 상대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다. 아랍인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뽑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매일이 지나갈수록 라울과 그의 애인 사이에는 더 깊은 정과 열정이 싹텄다. 라울은 그녀가 던지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하며, 끊이지 않는 그녀의 호기심을 채워주려 애썼다.

반면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신비로움 속에 몸을 감추었다. 마치 가장 편한 피난처로 숨어드는 것처럼 말이다. 그녀 자신에 관해서, 과거에 관해서, 어머니에 관해서, 현재 걱정하는 일에 관해서, 숨겨진 영혼에 관해서, 후작에 대한 그녀의 의도에 관해서, 그리고 후작 앞에서 그녀가 맡고 있는 역할에 관해서.

그녀의 대답은 오직 침묵뿐이었다. 야생적이고, 완고하며, 고통스러운 침묵. 혹은 회피와, 고백을 시도했다가도 금세 무산되는 시도들뿐이었다.

"아니야, 라울. 제발 내게 묻지 마. 내 삶과 생각에는 아무런 재미도 없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줘."

"하지만 정작 난 네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그럼 내가 보이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줘. 하지만 사랑해 줘."

그녀가 이 말을 건넨 날, 그는 그녀를 거울 앞으로 데려가 농담조로 말했다.

"오늘 너는 놀랄 만큼 아름다운 머리, 끝없이 맑은 눈, 그리고 나를 흠뻑 취하게 만드는 미소를 하고 있군.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도 지니고 있어. 내 생각엔…… 너 미워하지 않겠지? 네 상큼한 얼굴 전체가 부정할 만큼의 생각들이 스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내일 또 다른 너를 보게 될 거야. 머리카락과 눈은 같지만, 미소는 다르고 표정도 달라져. 그때는 모든 것이 순진하고 건강해 보일 거야. 이렇게 너

는 순간순간 변해. 어느 때는 시골에서 올라온 소녀 같다가, 어느 때는 운명에 이미 흔들리고 괴롭힘을 당한 여인이 되곤 하지."

"사실이에요. 저 안에는 두 명의 여자가 살고 있어요."

"그래, 맞지. 서로 싸우는 두 여자라고. 때로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밀어내기도 하고."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두 여자의 미소는 다르거든. 네 모습 두 가지가 다른 건 바로 그 미소 때문이야. 한쪽은 순진하고 청초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다른 한쪽은 더 쓴맛이 나고 세상 물정을 다 안 듯한 냉소적인 미소잖아."

"당신은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라울?"

"어제 밤부터는 두 번째 여자를 좋아해. 더 신비롭고 더 어두운 그 여자를."

그녀는 침묵했다. 그러자 그는 가볍게 그녀를 불렀다.

"안토닌? 아니면 두 미소의 여인?"

그들은 열린 창가까지 걸어갔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라울,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미리 말해두지만, 네."

"그럼, 제 이름을 안토닌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는 놀랐다.

"안토닌이라고 부르는 걸 멈출까?"

"왜?"

"그건 내가 살던 지방의 소도시 소녀 이름이었어. 나는 그 이름 아래에서 인생을 향해 순수하고 용감하게 살았지. 하지만 그 이름은 잃어버렸어. 클라라, 클라라 블롱드라고 불리게 되었으니까."

"그게 어쨌다는 거야?"

"나를 클라라라고 불러줘. 내가 다시 내가 되기를 원할 때까지."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다시 네가 되길 원해? 미친 짓이야, 사랑하는 이여! 네가 그 지방 소녀로 남아 있었다면, 지금 여기 있지 않았을 거야.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을 테고."

"다시 너를 사랑하지 않겠어, 라울!"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너는 너야." 그녀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정말 그런 줄 믿어? 난 확신이 없어. 내가 겪은 인격이 너무 많고, 연기한 역할이 너무 많아서, 정작 나 자신을 알아볼 수가 없거든. 들어봐, 클라라야—네가 그렇게 부르길 원하니까—나 앞에서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 네가 뭘 했든, 난 그보다 더한 짓을 했으니까."

"라울……"

"하지만 그래. 내 같은 모험가의 삶은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거든. 아르센 뤼팽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어?"

그녀가 몸이 떨렸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비교를 위해 생각했을 뿐이지… 하지만 네 말이 맞아. 우리 둘 다 자책할 필요가 없잖아. 클라라와 안토닌은 둘 다 부드럽고 순수해. 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건 너야, 클라라. 내가 나쁜 놈일지라도, 좋은 사람이고 연인임에는 틀림없어. 항상 충실하진 않겠지만, 매력적이고 세심하며 좋은 점 투성이야."

라울은 키스하며 웃었다. 입맞춤마다 한 번씩 반복했다.

"클라라… 부드러운 클라라… 슬픈 클라라… 신비로운 클라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방금 네가 말했잖아. 너는 변덕스러운 놈이야. 주님, 당신이 저지르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

"하지만 네가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 그가 경쾌하게 말했다. "게다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어. 내가 너를 속인 적이 있니?"

그녀도 웃음을 터뜨렸다.

일주일 동안 대중과 신문들은 블루 카지노 사건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수색이 헛수고로 끝났고 모든 추측이 차례차례 무너지자, 이내 이话题는 잊혔다. 고르제레는 어떤 인터뷰도 거부했다. 기자들은 단서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다.

걱정이 덜해진 클라는 오후 늦게 외출했다. 외곽 상가에서 장을 보거나, 부아 드 부아롱에서 산책하기도 했다. 라울도 이 시간을 택해 약속장소를 찾았다. 그는 주목을 끌까 봐 그녀를 동행시키지 않았다.

가끔 그는 볼테르 강변을 지나며 63번지 앞을 내려다보곤 했다. 거대한 폴이 근처를 배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경찰도 때때로 그곳에 함정을 놓았을 테니까.

그는 수상한 기미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 임무를 쿠르빌에게 맡겼다. 강변 난간 위에 자리 잡은 노점상들의 서점에서 책을 뒤적이며 감시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클라라 납치 후 열다섯째 날이었다. 그가 직접 현장을 찾았을 때였다. 그는 멀리서 클라라가 63번지 건물을 나와 택시에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택시는 반대 방향으로 사라져 갔다.

라울은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는 쿠르빌에게 신호를 보냈고, 쿠르빌이 달려와 합류하자 그는 그를 파고슈의 하녀에게로 보냈다.

몇 분 뒤 쿠르빌이 돌아와 보고했다. 후작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금발의 젊은 여성이 같은 시각 두 차례나 하녀 숙소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고 했다. 그녀는 후작의 집 문도 두드렸지만,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탓에 결국 발길을 돌렸다고 했다.

'참 신기하다.' 라울은 생각했다. '그녀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

라울은 오트유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돌아갔다.

십오 분 뒤, 클라라가 들어왔다. 그녀는 상쾌한 표정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라울이 물었다.

"부아 드 부아에서 산책했어?"

"응." 클라라가 대답했다. "공기가 내게 정말 좋았어. 걷는 게 너무 행복했어."

"파리에는 가지 않았어?"

"아니야.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

"내가 거기서 너를 봤거든."

그녀는 거리낌 없이 말했다.

"나를 봤다고? 상상 속에서 말이지!"

"아니야. 말 그대로 살과 뼈를 가진 너였어."

"말도 안 돼."

"내가 확실히 말하고 있는 거야. 내 눈은 절대 속이지 않으니까."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진지하게, 심지어 다소 무겁게 말하고 있었다. 목소리에는 책망하는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어디서 나를 봤어, 라울?"

"발르강변의 저택에서 네가 나와서 마차로 떠나는 걸 봤어."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확신해?"

"물론이지. 관리인에게 물어봤더니, 네가 그곳을 세 번째로 방문한 거라고 하더군."

그녀는 얼굴이 벌게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라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런 방문은 별 다를 바 없어. 그런데 왜 나한테 숨기려고 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그는 그녀 곁에 앉아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또 네 비밀이야, 클라라. 정말 잘못했어! 네가 그토록 의심에 차 있는 줄 알았으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 의심이 우리를 둘 다 어디로 이끌지 너는 알아? 한 번만 솔직하게 말해 줘, 내 사랑."

"오, 난 당신을 의심하지 않아요, 라울!"

"아니, 의심하는 척만 할 뿐이지. 그러는 사이 위험은 점점 쌓여가. 이제야말로 솔직하게 말해 봐. 언젠가는 네가 숨기려던 걸 내가 알게 될 거야. 그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 말해 줘, 내 사랑."

그녀는 그제야 말에 따르려 했다. 잠시 얼굴의 긴장이 풀리더니, 눈에는 슬픔과 당혹감이 서렸다. 곧 내뱉게 될 말들을 미리 두려워하는 듯했다.

하지만 끝내 그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통곡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말하든 말든,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도, 앞으로 일어날 일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당신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일 테지만, 저에게는 너무 큰 일이에요.

남자들은 잘 모르죠. 여자들은 아이 같은 존재예요. 괜한 생각에 사로잡히곤 하니까요. 제가 잘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는 성급한 듯 손을 저었다.

"좋아요, 내가 말해."

"하지만 너는 그곳에 다시 가지 말아. 그렇게 해 줘."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그곳에서 큰 폴이나 경찰 중 한 명을 만나게 될 거야. 네가 그런 걸 원하느냐?"

그녀는 즉시 걱정했다.

"당신도 가지 마요. 당신도 나랑 같은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는 약속했다. 젊은 여성은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라울이 정한 출국 날짜가 될 때까지 열흘 동안 별장에 나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제13장

라울은 볼테르가(街)의 저택이 감시받고 있다고 단언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감시는 규칙적이고 꾸준하지 못했다. 만약 감시가 철저했다면, 라울이 두려워하던 충돌은 곧바로 벌어졌을 터였다.

경찰 관점에서 고르제에게 있었던 실수는, 그가 볼테르가에서 짧은 시간만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부하들에게 명령 실행에 지나치게 많은 재량을 허용했다.

그 결과, 금발의 아가씨를 방문하는 일도, 쿠르빌의 자주—but 위험한—순찰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게다가 고르제에게 배신당한 것은 하녀였다. 하녀는 쿠르빌을 통해 라울로부터, 그리고 한 동료를 통해 발텍스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다. 하녀는 고르제에게 모호하고 서로 모순되는 정보만 건넸다.

발텍스의 감시는 더욱 빡빡해졌다.

오전 10시가 되면, 바로 옆 거리에는 한 화가가 나타나 자신의 화구를 펼쳤다. 그는 넓은 챙의 모자를 쓰고, 회색빛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허리를 구부정한 채로 다녔다. 손에는 페인트 상자와 이젤, 접이식 의자를 들고 있었다.

그는 50미터 떨어진 에를몽 호텔 맞은편 인도에 자리 잡자마자, 캔버스에 두꺼운 물감을 바르기 시작했다. 그가 그린 것은 센 강변과 루브르 박물관의 실루엣을 재현하려는 시도였다.

그 화가는 바로 '거대한 폴'이었다. 실체는 발텍스였다.

경찰은 그의 옷차림이 더욱 기괴할수록, 그의 그림이 더 많은 구경꾼을 끌어들일수록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대한 폴'은 오후 5시 30분쯤이면 사라졌다. 그는 아름다운 금발 여자를 보지 못했다. 그녀가 도착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나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그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울이 찾아온 다음 날이었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마지막 붓터치를 하고 있었다. 그때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움직이지 마세요. 소스테느입니다."

그들 주변에는 서너 명이 모여 있었다. 한 명씩, 둘씩 떨어져 나갔다. 또 다른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다.

낚시꾼 같은 풍채의 거구 중산층 남자, 소스테느는 발텍스에게만 들릴 만큼 낮게 중얼거렸다. 그는 마치 식견 있는 평론가처럼 그림에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오후 신문을 읽어보셨나요?"

"아라브를 다시 심문했습니다. 당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당신을 배신하고, 카지노 블뢰의 위치를 누설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당신을 저버리는 행위를 거부하고 있죠. 발텍스의 이름도, 라울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쪽 문제는 일단락된 셈입니다."

소스테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림을 다른 각도에서 살피고, 센 강을 향해 한참을 응시한 뒤 다시 고개를 숙였다. 손에는 돋보기를 들고, 간격을 두고 여러 곳을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마르퀴가 후그레Switzerland에서 돌아온다. 어제 왔던 그 소녀가 경비 아줌마에게 말해, 아줌마가 하인들에게 다시 전한 거야. 그러니까 그 소녀와 마르퀴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야. 그녀가 어디 사는지 알아낼 수 없어. 코르빌은 또 몇 가구를 옮겼고, 내가 직접 그가 맞다는 걸 확인했어. 그러니까 그는 라울 씨와 함께 일하고 있고, 경비 아줌마 말에 따르면 그 근처를 자주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 화가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붓을 공중으로 쭉 들어 올렸다. 무언가를 재는 듯한 제스처였다.

동조자는 그 동작을 신호로 여겼다. 그는 지시한 쪽을 힐끔 살펴봤고, 담장 난간 위에 진열된 책을 뒤지고 있는 낡은 옷차림의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이 고개를 돌리자, 하얗고 각진 턱수염이 드러났다. 그 수염은 너무도 완벽해서, 누군지 분간하기 어려울 리가 없었다.

소스테느가 속삭였다.

"봤어. 쿠르빌이야. 내가 이 녀석을 따라붙을게. 오늘 밤 어제 그 주점 앞에서 만나자."

그는 물러서면서도 서서히 쿠르빌 쪽으로 다가갔다. 쿠르빌은 분명히 뒤를 쫓는 자의 발자취를 끊기 위해 몇 차례 방향을 틀며 우회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느라 정신이 팔려 있지 않았다. 오직 다른 생각에만 잠겨 있었으니까. 그는 큰 폴이나 그 동료를 눈치채지 못한 채, 낚시꾼처럼 보이는 부르주아를 끌고 오트유 쪽으로 사라져 갔다.

큰 폴은 한 시간이나 기다렸다. 하지만 클라는 그날 밤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고르제트의 그림자가 지평선 너머로 나타났다. 큰 폴은 재빨리 화가의 장비를 수거해 도망쳤다.

그날 저녁, 그의 무리들은 몽파르나스의 '르 땋 비스트로'에 모여들었다. 그곳은 이제 그들의 옛 거점, '에크레비즈' 술집을 대신하는 곳이었다.

소스테느가 그들에게 합류했다.

"됐군." 그가 말했다. "그녀는 오트유의 마로크 거리 27번지에 있는 별장에 산다. 쿠르빌이 정문 채도를 두드리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

"여덟 시 사십 분쯤 되자, 그 여자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과정은 똑같았다. 그녀가 채도를 두드리자 정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 남자는 봤나?"

"아니. 하지만 의심할 여지는 없다."

대장 폴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론을 내렸다.

"그래도… 행동에 나서기 전에…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다."

"내일 아침 열 시에 차를 가져다다오. 그리고 내게 맹세해라. 만약 내가 맞다면, 클라는 이번에도 빠져나가지 못할 거다. 아, 이 여우새끼! 나를 장난감처럼 놀렸구나!"

다음 날 아침, 택시 한 대가 큰 폴이 묵고 있는 하숙집 앞에 멈췄다. 그는 차에 올랐다. 운전석에는 배가 나온 붉은 얼굴의 공범 소스테느가 모자를 이마에 눌러쓴 채 앉아 있었다.

"출발!"

운전수는 솜씨가 좋았다. 그들은 순식간에 오퇴이와 마로크 대로에 도착했다. 이 길은 어린 나무들이 늘어선 넓은 도로로, 최근에 개발된 옛 정원과 영지들 사이를 가로질러 뻗어 있었다. 라울의 별장은 이런 옛 재산들 중 하나에서 남은 흔적이었다.

차량은 조금 더 가서 멈췄다. 택시 안에 꼼짝 없이 숨어 있던 큰 폴은 뒷유리를 통해 서른 걸음 떨어진 곳에서 별장의 철문과 첫 번째 층의 창문을 볼 수 있었다. 두 곳 모두 열려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운전수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들은 가끔씩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다.

큰 폴은 화가 났다.

"씨발! 그 별장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군. 한 시간째 아무도 움직이는 기척이 없어."

"하하, 당연하지." 뚱뚱한 남자가 비웃듯 말했다. "사랑하는 사이라면, 일어나는 게 급할 리가 없지."

스무 분이 더 흘렀다. 그리고 열한 시 반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 이 여우야." 큰 폴이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며 이를 갈았다. "그 놈도! 아, 이 불쌍한 놈이!"

창문 중 하나에서 라울과 클라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작은 발코니 난간에 팔을 기대고 섰다. 서로를 꼭 껴안은 두 사람의 상반신과, 미소 짓는 행복한 얼굴들, 그리고 금발 클라라의 빛나는 머리카락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봐, 가자." 큰 폴이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진 채 명령했다. "이놈들, 충분히 봤어. 이 간계수!… 이건 곧 그들의 사형 선고야!"

자동차가 엔진을 울리며 출발해, 인구가 밀집한 오트유이 지역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멈춰!" 큰 폴이 소리쳤다. "나를 따라와."

그는 인도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두 사람은 드문 손님들만 있는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보드카 두 잔…… 그리고 글 쓰는 데 필요한 거 다 줘!" 그가 명령했다.

오랜 시간 그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입술은 굳어 있었고, 표정은 사나웠다. 그러다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자신의 계획을 이어 나갔다.

"그래…… 맞아…… 그래…… 그녀는 함정에 빠질 거야…… 이미 준비됐어…… 그녀가 그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함정에 빠질 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그녀를 잡는 거지. 그녀는 굴복할 거야. 만약 안 한다면, 그건 그녀 탓이야!"

침묵이 흘렀다. 그가 물었다.

"아쉽군. 그의 필체를 내가 하나도 못 가지고 있잖아. 너도 없니?"

"없어. 하지만……"

"하지만 뭐?"

"저층 사무실 책상에서 훔쳐 온, 쿠르빌의 편지가 하나 있어."

큰 폴의 얼굴에 빛이 돌았다.

"줘."

그는 필체를 살폈다. 단어를 베껴 쓰며 대문자의 모양새까지 꼼꼼히 익혔다. 그러곤 종이를 한 장 꺼내 급하게 몇 줄을 써 내려갔다. 서명은 '쿠르빌'.

봉투에도 같은 필체로 주소를 적었다.

"몇 호야?"

"스물일곱."

"좋아. 이제 잘 들어. 내 말을 꼭 기억해라. 난 여기서 나가. 만약 여기 남아 있으면, 내가 미친 짓을 할 테니까."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다시 파수 자리로 돌아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라울과 클라는 각자 다른 쪽으로 나올 거야. 라울이 먼저 나오겠지. 클라는 산책하러 갈 테니까."

"라울이 나간 지 한 시간, 길어야 한 시간 반 뒤에 차를 타고 빌라 앞에 와. 초인종을 누르면 문을 열어줄 거야. 당황한 표정을 짓고 이 편지를 클라에게 건네. 읽어봐."

소스테느는 편지를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곳은 너무 위험해. 볼바르 광에서 만나자니, 실수야. 그녀는 오지 않을 거야."

"그녀는 올 거야.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그곳을 함정으로 정했다고는 상상도 못 할 테니까."

"그건 그렇고, 고르제呢? 그녀를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 나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 상사."

"맞는 말이야. 자, 이 편지를 우체국에 가져다 줘."

그가 이렇게 적었다.

'경찰은 거대 폴과 그의 동무들이 매일 밤 몽파르나스의 '쁘띠 비스트로'에서 애프리띠를 하며 모인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다.

"고르제가 그곳으로 갈 거야. 그는 즉시 조사를 벌여 그 정보가 정확하다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러곤 우리를 기다리게 될 거야. 우리는 이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면 돼. 동무들에게 미리 알려두게."

"라울이 파빌리온에서 나오지 않거나, 너무 늦게 나오면 어떡해?"

"그럼 다음으로 미루지. 내일 다시 하면 되니까."

그들은 헤어졌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소스테느는 다시 자신의 감시 임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라울과 그의 연인은 파빌리온 앞의 작은 정원에 네 시간 이상 머물렀다. 더위는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그들은 오래된 산사나무 가지 그늘에 가려 해를 피하며 평온하게 수다를 떨었다.

떠나기 직전, 라울이 말했다.

"오늘 저 금발 아가씨가 유난히 우울해 보이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불길한 예감이라도 든다고?"

"너를 만나고 난 뒤론 그런 건 믿지 않아. 그래도 우리가 헤어질 때는 언제나 슬퍼지더군."

"고작 몇 시간일 뿐인데."

"그것도 너무 길어. 게다가 너의 삶은 너무 비밀투성이잖아…"

"내가 네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한 선행들을 알려줄까? 단, 나쁜 짓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야 해."

잠시 후 그녀가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알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너 정말 똑바로 생각하네."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면 좋으련만. 하지만 나는 눈을 감고 있어도 선명하게 보이는, 까마득한 식별력을 타고났어. 나중에 봐, 사랑스러운 여인아. 그리고 움직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 잊지 마."

"당신도요. 강변 쪽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 잊지 마세요."

클라라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실, 그게 제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거예요… 당신이 겪게 될 위험들이요."

"나는 결코 위험에 처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 별장 밖에서 당신의 삶을 상상해 보면, 당신에게 덤비는 도둑들과 당신을 미워하는 경찰들 사이에 서 있는 당신이 보입니다."

그가 말을 맺었다.

"나를 물려고 달려드는 개들, 내 머리에 떨어지려는 기와들, 나를 태우려 꿈꾸는 불꽃들 사이에서요."

"그렇죠! 바로 그게 맞아요!" 그녀도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그를 입맞추고, 정문까지 그를 배웅했다.

"빨리 가요, 내 라울! 중요한 건 오직 하나,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정원에 앉아 책을 읽거나 자수 공예에 관심을 가져 보려 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쉬고 잠들려 해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 모든 것이 귀찮고 초조하기만 했다.

가끔씩 그녀는 작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얼마나 변했는지! 쇠퇴의 자국이 너무도 선명했다. 눈가는 푸르스름하게 어두워졌고, 입가는 피로에 지쳤으며, 미소는 처연하기만 했다.

'괜찮아. 그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니까.'

시간은 끝없이 흘렀다.

오후 다섯 시 반의 종이 울렸다.

그때, 차가 멈추는 소리가 나자 그녀는 창가로 달려갔다. 차문이 열리자 거대한 체격의 운전사가 내렸다. 그는 종을 눌렀다.

남종이 정원을 가로질러 지나가더니, 봉투를 살펴보는 손으로 편지를 들고 돌아왔다.

남종은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리며 편지를 건넸다.

'마드모아젤 클라라, 마로크 대로 27번지.'

그녀는 봉투를 뜯어 편지를 읽었다.

비명이 목구멍에서 막혀 나오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갈게. 바로 갈게."

청년이 말을 건넸다.

"부인, 사장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청년이 편지를 다시 읽어냈다.

"소녀야, 사장님이 계단에서 다쳤어. 지하실의 사무실에 누워 계셔. 별일 없어. 하지만 부인을 부르시더라. 존경합니다. — 쿠르빌."

글씨가 너무 완벽하게 위조되어, 필체를 잘 아는 청년은 클라라를 말리지 않았다. 더구나, 만일 그가 말을 걸었다면 클라라를 막아설 수 있었을까?

클라라는 겉옷을 두르고 정원을 가로질러 달려 나갔다. 온화한 표정의 소스테느를 발견하고는 그를 물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마차에 올랐다.

제14장

클라라에게 단 한 순간도, 그 뒤에 속임수와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라울이 다쳤고, 아마도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 끔찍한 현실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뇌속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그녀가 겨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어난 일들의 흐름을 더듬어 보는 것뿐이었다. 라울이 63번지 저택을 방문한 일, 고제레나 큰 폴을 만난 일, 충돌과 싸움, 그리고 부상자를 중간층으로 옮긴 일들 말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비극과 참사만 가득했다. 그 상처는 그녀 눈에 분명히 보일 듯이, 피가 줄줄 흐르는 끔찍한 찢어진 자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가장 관대한 추측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 말에 별로 믿음을 두지 않았다.

죽음을 보는 광경이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마치 영원히 함께 있는 듯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만약 전투의 결말이 그토록 치명적이지 않았다면, 쿠르빌이 급히 쓴 편지에 사용된 표현은 달랐을 것이라고.

아니, 라울은 죽었다.

그녀는 이 죽음을 의심할 권리가 없었다. 그녀는 그 죽음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다. 마치 사건의 전말이 오랫동안 준비해 둔 하나의 결과처럼.

운명은 라울을 그녀 곁으로 불러모았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요구했다.

클라라를 사랑하고, 클라라에게 사랑받는 남자는 반드시 죽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시신 옆에 서 있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단 한 순간도 생각지 않았다.

라울과 고제레 사이에서, 혹은 라울과 큰 폴 사이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든 간에, 볼바르 부두의 중간층에 경찰이 들어차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었다.

그렇다면 클라라 블롱드를 본 경찰은 지금까지 헛되이 찾아다녔던 그 사냥감을 단번에 잡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은 그녀에게 전혀 떠올라 보지 못했거나, 떠올라 보았더라도 사소하게 여겨졌을 뿐이다.

라울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면, 체포되어 감옥에 던져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랴.

하지만 그녀는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한참 이어갈 힘조차 잃고 말았다. 그 생각들은 그녀 안에서 무질서한 문장처럼, 혹은 더 정확히 말해 논리 따위와는 상관없이 연달아 나타나는 짧은 영상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영상 속에는 그녀의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들이 섞여 있었다. 센 강변, 집들, 거리, 보도, 걷는 사람들. 모든 것이 너무도 느리게 흘러갔다.

그녀는 가끔 운전기사를 향해 소리쳤다.

"빨리! 서두르세요! 너무 느려요…"

소스테느는 다정하고 상냥한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며,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걱정 마세요, 작은 아가씨. 곧 도착합니다."

사실 그들은 곧 도착했다.

그녀는 보도로 뛰어내렸다.

그가 건넨 돈을 거절했다. 그녀는 지폐를 아무 생각 없이 의자 위에 던지고, 1층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안뜰에 있는 집주인을 보지 못한 채, 그녀는 재빨리 계단을 올랐다. 주변이 너무 고요하고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것이 의아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2층 복도에도 사람은 없었다.

소음 하나 없었다.

그것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지만, 그녀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불운한 운명을 향해 돌진했다. 그 열정 속에는 스스로의 고통을 끝내고 말겠다는 간절한 희망과, 라울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이 하나로 섞이길 바라는 무의식적인 욕망이 담겨 있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누군가 그녀의 얼굴을 때리며 입에 뭉친 수건을 쑤셔 넣었다. 동시에 다른 한 사람이 그녀의 어깨를 grabbing해 세게 밀쳤다. 그 충격에 그녀는 균형을 잃고 넘어져 거실로 튕겨 나갔다. 얼굴을 바닥에 대고 그대로 쓰러졌다.

발텍스는 조용히, 그리고 갑자기 평정을 찾은 듯했다. 그는 안전 잠금을 걸고 거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여자 쪽으로 몸을 숙였다.

그녀는 기절하지 않았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금방 깨어났고,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즉시 이해했다. 그녀는 눈을 뜨고 공포에 찬 눈빛으로 발텍스를 바라보았다.

발텍스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패배하고 절망한 상대를 바라보며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그녀가 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다. 그 웃음에는 잔혹함이 가득 담겨 있어, 자비로운 마음을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를 일으켜 앉혀 큰 안락의자와 함께 남은 유일한 자리인 소파에 앉혔다. 그러고 나서 이어진 두 방의 문을 활짝 열더니 말했다.

"방은 비어 있어. 이 아파트는 봉쇄됐지. 클라라, 너를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 착한 친구조차도 안 돼. 내가 이미 그를 쫓는 경찰을 보냈으니까. 그러니 너는 끝장이야. 그리고 너는 남은 게 뭔지 알고 있지?"

그는 다시 물었다.

"너는 남은 게 뭔지 알고 있지, 그렇지? 네가 당하게 될 일을 말이야?"

그는 창문의 커튼을 살짝 젖혔다. 차가 그곳에 서 있었다. 소스테느가 보도에 서서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발텍스는 또 한번 비웃듯 웃었다.

"우리는 사방에서 감시당하고 있어. 정말 철저하게."

"한 시간만 참아주면 괜찮아. 한 시간 동안은 우리가 안전하거든. 그리고 한 시간이면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어. 정말 많은 일이.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뿐이야."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 후면, 물론 같이 떠날 거야. 차가 아래에 있잖아. 기차를 탈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편안한 여행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돼. 괜찮지?"

클라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떨고 있었다. 손이 움직이지 않게 의식적으로 내려다보았지만, 손은 나뭇잎처럼, 다리는 물론 몸 전체가 떨리고 있었다. 열이 오르는 듯하면서도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겁나지, 응?" 그가 물었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아니, 죽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니야, 그가 말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 내가 유일하게 간절히 바라는 일이지. 우리가 처음 만나서 함께 지내던 동안, 그리고 그 때 이후로 계속 이어진 일들, 기억나지? 넌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오

히려 미워했다고 말해도 좋겠군. 하지만 넌 약했지. 그리고 지쳐버렸어. 그러니까…”

그가 다가왔다. 그녀는 소파 뒤로 물러나며 팔을 굳게 뻗어 그를 밀어냈다. 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너는 예전처럼 준비하고 있구나. 잘됐어.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받아내려 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반대지. 내가 너에게 키스할 때, 내가 강제로 하는 편이 더 마음에 들어.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존심 따위는 모두 버렸으니까.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가 남았을 뿐이야.”

그의 얼굴은 혐오스럽고, 증오와 탐욕으로 인해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굳게 쥐어짜였다. 그 약하고 가느다란 목을 붙잡으려, 껴안으려. 그 목은 곧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클라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파 위에 섰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뛰어내려, 옆에 놓인 안락의자 뒤로 숨으려 했다.

테이블 서랍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리볼버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잡으려 했지만,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도망쳤다. 뛰다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두렵고도 단단한 손에 잡혔다. 그 손은 곧장 그녀의 목을 조랐다. 순간, 그녀의 온몸에 힘이 빠졌다.

무릎이 풀리며 그녀는 쓰러졌다. 등 뒤에 소파가 부딪혔다. 허리가 구부러졌다. 의식을 잃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끔찍한 포위는 조금씩 느슨해졌다. 현관 종소리가 울렸고, 그 종소리는 가벼운 메아리가 되어 방 안으로 길게 퍼져나갔다. 거구의 폴이 고개를 돌려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빗장이 채워져 있었다. 무슨 걱정을 해야 할까?

그가 다시 사냥감을 조이기 시작하려던 순간, 그는 놀라 비명을 지르듯 신음했다. 그의 시선은 두 창문 사이에서 빛이 번쩍이는 것을 끌어당겼다. 그는 깜짝 놀라 멍하니 서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현상이 현실의 법칙이나 타당한 설명을 초월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 그 사람!…, 그 사람!…, 그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것이 환상이었을까. 악몽이었을까.

빛나는 스크린, 마치 영화관 스크린 같은 곳에서 라울의 얼굴이 또렷이 보였다. 정지된 초상화가 아니었다. 눈이 움직이고, 자신을 소개하듯 기쁘고 상쾌한 미소를 짓는 살아 있는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 미소는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래, 나야. 안 올 줄 알았지? 만나서 반갑지? 좀 늦긴 했지만, 이제부터는 따라잡자. 내가 왔으니까."

그때였다. 열쇠가 자물쇠에 끼워지는 소리가 났다. 안전 잠금장치를 여는 또 다른 소리. 그리고 문이 밀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발텍스는 놀라 벌떡 일어났다. 클라라는 이완된 표정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누군가 무작정 들이닥쳐 밀어 연 것도, 공격자가 난입한 것도 아니었다. 평온한 손길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의 손짓이었다. 그는 기뻤다. 돌아오니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물건들은 제자리에 있으며, 좋은 친구들이 자신을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거리낌도, 방비도 하지 않았다. 발텍스 옆을 지나가며 밝은 스크린을 껐다. 그리고는 상대에게 말했다.

"저런 단두대 후보 같은 표정 짓지 마라. 그것이 네 운명일 수도 있지만, 당장은 어떤 위험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는 클라라에게 말을 돌렸다.

"이게 바로 라울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의 결과야, 꼬마야. 그 남자가 너에게 편지를 썼겠지? 보여 줘."

그녀는 종이 조각을 건넸다. 그는 그것을 받아 한눈에 훑어보았다.

"제 잘못입니다. 그 함정이 있을 줄 알았어야 했는데."

그가 말했다.

"정석에 가까운 함정이지요. 연인이라면 누구나 머리를 박고 뛰어드는 함정이죠. 하지만 이제 됐어요, 어린아이야.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 없소."

그가 재촉했다.

"빨리 웃어보시오. 보시게요, 이 자는 해롭지 않아요. 양처럼 순한 놈이죠. 멍청한 양 같은 거요."

그가 또 말을 이었다.

"대체 폴 형사가 우리 이전 만남들을 기억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새로운 싸움은 피하려는 거죠, 맞죠, 발텍스? 우리는 이제 현명해졌잖아요. 현명하되, 멍청하게."

그가 갑자기 물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이지? 운전기사를 플랫폼에 그대로 두고 왔다고? 게다가 그 운전기사, 얼굴이 특이하잖소."

그가 웃으며 덧붙였다.

"아침에 모로크 대로에 서 있던 그 녀석을 바로 알아봤소. 다음부터는 제게 조언을 구하시오."

발텍스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다. 주먹을 꽉 쥐었고, 눈썹을 찌푸렸다.

라울의 비꼼은 그를 격분시켰다. 그 모습은 라울이 더 이상 조롱을 멈추지 않게 만들었다.

"진짜로, 반항해 봐, 친구! 내가 말했잖아, 단두대는 오늘 당장은 아니라고. 당신에게는 충분히 적응할 시간이 있어. 오늘 할 일은 아주 간단한 절차일 뿐이야. 부드럽고 정중하게 당신의 손과 발을 묶는 거지. 그다음에 나는 검찰청에 전화를 걸고, 고르제레가 와서 당신을 인계받게 될 거야. 봐, 계획은 아주 단순해…"

발텍스의 분노는 말 한마디마다 커져만 갔다. 라울과 클라라의 관계는 너무도 뚜렷했고, 너무도 깊었다. 그 사실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클라라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의 웃으며, 자신의 연인과 함께 그를 조롱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부조리하고 굴욕적인 상황, 즉 젊은 여성 앞에서 당한 수치심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제 그는 공격에 나섰다. 정확하고도 억눌린 분노로, 자신에게 위험한 무기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공격했다.

그는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문장을 하나씩 쪼개며, 발로 바닥을 구르며 말했다.

"결국 네가 원하는 건 이것인가? 나를 법정에 넘기는 거지? 몽마르트 바에서 시도했고, 블루 카지노에서도 해봤지. 이제 또 내 앞에 우연히 나타난 이 기회를 이용하려는 거야? 좋아. 네가 성공할 거라고는 믿

지 않아. 하지만 네가 성공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겠어. 특히 그녀가 알아야 해."

그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는 클라라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좀 전만보다는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긴장한 표정으로 초조해하고 있었다.

"가자, 친구야." 라울이 말했다. "네 그 작은 이야기를 펼쳐봐."

"네게는 작은 이야기일지라도, 그녀에겐 무게 있는 일이 될 거야. 확실히 말해두마." 발텍스가 말했다. "봐라, 내가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나는 장난치지 않으며, 헛된 수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다. 짧은 말이지만, 그 말들은 중요하다."

그는 클라라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두 눈이 마주쳤다.

"네게 그 후작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후작?" 그녀가 물었다.

"그래. 어느 날 네가 그이가 네 어머니를 알고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지."

"네, 알고 있었어."

"그때 나는 네가 진실을 의심하고 있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걸 잘 알았다."

"어떤 종류의 증거를 말하는 거지?"

"변명하지 마. 네가 밤중에 드를르몽 가를 찾아간 목적은 내가 말한 그 증거를 찾기 위함이었지. 내가 네보다 조금 앞서 그 서랍을 뒤져봤거든. 그리고 너는 거기서 네 어머니 사진과 함께 의문의 여지가 없을 만큼 분명한 서명이 적힌 쪽지를 찾아냈어. 네 어머니는 후작의 수많은 애인 중 한 명이었단 말이지. 그리고 너는 장 드를르몽의 딸이야."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가 계속했다.

"사실 이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야. 내가 이 점을 언급한 건, 이 진실이 명확히 확립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지. 장 드를르몽은 네 아버지야. 네가 그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실은 네 행동에 영향을 미쳐야 해. 장 드를르몽은 네 아버지야. 그런데…"

발텍스의 어조와 태도에서 이전보다 더 무거운 진지함, 거의 경건함에 가까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자네, 자네 아버지가 볼니크 성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나? 그 사건은 자네도 들었을 테지? 적어도 자네 연인으로부터라도 들었겠지."

발텍스는 '연인'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분노에 찬 찌푸림을 지었다. "자네는 엘리자베트 호르네인 여사가 살해당하고 보석을 털렸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자네 아버지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나?"

라울은 어깨를 으쓱였다.

"바보 같은 질문이군. 에를몽 후작은 단 손님으로 있을 뿐이었어. 성에 있었다는 것 말고는."

"그건 경찰의 주장일 뿐이야. 현실과는 달라."

"그렇다면 자네가 보는 현실은 뭔가?"

"엘리자베트 호르네인은 에를몽 후작에게서 보석을 털리고 살해당했지."

발텍스는 주먹을 치켜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라울은 그 말에 대고 터져 나오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 이 발텍스라니! 참으로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야. 진짜 유머리스트라고 할 수 있지!"

클라는 분노에 겨워 말더듬듯 말했다.

"당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라고요! 당신은 그런 권리가 없어요…"

발텍스는 더 큰 분노로, 도발적인 어조로 그 말을 되뇌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자리에 돌아앉아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갔다.

그때 나는 스무 살이었다. 엘리자베트 호르네와 루앙의 연애사란 걸 전혀 몰랐다.

열 년이 지난 뒤, 우연히 내 가족 사이에서 발견된 편지들이 그 연애사를 세상에 드러냈다. 그리고 나는 의아해졌다. 후작이 왜 이 사실을 법정에 알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혼자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성담을 넘어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아침 햇살 아래 한 쌍의 그림자가 보였다. 경비원과 함께 성터 유적지를 돌아다니며 수색을 하고 있는 두 사람.

바로 장 드를르몽이었다. 성의 숨겨진 주인, 장 드를르몽!

그 순간부터 나는 파고들기 시작했다. 당시의 신문들을 뒤졌다. 오베뉴 지방 신문이든 파리 신문이든 가리지 않았다. 열 번이나 볼니크로 돌아갔다. 구석구석을 뒤졌고,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질문을 퍼부었다.

후작의 삶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의 집에 침입해 서랍을 뒤졌고, 봉인을 뜯어 편지를 읽었다.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한 가지 확고한 목표가 있었다. 검찰이 따르지 않았던 그 목표 말이다. 그것은 극도로 중대한 진실을 숨긴 자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벗겨내는 것이었다.

"새로 알게 된 게 있군, 친구? 자네 정말 영리한구려."

발텍스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단서를 연결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장 드를르몽의 행동이 갖는 진짜 의미가 드러나거든요."

"속속들이 말해보게."

"엘리자베스 호르네를 모데주벨 경을 통해 초대하게 한 건 장 드를르몽이었습니다. 그가 엘리자베스에게 폐허에서 노래해 달라고 부탁했고,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폐허의 장소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엘리자베스를 정원 안으로 이끌고 계단 밑까지 데려갔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아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발코니 모퉁이를 돌아나간 순간부터 엘리자베트가 나무들이 우리를 가려주는 길 끝에서 혼자 다시 나타난 순간까지, 대략 1분이 흘렀습니다. 이 짧은 거리를 걷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이죠. 그 1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만약 이 추측을 받아들인다면, 그 답은 쉽게 나옵니다. 이 추측은 충분히 묻지 않은 하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바로 엘리자베트가 그 순간과 폐허 꼭대기에서 다시 목격되었을 때, 더 이상 목걸이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라울은 다시 한번 어깨를 으쓱였다.

"그럼 엘리자베트 호르네가 항의도 하지 않은 채, 그가 그것을 훔쳤다는 말이군요?"

"아니, 그녀가 직접 그에게 맡겼지. 자신이 부를 곡조에 그 보석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 에리자베트 호르네의 성격과 완전히 일치하는 태도였어."

"그리고 성으로 돌아와서, 그녀를 죽인 거야. 보석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이지. 멀리서, 성령의 작용처럼 죽인 거라고!"

"아니. 직접 죽인 게 아니라, 살해하게 했지."

라울이 성이 나서 말했다.

"사랑하는 여인을, 가짜 연극용 보석, 가짜 루비와 사파이어를 차지하려고 죽이지 않아."

"당연하지. 하지만 그 보석이 진짜이고, 수백만 프랑의 가치가 있다면 그 선택을 할 수도 있어."

"말도 안 돼! 에리자베트 본인이 그 보석이 가짜라고 공언했잖아."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해야 했어."

"왜?"

"그녀는 기혼자였어요. 그리고 이 보석들은 그녀가 연인 사이였던 미국인 남자에게서 받은 거죠. 남편에게나, 부러워할 동료들에게나 비밀로 지켰죠. 그 사실에 대한 서증은 모두 가지고 있고, 이 보석들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입증할 증거도 있습니다."

라울은 당황한 기색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린 클라라를 지켜보며 물었다.

"그렇다면 그 범죄는 누구에 의해 저질러진 거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성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두 모른 채 방치된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가시우라는 이름의 가엾은 양치기였죠. 흔히 '순진무구한'이라고 하는 사람, 미련하진 않았지만 정신이 다소 단순한.

에를몽이 조벨 가에 머무를 때면 가시우를 자주 찾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가시우에게 옷과 시가, 심지어 돈까지 주었죠. 도대체 왜? 무슨 목적에서였을까요?

저도 가시우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어렴풋이 자백하듯 말을 건넸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여자, 노래를 부르다가 쓰러진 여자……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의 말은 미완성이었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가 거친 슬링을 돌리며 하늘을 나는 맹수를 향해 조준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돌이 슬링에서 날아나 새를 명중시켰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라울이 물었다.

"그 다음?"

"그 다음? 진실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가시유는 마르키의 뇌물로 매수당해 그날, 폐허의 담장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쏜 총알이 엘리자베트 호르네를 치고 도망쳤죠."

"그건 가설일 뿐입니다."

"확실합니다."

"증거라도 있나요?"

"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요."

"그렇다면?"

라울이 딴청을 피우며 물었다.

"만약 법이 나를 붙잡는 날이 온다면, 나는 에를몽 후작이 엘리자베스 호르네를 죽였다고 고발할 거야. 내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그 당시 에를몽이 재정적으로 궁핍했음을 증명할 거야. 그는 이미 대리점을 통해 자신이 박탈당한 유산을 찾고 있었지. 그리고 그 이후로 그가十五年 동안 유지해 온 생활 수준은 오직 그 도둑질로 번 돈 덕분에 가능했

음을 밝힐 거야. 게다가 사촌으로서 나는 이 보석을 돌려받거나, 적어도 그 가치만큼의 배상금을 청구할 거야."

"너는 단 한 푼도 얻지 못할 거야."

"좋아. 하지만 에를몽은 망신만 당하고 감옥에 갈 뿐이야. 그는 그걸 무서워해. 내가 그에게 무슨 비밀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결코 나에게 돈을 거절하지 않았지."

제15장

라울은 생각에 잠겨 방 안을 거닐었다. 클라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었다. 발텍스는 팔짱을 낀 채 서서,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라울이 그 앞에 멈춰 섰다.

"결국 넌 그저 협박꾼일 뿐이군."

"처음엔 고모 엘리자베트의 원수를 갚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모은 자료는 저를 지키는 방패가 됐죠. 이 기회를 살릴 거예요. 길을 비켜주세요."

라울은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다음에는?"

"그다음?"

발텍스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협박이 먹혔고, 승리의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클라의 태도는 그의 그런 생각에 기름을 부었다.

발텍스가 말했다.

"그다음엔 제 여주인이 저를 만나러 올 겁니다. 한 시간 안에, 제가 알려줄 주소로 그녀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여주인?"

발텍스가 젊은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여자를 말입니다."

라울이 창백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도 그 집념을 버리지 못했나? 그래도 희망을 품고 있단 말인가?"

"희망 따위야 없습니다." 발텍스가 격분하며 소리쳤다. "나는 원합니다. 내 것을 되찾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를, 그리고 당신이 훔쳐간 여자를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라울의 표정이 너무도 공포스럽게 변했기 때문이다. 라울의 손이 권총 주머니 쪽으로 움직였다.

두 남자는 치열한 라이벌처럼 서로를 노려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라울이 자리에서 뛰어나와, 발텍스의 발목 높이에서 발바닥으로 두 번 발길질을 날렸다. 이어 그는 냉혹한 손으로 발텍스의 팔을 꽉 잡았다.

발텍스는 고통에 몸을 굽혔다. 저항할 힘도 없이 충격에 쓰러졌다.

"라울! 라울!"

젊은 여자가 그에게로 달려들며 외쳤다.

"제발요… 싸우지 마세요…"

라울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그는 적에게 주먹과 발길질을 마구 퍼부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저 그를 징벌하기 위해서였다. 발텍스의 설명이나 협박은 더 이상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클라라를 빼앗고, 과거의 연인이었다고 자랑하며, 여전히 과거를 운운하는 남자를 붙잡고 있었다. 라울에게 그 과거는 주먹과 발길질로 완전히 짓뭉개야 할 것이었다.

"아니요, 아니요, 라울. 제발요." 클라라는 신음했다. "그를 놓아주세요. 그가 가도록 하세요. 법정에 세우지 마세요. 제발요… 아버지 때문에요. 아니요… 그가 가도록 하세요."

라울은 맞으면서도 반격했다.

"걱정하지 마, 클라르. 그 남작에게 해로운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이 일이 정말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입을 닫을 거야. 자기 이익이 걸린 일이니까."

"아니요!" 젊은 여성은 흐느끼며 애원했다. "그는 복수할 거예요. 반드시요."

"상관없어. 그는 악한 짐승이야. 그 녀석을 없애야 해. 안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너를 공격할 테니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의 행동을 막았다. 장 드를르몽 이야기를 꺼내며, 그를 고발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라울은 손을 놓았다. 그의 분노는 사그라들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좋아. 가버려. 들었지, 발텍스? 당장 여기서 사라져. 하지만 만약 클라르나 남작에게 손이라도 댄다면, 너는 끝장날 거야. 자, 얼른 사라져."

발텍스는 몇 초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라울이 자신을 너무 심하게 다뤄서,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할 정도였던 걸까?

그는 팔꿈치에 기대 몸을 지탱했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이어 다시 힘을 주어, 안락의자 옆까지 기어갔다. 그리고 일어서려다 균형을 잃은 척하며 무릎을 꿇고 말았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다 속임수였다.

사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작은 탁자 쪽으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그는 갑자기 손가락을 서랍 속으로 집어넣었다. 서랍 안에서 손잡이가 보이는 권총을 낚아챈 뒤, 거친 비명을 지르며 라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팔을 들어 올렸다.

그 동작이 얼마나 급하고 돌발적이었든, 그는 그것을 실행할 시간을 얻지 못했다. 그 효과는 클라라에 의해 먼저 발생했다. 그녀는 두 남자 사이로 몸을 던져 가슴에서 칼을 꺼내 발텍스의 가슴 한복판에 꽂았다. 발텍스는 그 공격을 막을 생각도 하지 못했고, 라울이 개입할 틈도 없었다.

처음에 발텍스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듯했고,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평소 누런 빛이었지만, 하얗게 질려 완전히 새하얗게 변했다. 그 후 그의 거대한 몸이 쭉 펴지며 거대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한 덩어리처럼 그는 쓰러졌는데, 몸통과 팔이 소파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깊은 한숨이 이어진 후 몇 차례 경련이 일어났다. 그리고 정적, 그리고 고요함.

클라는 피투성이 칼을 쥔 채, 넋을 잃은 눈으로 그 놀라운 일과 추락을 바라보았다. 발텍스가 쓰러지자, 라울은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는 놀람과 절망에 떨며 더듬거렸다.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세상에, 끔찍해!"

라울이 속삭였다.

"아니야, 난 널 사랑할 거야…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왜 때렸지?"

"그가 총을 쏘려 했어요… 권총이…"

"하지만 내 사랑아, 그건 장전이 되어 있지 않았어. 내가 그냥 두었던 거야. 그가 자신의 총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라울은 젊은 여성을 안락의자에 앉혔다. 발텍스의 시체가 보이지 않도록 방향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그는 시체 쪽으로 몸을 숙여 살펴보고, 심장을 들으며 중얼거렸다.

"아직 뛰고 있군… 하지만 임종이야."

그는 오직 그녀 생각뿐이었다. 반드시 구해야 하고, 어떤 수를 쓰든 데려와야 할 그 여자. 그는 재촉하듯 말했다.

"가, 여보. 너는 여기에 있을 수 없어. 곧 사람들이 올 거야."

그녀는 갑자기 힘을 내며 몸을 떨었다.

"가? 당신을 혼자 두고?"

"생각해 봐! 만약 여기서 너를 발견하면?"

"그럼 당신은요?"

"이 남자를 버릴 수는 없어."

그는 망설였다. 발텍스가 이미 끝장난 줄은 알았지만, 떠나기를 결심할 수 없었다. 그는 혼란스럽고 주저앉은 듯했다.

그녀는 단호했다.

"저는 가지 않아요. 제가 때린 거예요. 제가 남아서 체포당해야 해요."

그 생각은 그를 뒤흔들었다.

"절대 안 돼! 절대! 네가 체포된다고? 나는 허락하지 않아. 원치 않아. 그 남자는 비루한 자였어. 그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가자. 너를 여기에 두고 갈 수 없어."

그는 창문 쪽으로 달려가 커튼을 들어 올렸다. 그러고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고르제!"

"뭐요? 고르제요? … 그가 오나요?" 그녀는 당황하며 물었다.

"아니. 그가 두 명의 부하와 함께 이 집을 감시하고 있어. 도망칠 길은 없어."

방 안은 몇 초 동안 멍한 침묵에 잠겼다. 라울은 발텍스의 시체에 식탁보를 덮어주었다. 클라는 아무 생각 없이 오가며 서성였는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이불 아래서 임종 직전의 남자가 간헐적으로 몸을 떨었다.

"우리는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젊은 여자가 속삭였다.

"지금 뭐라고 우는 거야?" 라울이 항의했다. 과도한 감정에 휩싸인 순간들은 그에게 금방 평정심과 자기 통제를 되찾게 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시계를 확인했다. 그러고는 벽에 걸린 도시용 전화기를 집어 들었다.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 소리 안 들려요, 미스? 이건 번호가 아니에요. 여보세요! 간수 불러주세요… 여보세요! 간수요? 아, 카롤린이구나? 운이 좋네. 안녕, 내 사랑… 자, 여기로 전화해. 끊기지 않게 5분 동안 계속 울려. 방에 부상자가 있어… 그래서 관리인이 전화 소리를 듣고 올라와야 해. 알았지? 그래, 카롤린, 걱정 마. 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안녕!"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연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가자. 2분 안에 관리인이 와서 처리할 거야. 아마도 맞은편 고제레를 데려올 거야. 그녀라면 분명 알 테니까. 가자. 우리는 위쪽으로 도망치자."

그 목소리는 너무도 평온했고, 그의 포옹은 너무도 강압적이어서 그녀는 항의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칼을 주워 들고, 전화기의 손자국을 지우기 위해 기계를 닦았다. 발텍스의 시신을 확인한 뒤, 그는 빛나는 화면의 장치를 부수었다. 그리고 그들은 문을 활짝 열어둔 채 그 자리를 떠났다.

그들이 세 번째 층, 즉 장 드 에를몽의 아파트 위쪽 하인층으로 올라갈 때, 전화기는 날카롭고 끈질기게 울려댔다.

라울은 즉시 문을 부수는 일에 착수했다.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았고, 도려쇠도 당겨져 있지 않아 그 일은 간단했다.

문을 들어서고, 문짝을 밀기도 전에 계단 구멍에서 큰 비명이 터져 나왔다.

벨 소리로 인해 달려온 여관 주인 아가씨가, 반쯤 열린 중층의 문틈으로 거실의 어수선한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파 위에서, 숨이 턱턱 막힌 채 몸을 늘어뜨린 발텍스의 시체를 발견한 것이다.

"모든 게 다 잘된 일이에요."

라울이 다시 찾아온 차분한 조롱의 태도로 말했다.

"여기서는 여관 주인 아가씨가 나서야 해. 그녀가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 있는 거야."

셋째 층은 하인용 방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시간에는 모두 비어 있었다. 그 위에는 트렁크나 사용하지 않는 낡은 가구들이 놓인 다락방들이 있었다. 다락방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라울은 그중 하나를

비틀어 꺾었다. 다락방은 다락창 하나에서 빛이 들어왔다. 그는 쉽게 그 창으로 올라갔다.

클라는 말없이, 비극적인 표정으로, 그가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따랐다. 두세 번 그녀는 반복했다.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너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생각이 바로 이 살인과 그 살인이 라울의 사랑에 미친 영향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나, 경찰 고제레의 추적을, 그리고 지붕 위에서의 도피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드디어 왔네." 라울이 말했다. 그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즉, '각각의 때에 각자의 일'이라는 신념 아래, 자신의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 확률을 극대화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세상이 다 우리 편이군. 옆집 다락방이 우리 집 지붕과 높이가 같잖아. 인정할 수밖에 없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울은 그 침묵을 무시하고, 기쁨을 더하기 위해 화제를 바꿨다.

"발텍스라는 해적 이야기를 해보자. 그는 너무 어리석게도, 우리에게 반격할 명분을 제공했어. 명백한 자기방어 상황이야. 그가 먼저 공

격해 왔으니까. 우리로서는 그의 악의를 미리 막아내는 것이 의무였지. 지금 우리의 상황은 완벽해."

상황이 좋기는 했지만, 안전을 확보해야 했다. 라울은 그 일을 성실히, 그리고 재빠르게 처리했다. 그는 자신의 동반자를 데리고 작은 안마당을 건넜다. 안마당 너머로는 빈 방이 하나 나왔다. 행운은 계속 이어졌다. 그들이 들어선 아파트는 비어 있었다. 여기저기에 몇몇 가구들이 놓여 있을 뿐, 아직 끝내지 못한 이사 짐들만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복도가 그들을 현관문으로 이끌었고, 문은 쉽게 열렸다. 계단이었다. 그들은 한 층을 내려갔다. 그리고 또 한 층을 더. 중간층 발코니에 도착했을 때, 라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함께 움직이자. 파리의 어떤 집이나 마찬가지지만, 문지기들이 있으니까. 여기 문지기들이 우리를 보고 지나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함께 나가는 건 피하는 게 좋겠어. 네가 먼저 가.

네가 가는 길은 강변 도로와 수직으로 이어지는 거리야. 왼쪽을 따라 걸어가면 돼. 그러면 세느강은 등 뒤로 가게 되지. 오른쪽으로 세 번째 골목에 있는 다섯 번째 집, '파브르주 데자르망 호텔'이 있어. 거기 대기실로 들어가.

나는 2분 뒤에 합류할게."

그는 그녀의 목을 감싸 안아 살짝 뒤로 젖힌 뒤, 입맞춤을 했다.

"자, 내 사랑, 용기를 내.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지 마. 네가 내 목숨을 구해 줬다는 걸 생각하라고. 정말로 그래. 그 권총은 제대로 장전되어 있었으니까."

그는 그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껄였다. 하지만 클라라는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머리를 숙인 채, 초췌한 모습으로 자리를 떴다.

그녀가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려고 그는 몸을 굽혔다.

일백까지 세었다. 더 안전을 위해 다시 일백까지 세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안경을 코에 올린 채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좁고 번잡한 거리를 따라 올라가 세 번째 길목에 도착했다. 그 길 왼쪽에는 '도부르그 및 일본 호텔'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외관은 소박해 보였지만, 안쪽 살롱은 윗부분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매우 세련된 가구로 꾸며져 있었다.

그는 클라라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더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라울은 불안한 마음이 커져 밖으로 나갔다. 거리를 살피고, 그들이 탈출했던 건물 쪽으로 급히 달려갔다. 다시 호텔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가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 기다려야겠어. 기다려야 해."

그는 반시간을 기다렸다. 한 시간. 주변 골목으로 빠르게 나갔다 들어오는 행위를 반복하며.

아무도 없었다.

마침내 그는 새로운 생각에 이끌려 떠났다. 클라라는 오트유빌에 있는 별장으로 피했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절박한 마음에 그녀는 약속 장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예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 답답함을 겪고 있을 것이다.

그는 택시에 올랐다. 평소처럼 긴급 상황에서는 직접 핸들을 잡는 습관이 있었다.

정원에서 하인을 만났고, 계단에서는 쿠르빌을 마주쳤다.

"클라라?"

"아니, 그녀가 여기 없어요."

그는 절망에 빠졌다.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모든 행동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은 그의 고통에 기름을 부었다. 무엇보다 끔찍한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났다. 그 논리는 너무나 명확해서, 그는 그 생각을 깊게 파고들수록, 그것이 가엾은 클라라가 겪은 공포의 끝자락에서 필연적으로 도달한 결론처럼 보였다.

자신을 살해한 여인이, 자신의 행동이 연인에게 혐오감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녀가 자살이라는 집착에서 도망쳤다고 의심할 수 있겠는가? 그녀가 도망친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그녀의 모든 행보는 그녀가 그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며, 더 이상 볼 용기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는가.

그는 그녀가 밤하늘 아래 헤매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녀는 센 강둑을 따라 걷고 있었다. 흩어진 빛이 반짝이는 검은 물빛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몸을 던졌다.

온 밤이 라울에게 지옥 같았다. 평소의 자제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다. 어둠이 그 생각들에 힘을 실어주자, 그것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닌 확신처럼 느껴졌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발텍스의 함정을 눈치채지 못한 것을 후회했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려 한 것을 후회했으며, 불쌍한 클라라를 떠난 것을 후회했다.

그야말로 새벽녘에야 잠들었다. 아침 여덟 시, 그는 무언가 자신을 부르는 듯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체 무엇일까?

그는 종을 불렀다.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마담?"

"아직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하인이 답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쿠르빌 씨께 여쭤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쿠르빌이 들어왔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소식이라곤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넌 거짓말을 하고 있어! 거짓말!"

그가 서기를 움켜잡으며 외쳤다.

"거짓말이야! 응, 네 표정이 어색해 보인다. 대체 무슨 일이야? 어서 말해 봐, 바보야. 내가 진실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냐?"

쿠르빌이 주머니에서 신문을 꺼냈다. 라울이 그것을 펼치자마자 저주를 내뱉었다.

신문 1면 한쪽 칼럼 상단,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형 파울 살해 사건. 그의 옛 애인, '금발의 클라라'가 용의 현장에서 고르제 형사에 의해 체포됨. 경찰은 그녀가 새 연인인 라울 씨와 함께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한다. 라울은 이미 블루 카지노 개장식 때 그녀를 납치한 전력이 있다. 공범은 행방불명.'

제16장

이번에는 운이 고르제 형사에게 따랐다.

대형 폴이 쓴 편지가 경찰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택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평소처럼 볼바르 광장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금발 여인이 가끔 들르는 시간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중간층 창문으로 외치는 하녀의 부름에 응답했다.

고르제 형사가 라울의 중간층으로 들이닥친 것은 태풍처럼 거세게 밀려왔다. 그러나 그는 곧 멈춰 섰다.

죽어가는 대형 폴의 광경이 그를 질식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 악마 같은 안락의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두 개의 창문을 향해 돌려져 있던 그 의자는 라울이 그에게 걸었던 잔혹한 장난의 도구였다.

"멈춰!"

그가 자신을 따르던 두 사람에게 명령했다.

그는 총을 손에 쥔 채, 조심스럽게 천천히 안락의자에 다가섰다. 적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곧장 쏠 생각이었다.

고르제네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실수를 깨달은 그는 스스로를 칭찬하듯, 자신의 처신에 만족한 듯 말했다.

"모든 준비를 철저히 했을 때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죠."

큰 짐을 덜어낸 그는 이제 죽어가는 남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그를 다시 살펴보며 말했다.

"심장은 아직 뛰고 있군… 하지만 상태는 그리 좋지가 않아. 당장 의사라도 불러야 해. 이 근처에 의사가 있을 거야."

전화를 통해 그는 오르페브르 가의 경찰서에 큰 폴의 살해와 최후의 숨소리를 알리며 지시를 구했다. 부상자가 이송하기에는 상태가 좋지 않다고 덧붙인 것이다. 어쨌든 구급차가 필요했다. 그는 또한 경찰서장을 통보한 뒤, 관리인을 상대로 심문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관리인의 대답과 그녀가 제공한 용의자 특징들이 그를 확신으로 몰아넣었다. 클라라 블롱드와 그녀의 연인 라울이 바로 이 살해 사건의 범인이라는 확신이었다.

그는 극도의 동요에 휩싸였다. 의사가 도착하자, 그는 제멋대로 섞인 말들을 쏟아냈다.

"이미 늦었어… 그는 죽었어… 그래도 한번 봐주게. 큰 폴이 살아있었다면, 그것은 법과 나, 그리고 당신에게도 지대한 의미가 있었을 텐데, 의사 선생님."

하지만 한 사건이 벌어져 그의 당황은 극에 달했다. 주요 요원인 플라망이 헐떡이며 달려온 것이다.

"클라라! 내가 잡았어요…"

"뭐? 무슨 소리야?"

"금발의 클라라! 제가 붙잡았어요."

"천하의…!"

"계단에서 배회하는 그녀를 잡았죠."

"어디 있냐?"

"관리인실에 가두어 뒀습니다…"

고르제레는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가 젊은 여자를 붙잡아 올랐다. 네 발로 계단을 오르는 듯 빠르게, 그녀를 끌고 밀치며 올라갔다. 그리고 거칠게 소파 앞에 내던졌다. 소파 위에서는 큰 폴이 숨을 거두고 있었다.

"봐, 이 창녀야. 네가 저지른 더러운 짓이란다…"

젊은 여자는 혐오에 떨며 뒤로 물러났다. 그는 그녀를 무릎 꿇게 강제하며 명령했다.

"이 녀석을 뒤져라! 칼은 분명 이 여자에게 숨겨져 있을 거야…… 아, 이제야 찾았네, 내 작은 새야. 네 공범도 함께 걸렸지, 응? 멋진 라울 말이지…… 아, 너희는 그렇게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경찰은 멍청이들을 잡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지만 칼은 찾지 못했다. 그 사실은 가니마르의 분노를 더 깊게 만들었다. 비명 같은 비명을 지르며 여자는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다. 끝내 그녀는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며 기절하고 말았다.

원한과 분노에 사로잡혀 행동하던 고르제레는 이제 더 이상 자비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그녀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남아 있어, 플라마. 구급차가 저기 있을 거야. 열 분 뒤에 다시 보낼게."

그가 새로 도착한 한 남자에게 말을 건넸다.

"아, 가니마르 경감님이시군요. 제 동료인 고제레 형사입니다. 제가 직접 데려가겠습니다."

"이 사건은 라울이라는 자를 잡는 게 핵심입니다. 그는 이 살인의 공범이자 주모자죠. 저는 살인범인 여자를 데려갈 테니, 나머지 일은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정말 구급차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택시에서 다른 형사 세 명이 내리자, 뤼팽은 그들을 플라마에게 보내고 나서야 Clara를 구급차 시트에 눕혔다. 그리고 그녀를 경찰청으로 향했다.

의식을 잃은 채로 있던 Clara는 작은 방으로 옮겨졌다. 방 안에는 의자 두 개와 널빤지 침대 하나뿐이었다.

저녁 무렵, 고르제에게는 클라라를 심문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이미 그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나서 그는 바로 심문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당직을 서던 간호사가 그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다. 젊은 여자가 대답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볼테르 부두로 돌아갔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장 드에를몽은 모레 아침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드디어 밤 아홉 시가 되자, 그는 클라라가 누워 있는 침대에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희망은 곧 무너졌다. 클라라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여러 번 물었고, 간곡히 설득했으며,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추측해 들려주었다. 라울을 비난하며 증거를 쌓아 올리고, 그를 잡으려는 기도가 임박했다는 사실까지 강조했지만, 그녀의 침묵을 깨뜨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닫힌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오후 내내 상황은 똑같았다. 그녀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검찰청은 조사 판사를 임명했고, 판사는 첫 심문을 다음 날로 미뤘다.

이 소식을 들은 그녀는 고르제레에게 답했다.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답변이었다.

"저는 무죄입니다. 그 '큰 폴'이란 사람을 모릅니다. 이 사건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판사 앞에 서기 전에 저는 자유의 몸이 될 겁니다."

그것은 라울의 전능한 구원을 기대한다는 뜻일까? 고제레는 심한 불안에 휩싸여 경비를 두 배로 강화했다. 순경 두 명이 상주하게 하고, 본인은 직접 집에 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밤 열 시가 되면 돌아와 마지막 압박을 가할 생각이었다. 클라라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라, 그 정도면 저항할 힘도 없을 터였다.

주사관 고제레는 생토네 지구 구도심에 있는 낡은 건물에서 세 방을 쓰고 있었다. 방은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어, 분명 감각적인 여성이 손본 흔적이 역력했다. 고제레는 사실 결혼 지 십 년이 된 사람이었다.

사랑으로 맺은 결혼이었지만, 만약 고제레 부인이 성품이 견딜 수 없이 괴팍했다면 그 관계는 파탄 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제레 부인은 붉은 머리에 탐스럽고 우아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그녀는 훌륭한 주부였지만, 동시에 가볍고 사치스러운 면도 있었다. 남자들은 그녀에게 잘 보였고, 그녀는 즐거움을 추구했다. 소문으로는 그녀는 남편의 체면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댄싱 홀을 자주 드나들었지만, 남편이 이 일에 대해 단 한 마디의 불평이라도 늘어놓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다.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무리 소리쳐도, 그녀는 적절하게 대응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이 급히 저녁 식사 때문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는 드문 일이었고, 그때마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고제레는 아내의 지각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분노에 찬 가니마르 형사는 이미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rehearsals 하고, 그녀를 쏟아부을 비난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열린 문 설주에 딱 버티고 섰다.

아홉 시가 넘도록 아무도 없었다. 끓어오르는 형사는 어린 하녀에게 물었다. 마담이 '댄스용 드레스'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였다.

"그러면 댄스홀에 있는 거야?"

"어디요?"

"생탕트완 거리 쪽."

질투에 숨이 턱 막힌 그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오후가 저물어 더 이상 춤추는 이가 없는데도 고르제 부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아홉 시 삼십 분, 심문할 것이라는 생각에 흥분한 그는 갑자기 생탕트완 거리 쪽 홀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는 아직 춤추지 않고 있었다. 테이블에는 음료를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관리자는 그에게 물으니, 예쁜 고제레 부인이 여러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냈다. 심지어 그녀가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칵테일을 마셨던 테이블까지 가리켜 보여주겠다고 나섰다.

"자, 바로 저기 앉아 있는 그 분하고 함께였죠."

고제레는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기절할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그 남자의 등, 그리고 실루엣.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경찰을 부르려다 말았다. 그런 무례한 행동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경찰력이었다. 그의 양심도 그렇게 하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더 강한 충동이 일었다. 그것은 선량한 형사로서 범인과 살인자를 다루는 데 마땅히 써야 할 강압적인 조치로 나아가려는 충동을 막아섰다.

그것은 조제핀 고제레 부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은, 멈출 수 없는 호기심이었다. 그는 단호하게, 그리고 격분한 표정으로 그 남자

의 옆자리에 앉았다. 마치 채찍질을 맞은 개처럼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버텼다. 목을 조르거나 욕을 내뱉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했다.

라울이 움직이지 않자, 고제레가 투덜거렸다.

"씨발놈!"

"개새끼!"

"씨발 같은 개새끼!" 고제레가 이어 말했다.

라울이 쏘아붙였다.

"너 같은 개새끼!"

긴 침묵이 흘렀다. 그 틈을 음식 담당 직원이 깼다.

"크림 커피 두 잔." 라울이 명령했다.

커피 두 잔이 두 사람에게 나왔다. 라울은 다정하게 자신의 잔을 옆 사람의 잔에 가볍게 부딪힌 뒤, 작은 모금으로 마셨다.

고르제로는 자제력을 발휘했지만, 결국 라울의 목을 잡거나 총구를 그에게 들이대고 싶었다. 그런 행위는 그에게 직업적 상식일 뿐만 아니라, 전혀 꺼릴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물리적으로 그 행동을 실행할 수 없었다.

오만방자한 라울이 눈앞에 서 있으니, 그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성채 폐허에서, 리옹 역 홀에서, 그리고 블루 카지노의 뒷골목에서 만나던 그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 모든 기억은 그를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고, 공격할 기운은 커녕 오히려 구속옷을 입은 자처럼 꼼짝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라울이 친근하고 신뢰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저녁을 아주 잘 먹었어… 특히 과일을 많이 먹었지. 그녀는 과일을 무척 좋아해."

"누가요?" 고제레가 물었다. 처음에는 클라라를 말하는 줄 알았다.

"누구? 내 이름은 모르겠네."

"누구의 이름이요?"

"고제레 씨의 이름이지."

고제레는 어지러움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흔들리며, 숨이 차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럼, 정말 당신이었군요, 악당? 바로 당신이가 이 추악한 짓을 저지른 거야… 조조트의 납치 사건을!"

"조조트?… 정말 사랑스러운 이름이네! 네가 몰래 부르는 애칭이지? 하하. '조조트'라니, 그녀에게 정말 잘 어울려. 이 이름만 들리면 떠오

르는 아름다운 상상이 많아! 고제레의 조조트라니, 조조트의 목젖이라니… 정말 말 그대로 '제격'이지, 조조트는."

"그녀가 어디 있냐고… 어디 있냐고!" 고제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헛소리를 했다. "너, 어떻게 그녀를 데려다 간 거야, 이 개새끼야?"

"내가 데려간 건 아니야." 라울은 차분하게 답했다. "내가 칵테일을 한 잔 권했고, 또 한 잔 더 권했지. 그러다 우리는 섹시한 탱고를 추었어. 살짝 어지러웠는지, 그녀는 내 차에 타서 뱅센 숲을 한 바퀴 돌자고 했고, 이어 내 친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칵테일 한 잔 더하자고 했어. 그곳은 매우 정중하고, 남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곳이었지."

고제레는 숨이 턱 막혔다.

"그래서?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

"뭐라고? 아무 일도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조조트는 내게 신성한 존재다. 옛 친구 고제레의 아내를 건드리다니! 조조트의 미모에 손대다니! 그녀를 욕망의 눈으로 쳐다본다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번 더 고제레는 자신의 적에게 어떤 치명적인 상황으로 몰아넣는지 깨달았다. 그를 체포해 법정에 넘긴다고 해도, 고제레가 당할 것은 오직 조롱뿐이었다.

게다가 라울을 잡았다고 해서 조조트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적대적인 얼굴을 바라보며, 몸을 바짝 붙이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분명 목적이 있을 테니까."

"물론이지."

"무슨 목적이야?"

"클라라 라 블롱드를 언제 다시 만나느냐?"

"곧."

"더 이상 심문하자는 거야?"

"그건 포기해."

"왜?"

"경찰의 끔찍한 심문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잘 알고 있거든. 그것은 야만행위야. 과거의 고문 잔재지. 심문할 권리는 오직 재판장에게만 있어야 해. 너는 그녀를 내버려 둬."

"그게 네가 원하는 전부야?"

"또 뭐가 필요해?"

"신문들은 대프랑수아가 호전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어. 사실이야?"

"네가 그를 구원하기를 바라는 거야?"

"클라라도 알고 있어?"

"그녀는 그가 죽었다고 믿고 있어?"

"왜 진실을 숨기는 거야?"

고제레의 눈빛이 나빠졌다.

"그녀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그곳일 테니까. 그리고 그녀가 그를 죽은 줄 알면, 반드시 입을 열게 될 거야."

"역적아!" 라울이 속삭였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명령했다.

"클라라를 다시 만나러 가라. 하지만 그녀를 심문하지는 마라. 그냥 이 말만 전해라. '대장 폴은 죽지 않았다. 구해 낼 거야.' 그 이상은 말하지 마."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여기서 나를 만나라. 그리고 네 아내의 목숨을 걸고, 그 메시지를 전달했음을 맹세해라. 한 시간 뒤, 조조트는 다시 부부의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내가 거절하면 어떡하죠?"

라울은 한 음절 한 음절, 차갑게 이 말을 내뱉었다.

"네가 거절하면, 내가 조조트를 찾아갈 테니까."

고르제르는 그 뜻을 이해하고, 분노에 찬 듯 주먹을 꽉 쥐었다. 잠시 생각하더니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이 저에게 요구하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저는 진실을 파헤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용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클라라를 살려준다면, 그것은 배신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할 일입니다. 클라라를 택할지, 조조트를 택할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는 질문이 이렇게 단순해."

"그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둘 중 하나야."

고르제가 다시 따졌다.

"도대체 왜 그 정보를 요구하는 거지?"

라울은 실수를 저질렀다. 떨리는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대답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절망이 두려워."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지. 그녀에게 있어서는 살인이라는 생각 자체가…"

"정말 그녀를 사랑하는 거야?"

"물론이지. 만약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는 말을 멈췄다. 고르제의 눈빛에 희미한 빛이 스쳤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렸다.

"좋아. 여기 있어라. 스무 분 뒤면 돌아올게. 네게 보고를 하겠지. 그리고 너는…"

"조조트를 풀어주지."

"그걸 내게 맹세하겠니?"

"맹세한다."

고르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야, 커피 두 잔 얼마야?"

그는 돈을 내고는 재빨리 자리를 떴다.

제17장

라울이 클라라 블롱드의 체포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상테 형무소 근처의 댄스홀에서 고제레가 그를 다시 찾아올 때까지, 그 하루는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당장 움직여야 했다. 서둘러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그는 자리도 옮기지 않았다. 다만 평소와 정반대로, 자신도 어찌할 바 모르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다. 처음부터 그를 사로잡았던 자살에 대한 공포가 그토록 깊은 절망으로 변해 그를 짓눌렀던 것이다.

그는 위대한 폴의 동맹자들, 특히 거구의 운전수가 자신의 오토이 주소를 경찰에 알릴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본거지를 생루이 섬에 사는 친구 집으로 옮겼다. 그 친구는 항상 자신의 아파트 절반을 그에게 내어주었다.

그곳은 사법 경찰국과 가까웠다. 그곳에는 반드시 그의 심복과 동맹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그는 클라라가 사법 경찰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녀를 납치한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어쨌든 오랜 준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정오쯤, 라울이 그에게 '부주의 때문에 적을 오트유이 빌라까지 따라오게 했다'고 질책하며 신문을 뒤지고 훔쳐보라는 임무를 줬음에도, 쿠르빌은 놀라울 정도로 열성적으로 일했다. 쿠르빌이 '오늘의 소식'지를 들고 들어왔다. 그 지는 마지막 시간에 이런 기사를 싣고 있었다.

« 오늘 아침에 보도된 것과 달리, 대(大) 폴, 그 유명한 도적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태가 심각하긴 하지만, 그의 튼튼한 체질을 고려할 때, 치명적인 부상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

라울이 즉시 외쳤다.

« 바로 그걸 클라라에게 알려줘야 해! »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녀를 안심시키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있어 가장 끔찍한 재앙이자 정신적 균형을 무너뜨린 원인이 바로 그 문제였기 때문이다. 필요하면 가장 유리한 소식이라도 만들어 내야 했다.

오후 세 시, 라울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법경찰국 직원을 만나 비밀 회동을 가졌다. 그는 그 직원의 호의에 기대어 일을 추진했다. 그

직원은 자신의 업무상 접근이 가능한 사무원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기로 했다. 그 사무원은 감금된 여성과 가까울 수 있는 자리였다.

그는 고르제와 그의 가정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냈다.

여섯 시가 되자, 그는 사법 경찰 측의 특파원으로부터 더 이상 소식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자 생앙투안 구의 댄싱홀에 들어섰다.

그는 미리 받아둔 인상 묘사를 바탕으로, 자신을 정중하게 접근했던 매력적인 고제레 부인을 알아봤다. 물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한 시간 뒤, 그는 호의적인 대접을 받으며 지나치게 순진한 조조트를 상드르르섬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데려가 가두었다. 그리고 밤 아홉 시 반, 고제레는 함정에 빠져 댄싱홀로 찾아와 그를 만나게 되었다.

그때까지 라울의 모든 계획은 순조롭게 돌아갔다. 그러나 고제레와의 만남 이후, 그는 여전히 불편한 느낌을 떨쳐내지 못했다. 초반의 승리는 결국 그의 통제 바깥에서 벌어지는 결말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고제레를 손아귀에 쥐고도 그를 놓아주었다. 형사의 양심에 기대어 말이다. 하지만 가니마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클라라가 경고를 받도록 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고제레의 말만 믿을 수 있는가? 만약 고제레가 자신의 말이 협박으로 빼낸 것이

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제안된 행위가 자신의 직업적 의무에 반한다고 판단한다면?

라울은 고제레가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앉아 치졸한 흥정 수위를 견뎌야 했던 심리적 고통을 또렷이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순간, 형사가 마음을 다잡고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릴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경찰의 의무는 범인을 체포하는 것 아니던가.

당장 체포할 수단이 없었던 고제레가, 지금부터의 스무 분 동안 어찌든 그 수단을 마련하려 하지 않겠는가?

'분명해. 그는 지원을 부르려는 거야. 음, 이 개자식이. 이제부터는 고생할 거야.'

라울은 즉시 소년을 불렀다.

"글씨 쓸 거 좀 가져오게."

주저 없이 그는 가져온 종이에 이렇게 적었다.

'결국 조조트에게로 가겠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었다.

'수석 형사 고제레 귀하'

그는 봉투를 주인에게 건넸다. 그리고 백 미터쯤 떨어진 곳에 세워 둔 자신의 자동차로 돌아와, 댄싱홀 입구를 감시했다.

라울은 틀리지 않았다. 정해진 시각에 고르제트가 나타났다. 그는 부하들을 배치해 댄싱홀을 에워싸게 한 뒤, 플라망의 호위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무승부입니다." 라울은 입을 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내가 얻은 건 이 늦은 시간이라 클라라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는 생루이섬을 거쳐 갔다. 그곳에서 그는 조조트가 오랫동안 분통을 터뜨리고 신음하다 결국 침묵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으며, 이제 잠들었을 것이라고 들었다.

경찰청에서는 클라라와 연락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일단 precaution 차원에서, 친구여. 조조트를 내일 정오까지 여기 두자. 고르제에게 적잖이 골치 아픈 일을 안겨줄 테니까. 내가 직접 데리러 오겠고, 차 안의 커튼을 내려 조조트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보지 못하게 할 거야. 오늘 밤, 내게 줄 만한 단서가 하나라도 있으면 오트유로 전화해. 난 다시 돌아가야 해. 생각이 필요하거든."

모든 공범자가 밖에 나간 상태였고, 쿠르빌과 하인들은 차고에 머물고 있었기에 빌라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방에 있는 안락의자에 앉아 한 시간 정도 잠을 잤다. 그 정도면 충분히 휴식도 취하고 맑은 정신을 되찾기에 충분했다.

악몽이 그를 깨웠다. 꿈속에서 클라라는 다시 센 강가를 따라 걷다가, 유혹하는 듯한 물 위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발로 바닥을 차고 벌떡 일어났다. 방 안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며 걸었다.

"그만해! 이제 그만!"

"주저앉을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거지. 자, 보자.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나? 고르제와의 대결은 당연히 무승부였다. 나는 너무 성급하게 움직였어. 그 수법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것이었다. 사랑에 너무 깊이 빠지고 감정에 휩쓸리면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야. 그런 생각은 이제 접자. 차분해져야 해.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해."

하지만 논리적이고 위로가 되는 말들은 그를 진정시키지 못했다. 물론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클라라의 석방을 꾀할 것이고, 언젠가는 그녀의 연인이 그녀를 다시 품에 안게 될 것이며, 그녀가 그 충동적인 행동으로 치른 대가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하지만 미래가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지금 당장의 위협을 어떻게 막아낼지가 문제였다.

하지만 그 위협은 끝없는 악몽 같은 밤의 매 순간을 따라다녔다. 판사가 사건을 접수하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밤은 끝나지 않을 터였다.

클라라에게 그 순간은 구원이 될 것이다. 거대한 폴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지만 그 때까지 그녀는 버틸 힘을 지니고 있을까?

그리고 용서 없는 집착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오직 그녀를 경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직원이나 고제레를 매개로 하거나 해서 말이다. 하지만 실패했다. 이제 그는 미쳐버리는 광기, 이성이라는 끈이 끊어지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그 광기를 막을 수 있을까?

클라라는 감옥도, 사법 시스템과의 싸움도, 유죄 판결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남자가 자신의 손에 의해 죽었다는 생각, 그건 달랐다.

그는 그 남자를 마주했을 때의 공포에 질린 반동을 떠올렸다. 그 남자는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 너는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는 불쌍한 여자의 도주가 곧 죽음으로 향하는 도피였으며, 자멸하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잡혀 감금되는 것이, 그녀가 죄를 지었으며 살인자라는 저주받은 부류에 속한다는 사실과 조화되지 않는가?

라울의 머릿속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밤이 깊어가고, 자정이 울렸고, 한 시가 울렸으며, 한 시 반이 울렸다. 그사이 그는 견딜 수 없는 확신에 빠졌다. 일이 이미 벌어졌거나, 곧 벌어질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그는 가장 뜻밖이고도 끔찍한 자살 방법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결과는 똑같았다. 비극의 현장을 목격하고, 신음소리와 비명을 들은 뒤, 그는 또 다른 형태로 같은 지옥을 반복했다. 상상하고, 보고, 듣는 고통이었다.

나중에서야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진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수수께끼 전체가 정확한 해답과 함께 그의 앞에 놓였다. 라울은 왜 그때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스스로를 놀라워하며 부끄러워했다.

그는 생각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진상은, 매일 우리 삶에서 가장 평범하고 습관적으로 마주치는 풍경처럼, 그의 시야에 자연스럽게 각인되어야 마땅했다.

그가 이미 손에 쥔 인간적 진실의 단서들, 즉 눈으로 보고 손끝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었으니, 상황들이 그를 이해하도록 강요하기 훨씬 전부터 그는 그 사실을 직감했어야 했다.

어떤 순간에는 문제가 그렇게 명확하게 제기되어, 사방에서 비추는 빛을 피해 도망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그 순간이 코앞에 닥치자, 그는 오히려 어둠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고 느꼈다. 고통이 그의 시야를 가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 그는 오직 절망적인 현재에만 갇혀 있었다.

그는 평소라면 바닥까지 추락한 뒤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데 능숙한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에는 오직 끝없이 이어지는 수많은 분들을 하나하나 더해 나가는 일에만 집중했다.

두 시간. 두 시간 반.

라울은 열린 창문 너머로 아침의 첫 희미한 빛이 나무들 위로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어리석게도 생각했다. 만약 클라라가 살아있다면, 그녀는 낮에 자살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라고. 자살은 어둠과 침묵의 소행이지, 낮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가까운 교회 시계가 세 시를 알렸다.

그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시계바늘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세 시 오분. 세 시 십 분.

그때였다. 그가 깜짝 놀라며 몸을 떨었다.

아치문 쪽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친구일까?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일까?

평소라면 밤중에 누군가 방문했을 때,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정황을 파악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침실 그대로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정원을 지나가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이 매우 느려서, 그는 간신히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불안감에 사로잡힌 그는 문턱까지 걸어 나가, 아마도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미지의 상황에 서둘러 다가가려 하지 못했다.

문이 밀렸다. 힘이 들어가지 않는 한 손에 의해.

제18장

라울의 삶, 아니 아르센 뤼팽의 삶은 확실히 가장 많은 놀라움이 쌓인 인생 중 하나였다. 극적이고 코믹한 사건들, 설명할 수 없는 충격들, 현실과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반전들이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쩌면 — 그리고 아르센 뤼팽이 나중에 시인했듯이 — 클라라 블롱드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그에게 가장 깊은 경악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른다.

클라라가 나타났을 때의 모습은 기적 그 자체였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피로에 지친 듯 무기력했으며, 비극적인 표정이었다. 눈에는 열병처럼 빛이 돌았고, 옷은 더럽고 구겨졌으며, 목도 찢겨 있었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은 맞았다. 하지만 자유롭다는 것은, 아니, 천만 번 아니라고 해야 옳았다. 경찰은 이유 없이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다. 특히 범인이 거의 현장에서 잡혔을 때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여자

한 명이 상테 형무소(Préfecture)에서 탈출한 사례는 없었다. 특히 고르제레의 손에 잘 지켜지던 여자가 말이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그는 혼란스럽고 정신이 팔려 있었다. 머릿속은 닿을 수 없는 진실을 향해 온통 집중되고 있었다. 그녀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우며 겸손한 모습이었다. 마치 이런 말을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를 받아줄래? 죽인 여자를 네 곁에 둘래? … 내게 안겨라, 아니면 도망쳐라?"

마침내 그는 공포에 떨며 속삭였다.

"죽을 용기가 없었어요. 원했어요. 여러 번 물속으로 몸을 기울였지만, 결국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는 경악한 듯 움직이지도 않은 채 그녀를 바라보며, 거의 듣지 못한 채로 생각에 잠겼다. 계속, 계속 생각했다.

문제는 그 자체의 날카로움과 드러난 채로 제기되었다. 클라는 그 앞에 서 있었지만, 동시에 클라는 형무소 구석방에 갇혀 있었다. 이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라울은 좁은 이 틀 안에 갇혀야 했다. 밖으로 나가는 시도는 하지 말아야 했다.

아르센 뤼팽 같은 남자는 한계선 너머로 밀려오는 진실을 그냥 두지 못한다. 지금까지 그 진실이 피어났던 이유는, 바로 그 단순함 때문이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끝내야 했다.

새벽 빛이 나무 위 하늘을 밝히기 시작했다. 방 안의 전등 빛과 어우러져 클라라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그녀는 다시 말했다.

"죽을 용기가 없었어… 그래야 했지, 그렇지? 너라면 나를 용서했을 거야… 난 죽을 용기가 없었어…"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절박함과 고통이 담긴 그 광경을 응시했다. 지켜보면서도 그의 표정은 점점 더 distracted(산만하지) 않고, 고요해졌다. 나중에는 거의 미소까지 띠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이례적인 결말을 예고하는 아무것도 없이, 그는 폭소를 터뜨렸다.

짧고 억지로 참았던 웃음이 아니었다. 지금의 비장함에 의해 곧바로 진정되는 그런 웃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몸을 둘로 구부릴 만큼의, 끝이 없을 것 같은 웃음이었다.

그리고 이 부적절한 해학은 자발적이고 동화 같은 성격을 강조하는 작은 춤과 함께했다. 그 웃음의 발작은 이런 뜻을 담고 있었다.

"내가 웃는 건, 운명이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할 때 웃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야."

클라는 사형수의 무너짐 같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런 그녀가 이 난폭한 행동의 무례함에 경악한 나머지, 아연실색해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품에 안아 올렸다. 그리고 인형처럼 그녀를 돌리며 열렬히 키스했다. 가슴에 꼭 껴안은 뒤, 결국 침대에 눕히며 말했다.

"이제 울어라, 내 사랑. 울고 나서, 네가 죽을 이유 따위 없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는 이야기하자."

하지만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다.

"그러면, 너는 나를 용서해 주는 거야? 나를 이해해 주는 거야?"

"용서할 일도 없어. 변명할 일도 없지."

"있어. 내가 죽였거든."

"네가 죽인 게 아니야."

"뭐라고?" 그녀가 말했다.

"누군가를 죽인 건, 실제로 죽음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죽음이 있었잖아."

"오, 라울,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발텍스를 때렸다고?"

"맞아, 네가 발텍스를 때렸지. 하지만 그런 놈들은 생명력이 강해. 신문이라도 읽어봤니?"

"아니, 읽지 못했어. 내 이름이 실리는 게 두렵다고…"

"네 이름이 글자 그대로 실렸지. 하지만 그게 발텍스가 죽었다는 뜻은 아니야."

"그럴 수가 있어?"

"오늘 밤 고제레 친구가 발텍스는 살아났다고 내게 말했어."

그녀는 그의 팔을 놓아주었다. 그리고야 비로소 그가 예상했던 대로, 모든 절망이 쏟아져 나오는 눈물바람을 맞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아이처럼 흐느꼈다. 신음과 탄식이 끊이지 않았다.

라울은 그녀가 울도록 내버려 둔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빛이 비친 수수께끼의 얽힌 실타래를 그는 하나둘 풀어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숨겨진 점들이 너무 많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랫동안 거닐었다.

그는 다시 한 번 그 작은 시골 소녀의 첫 모습을 떠올렸다. 층계를 잘못 올라 그의 문을 두드렸던 그 소녀를 말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아이 같은 매력이 서려 있었는가! 약간 벌어진 입술의 형태와 표정 속에는 얼마나 순진무구함이 담겨 있었는가!

그런데 그 신선하고 순진한 시골 소녀는, 지금 그의 곁에서 잔인한 운명의 타격에 몸부림치는 여자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가!

두 여성의 이미지는 서로 섞여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그들은 뚜렷이 분리되어 있었다.

두 미소는 갈라졌다.

시골 소녀의 미소와, 금발의 클라라의 미소.

불쌍한 클라라! 분명히 더 매력적이고 더 사모할 만한 여자였지만, 그녀에게 순수함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낯선 것이었다.

라울은 다시 침대 가장자리로 자리를 옮겨 그녀 이마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너무 지치지 않았어?"

"내가 답해 줘서 너 피곤하지 않겠어?"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 다른 모든 질문을 대신하는 거야. 방금 내가 깨달은 사실, 너도 알고 있었지?"

"그렇다면, 클라라. 네가 알고 있었다면, 왜 말하지 않았어? 왜 그렇게 교묘하게, 왜 그렇게绕回绕回(구불구불)한 말로 나를 오해하게 만들었어?"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그가 되풀이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깊은 고통을 눈치챈 라울은 그것을 달래 주려 농담조로 말했다.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해, 내 사랑스러운 아이야. 만약 누군가 네 말을 듣고 있다면, 너를 조금… 조금…"

"조금 미쳤다고?" 그녀가 물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란 걸 당신은 잘 알잖아.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진실이야. 시인해 봐… 시인해 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정하게 그녀에게 명령했다.

"이야기해 줘, 내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네 이야기를 다 들려주면, 내가 너를 의심한 게 얼마나 부당한 짓이었는지 알게 될 거야.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우리가 빠져 있는 비극은, 모두 네 침묵에서 비롯된 거야… 이야기해 줘, 내 사랑."

그녀는 순종했다. 이불로 흐르는 마지막 눈물을 닦아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야, 라울. 내 어린 시절을 내가 겪었던 그대로 보여줄게. 행복하지 않았던 한 여아의 이야기로."

"어머니는 아르망드 모린이라는 이름을 가졌지. 어머니는 나를 정말 사랑하셨어. 하지만 삶이 있었어. 어머니가 영위하던 그 종류의 삶은 나를 돌볼 여유를 주지 않았지."

"우리는 파리에 살았어. 늘 사람들이 오가며 시끄러운 아파트였지. 어떤 신사가 집안을 지배했어. 그분은 선물과 식량, 그리고 샴페인 병들을 잔뜩 들고 나타나곤 했지."

"그 신사는 매번 다른 사람이었어. 이어지는 그분들 중에는 나에게 친절한 이도 있었고, 불쾌한 이도 있었지."

"그래서 나는 거실로 나가거나, 하인들과 함께 부엌에 남아있었지. 그리고 우리는 여러 번 이사를 다녔어. 매번 더 작은 곳으로 이사했지. 마침내 방 하나짜리 집이 될 때까지."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목소리를 낮춰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 엄마는 아팠어요. 갑자기 나이 들어 보이셨죠. 제가 간호를 했고, 집안일도 했어요. 더 이상 학교에 못 가니, 학교 책들도 제가 읽었죠. 엄마는 슬픈 눈으로 제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셨어요. 어느 날, 엄마가 반쯤 헛소리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단 한 마디도 잊지 못했어요."

"클라라, 네 탄생에 관한 모든 것을, 그리고 네 아버지의 이름까지 반드시 알아야 해."

"나는 아주 어렸을 때 파리에 살았어. 그때는 매우 진지한 소녀였고, 낮에는 한 귀족 가정에서 바느질 일을 했지.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게 만든 남자를 만났고, 그는 결국 나를 유혹했어."

"나는 매우 불행했어. 그 남자에게 다른 애인들도 있었기 때문이지. 그는 네가 태어나기 몇 달 전에 나를 떠났고, 1년에서 2년 동안 돈을 보내줬어. 그러다 그는 여행길에 올랐지."

"나는 그를 다시 만나려 애쓰지 않았고, 그 역시 더 이상 내 소식을 듣지 못했어. 그는 후작이었고, 매우 부유했지. 그의 이름을 알려주마."

"그리고 같은 날, 내 가엾은 어머니는 또 한 가지, 마치 꿈결 속에서 내게 말했어. 내 아버지에 대해 하나 더."

그는 나보다 조금 전에, 지방에서 과외를 하던 한 소녀를 애인으로 두고 있었다. 나는 우연히 그가 그 소녀를 임신 사실을 알기도 전에 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몇 년 전, 드보에서 리외로 가는 여행길에 나는 열두 살짜리 소녀를 만났다. 클라라, 너를 닮아서 깜짝 놀랄 정도였다. 나는 그 아이에 대해 알아봤다. 이름은 안토닌, 안토닌 고티에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내 과거에 대해 알게 된 건 다예요. 어머니는 아버지 이름을 알려주지 못한 채 숨을 거두셨죠. 그때 저는 열일곱 살이었어요."

"어머니 유품에서 찾은 건 한 가지 정보뿐이었어요. 루이 16세 양식의 큰 책상 사진과, 그 책장에 숨겨진 서랍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머니의 손글씨 메모였죠."

"그때는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춤도 추고요. 열여덟 달 전, 발텍스를 알게 되었죠."

클라라는 말을 멈췄다. 그녀는 지친 듯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말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 했다.

발텍스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절대 입을 열지 않았다.

어느 날, 내가 볼타르 부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드를몽 후작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나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방금 후작의 집을 떠나온 참이었고, 집안 구석구석에 놓인 오래된 가구를 매우 칭찬하고 있었다. 특히 루이 16세 양식의 아주 아름다운 서랍장이 눈에 띄었다.

후작. 그리고 서랍장.

나는 무작정 그 서랍장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나의 의심은 점점 구체화되었고, 드를몽 후작이 바로 내 어머니를 사랑했던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다. 내가 가진 사진과 정확히 일치하는 가구였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사실을 확인해 보았을 때, 나의 직감은 더욱 확고해졌다.

사실 그때는 별다른 계획이 없었다. 그저 궁금증에 끌렸을 뿐이다. 알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법이다.

어느 날 발텍스가 모호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자, 이 열쇠를 봐. 에를몽 후사의 아파트 열쇠란다. 그가 자물쇠에 두고 간 걸 잊어버린 모양이야. 내가 나중에 돌려줘야겠어."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그 열쇠를 손에 넣었다.

한 달 후, 경찰이 발텍스를 포위했다. 나는 도망쳐 파리에 숨어들었다.

라울이 물었다.

"왜 그때 바로 에를몽 후사를 찾아가지 않았소?"

"만약 내가 그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했다면, 그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을 거야. 하지만 확신하려면 먼저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서재를 살펴보고, 비밀 서랍을 뒤져야 했지. 나는 자주 그 부두 근처를 배회했어. 마르키가 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의 습관을 익혔지. 쿠르빌의 얼굴도, 그리고 너인 라울, 그리고 모든 하인들도 얼굴로 알았어. 그리고 열쇠는 내 주머니에 들어 있었지. 하지만 내가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 그 행위가 내 본성과 너무도 맞

지 않았거든. 그런데 어느 오후, 나는 사건들, 즉 다음 밤에 우리 둘을 더 가까이 붙여 줄 사건들에 휩쓸리게 되었지…”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그녀의 증언은 수수께끼의 가장 어두운 지점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오후 네 시 반이었다. 나는 반대쪽 보도에 숨어 서 있었다. 눈에 띄지 않도록 차려입었고, 머리칼은 베일로 감췄다.

그때 발텍스가 나왔을 때였다. 마르키를 나온 것이 분명했다. 그가 떠나는 것을 보고, 나는 그 집으로 다가가려 했다.

그때 택시 한 대가 멈췄다.

그것에서 내린 것은 여행용 가방을 든 젊은 여자였다. 아마도 소녀일 것이다. 금발이었다. 나처럼. 나의 생김새와 닮아 있었다. 얼굴 형태도, 머리카락 색도, 표정까지도.

정말 놀라운 닮음새였다. 첫눈에 봐도 가족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그 순간, 리지외 길에서 어머니가 만나던 소녀가 떠올랐다.

그날 본 소녀가 바로 그애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소녀가 에를몽 마르키의 집에 찾아왔다는 사실.

나와 남매처럼, 아니 이복 자매처럼 닮은 그 소녀가 말이다.

이것이 에를몽 마르키가 내 아버지라는 증거가 아니었을까?

그날 저녁,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집으로 올랐다.

에를몽 씨가 외출 중이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루이 16세식 서재를 알아보고, 비밀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찾아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라울이 반박했다.

"좋아. 그런데 왜 안토닌이라는 이름에 유독 집착했지?"

"그래요. 다섯 분 뒤, 당신이 저를 안토닌이라고 부를 때였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안토닌과 혼동했기 때문에, 안토닌이 당신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당신이 저의 방문이라고 착각했던 그 방문 말이에요."

"그럼 왜 내 실수를 바로 알려주지 않았어, 클라라?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됐어."

"네,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됐죠."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저는 밤중에 남의 집에 침입했어요. 당신은 저를 발견했고요. 제

실수를 이용해서, 저의 행동을 다른 여자에게 돌리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나요? 저는 다시는 당신을 보지 못할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다시 봤잖아요. 그럼 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두 사람이 있다는 걸, 클라라가 있고 안토닌도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맞아요. 하지만 당신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즉 블루 카지노의 그 밤, 당신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죠. 발텍스와 경찰로부터 저를 구해 주셨고,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사랑이 입을 다물게 할 이유는 없었을 텐데요."

"있었어요. 바로 그 이유였죠."

"왜요?"

"질투 때문이었어요."

"질투?"

"네, 바로 그 순간이었어. 너는 내가 아니라 그녀에게 반했다는 걸,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가 생각날 때면 여전히 그녀를 떠올렸다는 걸 그때 알았어."

"작은 시골 처녀라고 했잖아. 바로 그 모습에 넌 흠뻑 빠졌고, 나의 태도와 눈빛에서 그 흔적을 찾으려 했지."

"내가 가진 wild한 기질과 열정, 기복 있는 성격, 그리고 집요한 사랑은 네가 원하던 대상이 아니었어. 네가 사랑한 건 그 순수한 소녀였지."

"그래서 나는 두 여인을 혼동하도록 내버려 뒀어. 네가 갈망한 여인과, 첫눈에 너를 사로잡았던 여인을."

"라울, 기억나? 볼니크 성에서 안토닌의 방에 들어갔던 그 밤. 너는 그녀의 침대 가까이 가지도 못했잖아. 무의식적으로 그 작은 시골 처녀를 존중했던 거야."

"반면 사흘 뒤, 블루 카지노의 파티가 끝난 후, 너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품에 안았지."

"하지만 너에게 안토닌과 클라는 결국 같은 여자였어."

그는 항변하지 않았다.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참으로 이상하군요. 제가 두분을 혼동하다니."

"이상하다니요?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사실, 당신은 안토닌을 단 한 번만 봤죠. 당신의 다락방에서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클라라로서 당신과 만났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달랐지만요."

"그 후로 당신은 볼니크 성에서 안토닌을 다시 만났지만, 그때는 그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게 전부죠.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저와 안토닌을 구분할 수 있었나요? 당신 앞에는 오직 저만 있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조심했어요. 당신의 안토닌과의 만남에 관한 모든 상황을 끊임없이 물으며, 마치 제가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제가 그런 말을 했고, 저那样的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했죠. 안토닌이 파리에 도착한 날 입었던 옷과 똑같이 입는 데도 각별히 신경 썼어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네가 맞아… 여기에는 별다른 게 없어. 아주 단순한 일일 뿐이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머릿속으로 사건 전체가 다시 펼쳐졌다.

"누구든 착각할 수 있었어. 그날 역에서 고르제레 자신도 안토닌을 클라라로 착각했거든. 그제날에도 마찬가지였지. 너라고 생각해서 그녀를 제지했던 거야."

클라라가 놀라 몸을 떨었다.

"뭐라고? 안토닌이 체포됐다고?"

"너는 아직 모르고 있었구나. 그제날부터 너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 우리가 탈출한 지 한 시간도 안 돼, 안토닌

이 플랫폼에 나타났어. 아마 후작의 아파트로 올라갈 생각이었겠지. 플라마가 그녀를 보고 고르제레에게 넘겼고, 고르제레는 그녀를 사법 경찰로 데려갔어. 그는 그녀를 계속 심문하며 괴롭히고 있는 중이야. 고르제레에게 안토닌이 바로 클라라가 아니었나?"

클라는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일어섰다. 뺨에 돌았던 기색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창백하게 떨리는 입술로 그녀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체포됐다고? 내 대신? 그녀가 감옥에? 내 대신?"

"그게 뭐 어때? 넌 그 녀석 때문에 앓아눕진 않을 테지?"

그는 경쾌하게 말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잡고 모자를 썼다. 손끝이 떨려 제멋대로였다.

"무슨 짓이야? 어디 가려고?"

라울이 물었다.

"저기요."

"저기?"

"네, 그녀가 있는 곳으로요. 때린 건 그녀가 아니에요. 나예요. '금발의 클라'가 그녀가 아니라 바로 나예요. 그럼 제가 대신 고초를 겪고, 제 대신 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둘 수 있나요?"

"대신 형을 받고, 대신 교수대에 오르는 것도 괜찮단 말이야?"

라울은 다시금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웃으며 그녀에게 모자를 벗고 겉옷을 벗으라고 재촉했다. 그러곤 말했다.

"너 참 재미있구나. 그 여자가 저기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어이, 가망이 없잖아. 저 여자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오해였음을 설명하고, 알리바이를 대고, 후작의 신분을 내세울 수 있어. 고르제네가 아무리 멍청하더라도, 눈이라도 떠야 하지."

"저도 갈 거예요." 그녀가 완고하게 말했다.

"좋아, 같이 가자. 내가 동행할게. 어차피 그 행동 자체에 우아함이 없지 않아."

그가 흉내 내며 말했다.

"'고르제네 씨, 바로 저희입니다. 그 젊은 여자의 자리를 대신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고르제네의 대답을 상상해 보라.

"젊은 여자?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오해가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당신들이 둘 다 계신다면, 어서 들어오십시오,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그녀는 설득당했다. 라울은 그녀를 다시 눕혀 품에 안고 흔들었다. 온 기운이 빠져나간 그녀는 잠결로 몸을 맡겼다.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 힘을 짜내며 중얼거렸다.

"왜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을까? 왜 바로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았을까?…… 이 뒤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녀는 잠들었다. 라울도 함께 잠이 들었다.

바깥 소리가 하나둘 되살아나고, 라울이 깨어났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같은 의문이 맴돌았다.

'그래, 왜 안토닌은 저항하지 않았을까? 그녀라면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알 텐데. 지금쯤은 자신과 똑 닮은 또 다른 안토닌, 즉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깨달았을 테니까. 그리고 그 여자의 동맹자이자 연인인 내가 있다는 것도 알겠지. 그런데도 그녀는 항의하지 않은 것 같아. 대체 왜?'

그는 다정하고 자상하며 말도 거의 하지 않던 지방 출신 소녀를 떠올리며 감격에 젖었다.

여덟 시, 라울은 생루이 섬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로운 소식은 없나?"

"경찰청 여직원도 함께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수감자와 연락할 수 있게 되었죠."

"좋아. 내 필체로 편지를 하나 써라. 내용은 이렇다."

라울이 지시했다.

"'미스, 침묵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르제레가 제가 체포되었고, 큰 폴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모두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7월 3일의 약속을 절대 잊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을 담아. R.'"

라울이 덧붙였다.

"잘 이해했나?"

깜짝 놀란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해고해. 일은 끝났고, 클라라와 함께 여행을 떠날 거야. 조조트를 집으로 돌려보내."

"안녕."

그는 전화를 끊고 쿠르빌에게 전화를 걸었다.

"큰 차를 준비하고, 짐을 싸고, 문서들은 모두 옮기게. 상황이 급박해. 아이가 깨자마자 모두 여기서 빠져나와."

제19장

고르제 부부의 대화는 격렬했다. 조조트는 남편의 질투심을 가상의 인물, 그러니까 신화 속 인물에게로 돌릴 좋은 기회를 잡아 아주 잔인하게도 그 남자에게 모든 미덕을 부여했다. raffiné(세련된), courtois(정중한), délicat dans ses procédés(행동이 섬세한), plein d'esprit et de séduction(재치와 매력이 넘치는) 신사의 모든 자질을 그에게서 찾은 것이다.

"그야말로 요염한 왕자군이지!" 형사가 이를 갈며 말했다.

"그보다 더한 사람이라고요." 그녀가 비웃는 어조로 말했다.

"내가 네게 반복해서 말하는데, 네 요염한 왕자군은 바로 라울 씨야. 대 폴을 살해한 자요, 클라라 라 블랑드의 공범이지. 그래, 네가 그 밤을 보낸 남자는 바로 살인범이란다!"

"살인범?"

"하지만 당신이 하는 말이 아주 재미있군요! 정말 기쁩니다."

"역겨운 년아!"

"내가 잘못했나요? 그가 저를 납치했잖아요!"

"강탈당한 여자가 원할 때만 강탈당하지!"

"왜 그의 차를 따라갔어? 왜 그의 집으로 올라갔지? 왜 칵테일을 마셨지?"

그녀는 시인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방식이 있거든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래! 너는 저항하지 않았지. 그걸 시인하는 거야."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맞지, 그렇지. 그는 그저 너의 손에 입술을 대는 데 만족했겠지. 하지만 내가 신에게 맹세하건대, 클라는 그를 위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는 그 여자를 단단히 혼내줄 거다. 자비 따위는 없을 거야."

고제레는 극도의 격분 상태였다. 거리 한복판에서 손발이 달린 듯 허둥대며,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악마 같은 인물이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명예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확신했다. 무엇보다 그 범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지 않은가? 조조트가 자신이 살던 동네를 알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사실 말이다. 두 번이나 간 길을 따라가면서 단서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의 동료 플라망이 사법경찰서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플라망은 검찰이 첫 심문을 오늘 하루 안에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단, 고제레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 후에야 가능했다.

"좋아요! 명령은 분명한 거죠, 알겠어요? 자, 그 여자를 다시 불러내자, 플라마. 그녀가 입을 열게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하지만 고르제레의 전투적인 열정은 가장 기이하고도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하는 순간 순식간에 사그라들고 말았다. 상대가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다. 온순하고 미소 띤, 가벼운 태도로 그를 맞이했다. 너무 순종적이어서, 고르제레는 그전 이틀 동안 그가 보았던 무기력함과 항거가 모두 연기였는지 의문스러울 지경이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치장을 단정히 갖추고, 머리카락도 단정히 손질한 채 가장 친절한 어조로 그를 맞았다.

"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고르제레 씨?"

고제레를 사로잡은 격렬한 충동은, 만약 그녀가 대답하지 않았다면 욕설과 협박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일갈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형사님, 저는 전적으로 형사님의 뜻에 따릅니다. 몇 시간 뒤면 저는 자유가 되니, 더 이상 형사님을 괴롭히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끔찍한 생각이 고제레를 덮쳤다. 그는 그 젊은이를 깊이 바라보며, 낮고 장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라울과 연락을 취했군요! 그가 체포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죠! 대파울이 죽지 않았다는 것도요! 라울은 당신을 구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는 심정이 요동쳤고, 거의 빌 듯이 반박을 간청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

"아마도… 불가능하지도 않군요. 그 남자는 정말 놀랍습니다."

고르제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얼마나 놀랍든 상관없습니다. 클라라, 내가 너를 붙잡았어. 너는 이미 끝장이야."

젊은 여자는 즉각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높은 품위를 유지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곤 부드럽게 말했다.

"형사님, 저를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신의 손아귀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주십시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될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클라라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안토닌입니다."

"안토닌이든 클라라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형사님에게는 그럴지 몰라도, 현실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클라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가?"

"네, 클라라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고르제르는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터져 나올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새로운 방어 수법이라니! 썩어빠진 못만큼도 가치가 없어요, 친애하는 아가씨. 자, 분명히 해 두자고요. 내가 생라자르 역부터 볼테르 부두까지 당신을 쫓아간 게 맞죠?"

"라울 씨의 중간층 근처에서 내가 당신을 본 게 맞죠?"

"볼니크의 폐허에서 내가 당신을 발견한 게 맞죠?"

"그럼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이 바로 당신 맞죠?"

"맞아요."

"그럼?"

"그럼, 나는 클라라가 아니에요. 내가 클라라가 아니니까."

고르제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 외쳤다.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안토닌이 미소 지었다.

"형사님, 이해가 안 된다면 그것은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뒤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한 겁니다."

"무슨 의도였습니까?"

"저를 형사님의 이유 없는 추격에서 구해 준 사람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첫날 두 번, 그리고 볼닉에서 한 번."

"그리고 블루 카지노에서 네 번째로요, 아가씨?"

"아, 그건 클라라의 일이에요. 큰 폴에게 칼을 꽂은 일도 마찬가집니다."

고제레의 눈에 빛이 스쳤다. 순식간에 사라진 빛이었다. 그는 아직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소녀는 악의가 섞인 듯 그 진실을 명확하게 풀어주지 않았다.

그녀가 더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결론을 내려봅시다, 형사님. 제가 파리에 도착한 뒤로 지낸 곳은 클리시 대로 끝자락에 있는 '두 비둘기' 여관이에요. 큰 폴이 총격을 받았

을 때, 즉 정확히 오후 6시쯤 저는 지하철을 타기 전까지 여관 주인 아가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이 분의 증언을 분명히 요청하며, 동시에 에를몽 후작의 증언도 함께 요청합니다."

"그분은 현재 자리를 비우고 있소."

"오늘 들어오실 예정이에요. 그게 바로 제가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반 시간쯤 뒤에 형사님께 잡히기 전, 하인들에게 알리러 가려던 일이었죠."

고제레는 다소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말없이 형사국 국장실로 들어갔고, 상황을 설명하며 조언을 구했다.

"전화기를 돌려, 고제레. '두 비둘기' 여관으로."

그는 따랐다. 원장과 나는 각각 수신기를 들고, 고르제에게 물었다.

"드퐁쌍 호텔입니다. 경찰청입니다. 마담, 여관 손님 중에 안토닌 고티에라는 소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언제 왔나요?"

"잠시만요. 명부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6월 4일 금요일에 왔습니다."

고르제가 상사에게 말했다.

"날짜가 맞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다.

"외출한 적이 있습니까?"

"다섯 날 동안요. 6월 10일에 돌아왔어요."

고르제가 중얼거렸다.

"블루 카지노 날짜군요. 그런데 돌아오신 밤, 마담, 그녀가 외출했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마담 안토닌은 제가 운영하는 곳으로 온 이후로 단 하루도 저녁에 외출한 적이 없습니다. 때때로 저녁 식사 전에 잠시 나갔을 뿐이죠. 나머지 시간은 제 사무실에서 바느질을 했어요."

"지금도 호텔에 있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그전 날 저녁 육시 사십오 분에 그녀가 지하철을 타러 나갔습니다. 돌아오지도 않았고, 제게 알리지도 않았어요. 이건 정말 의아합니다."

고르제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국장이 그를 향해 말했다.

"조급하게 행동하신 것 같습니다, 고르제 씨. 그 호텔로 달려가서 방을 수색해 보세요. 저는 에를몽 후작을 소환하겠습니다."

고르제의 수색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소녀의 소박한 개인 소지품에는 'A.G.'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출생 증명서 사본에는 '안토닌 고티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아버지는 미상, 출생지는 리외였다.

"젠장, 젠장!"

형사는 투덜거렸다.

고제레는 세 시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플라마와 함께 먹은 식사도 삼키지 못했다.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을 능력조차 상실한 채였다.

플라마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다독였다.

"자, 친구. 너 지금 어설프게 떠들고 있잖아. 클라라 블롱드가 범인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고집 부리지 마라."

"그래서, 바보야. 넌 그 여자가 범인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야?"

"아니, 그 여자가 범인이 맞지."

"클라라 블롱드가 카지노 블랑슈에서 춤을 춘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 여자가 맞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첫째, 카지노 블랑슈에 간 날 밤에 외박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그랑 폴이 칼에 찔렸을 때 안토닌이 뒤퐁에서 있었다는 점을."

"나는 설명하지 않아. 그저 확인할 뿐이야."

"무엇을 확인한다는 거야?"

"무엇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제레도, 플라마도 안토닌과 클라라를 별개의 인물로 생각한 적은 단 한 순간도 없었다.

오후 두 시 반, 에를몽 후작이 모습을 드러냈고, 고르제와 담소 중이던 사무실장으로 초대를 받았다.

전날 저녁 스위스 티롤에서 돌아오던 길, 그는 프랑스 신문을 통해 자신의 건물에서 벌어진 비극을 접했다. 경찰이 그의 세입자 라울 씨를 지목해 기소했고, 클라라라는 소녀도 체포된 사건이었다.

그가 덧붙였다.

"역에서 안토닌 고티에라는 젊은 여자를 기다릴 줄 알았어요. 몇 주 전부터 제 비서로 일하는 사람인데, 제 도착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집안사람들이 말하길, 이 여자가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같더군요."

사무실장이 대답했다.

"그분은 이미 사법 당국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포된 거야?"

"아니, 그냥 사법 당국에 구금된 상태일 뿐이야."

"왜?"

"대형 폴 사건을 담당하는 고르제 형사의 말에 따르면, 안토닌 고티에라는 여자는 바로 '금발의 클라라'야."

마르퀴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안토닌이 금발의 클라라라니? 미친 소리야. 이 흉악한 장난이 뭐냐? 나는 안토닌 고티에를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그녀가 겪은 실수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사과를 해야 해. 그런 성격의 여자가 얼마나 많이 고통받았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아."

지휘관은 고르제 형사를 바라보았다. 고르제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상사의 불쾌한 시선을 받자 그는 몸을 곧추세우고 마르퀴 앞으로 다가가,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군요, 각하.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겁니까?"

"대형 파울을 모릅니까?"

장 드를르몽은 고르제에게 대형 파울의 정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확인했다.

"클라라 라 블롱드를 모릅니까?"

"안토닌은 알고 있지만, 클라라 라 블롱드는 모릅니다."

"안토닌이 클라라가 아닌 겁니까?"

마르키는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하지 않았다.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각하. 안토닌 고티에와 함께 볼니크로 짧은 여행을 하셨을 때, 그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볼니크 성에서 안토닌 고티에를 만나셨으니, 그날 성에 계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들르르몽은 함정에 빠졌다. 그는 회피할 수 없었다.

"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르키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러다 그는 대답했다.

"나는 그 성의 주인이었소."

고제레가 놀라며 외쳤다.

"무엇? 주인이라고?"

"당연하지. 내가 15년 전에 그 성을 샀거든."

고제레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당신이 그 성을 샀다고?… 그런데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 왜 샀다는 거지? 왜 숨겼다는 거지?"

고제레는 상사의 허락을 구하며 옆으로 불러냈다. 그리고 그를 창가 쪽으로 밀어 넣으며 속삭였다.

"상사, 저 사람들은 다 같이 우리를 속이려 해요. 볼니크 성에는 그 예쁜 금발 여자뿐만 아니라 라울도 있었어요."

"라울?"

"네, 제가 그 둘을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상사도 보셨죠? 에를몽 후작, 금발 소녀, 그리고 라울! 모두 공범들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죠?"

"마르퀴는 과거 볼니크 사건을 목격한 관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수 엘리자베트 호르네가 살해당하고 재산을 털렸죠."

"헐, 상황이 복잡해지네."

고르제트가 몸을 더 깊숙이 기울였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사님. 어제 그 거인 폴이 마지막으로 묵었던 호텔 방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거기서 가방을 놓고 갔죠. 그리고 그의 서류 속에서 제가 기다리던 두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이죠?"

"첫째, 마르퀴가 엘리자베트 호르네의 연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수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일절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째, 그 거인 폴의 진짜 이름은 발텍스입니다. 그리고 발텍스는 엘리자베트 호르네의 조카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발텍스가 드를르몽 마르퀴를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은 이 증언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고제레에게 말했다.

"사건 양상이 달라졌소. 우리도 전술을 바꿔야 할 것 같군."

"마르키와 정면으로 충돌하면 안 됩니다. 당분간은 안토닌을 배제하고, 사건 전체와 마르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고제레,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상사님. 라울을 잡으려면 먼저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게다가…"

"무슨 말인가?"

"아마도 다른 소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석방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고르제로는 드를르몽에게 며칠 뒤, 이틀에서 나흘 안에 그를 찾아간다고 알렸다. 그리고 그는 안토닌을 그녀의 방까지 배웅했다.

할아버지를 본 안토닌은 웃으면서도 울면서 그 품으로 뛰어 들었다.

"연기쟁이!" 고르제로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이렇게 그날 한낮, 고르제로는 완전히 제 모습을 되찾았다. 진리의 단서들이 하나둘 그의 앞에 드러나고, 그는 그것을 상부에 보고하며 자신의 평소 방식대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두뇌를 회복해 갔다.

그 휴식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시 쌓아 올린 구조물은 거의 즉시 무너져 내렸다.

순간, 아무런 경고도 없이 사무실 문이 열렸다. 국장이 들어선 것이다.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초록색 작은 노트를 흔들며 손가락으로 떨리는 대로 몇 페이지를 가리켰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군요! 정말 극적인 반전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 그런데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명백해집니다."

상관은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는 간신히 자신을 억누르며 결국 입을 열었다.

"사실 전에 말씀드린 가능성 있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메모장입니다. 큰 폴의, 아니 발텍스의 가방에서 발견한 건데요.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기록들, 숫자들, 주소들 말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지우개로 지워진 문장들이 있더군요. 제대로 지워지지 않은, 그러니까 중요한 문장들이요. 어제 그 문장들을 사법식별국에 맡겨 해독을 의뢰했습니다. 그중 한 문장은 가히 무가치한 보물이랄까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아래에 사법식별국이 옮겨 적어 놓았으니,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국장은 메모장을 받아들고 주석 내용을 읽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라울의 주소: 오트이, 마로크 대로 23. 뒤쪽으로 통하는 차고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 나에겐 라울이 곧 아르센 뤼팽임이 분명하다. 확인 필요.'

고르제 형사가 외쳤다.

"틀림없습니다, 지휘관! 그 단어가 바로 수수께끼의 열쇠입니다. 금고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죠. 그런 열쇠를 손에 쥐면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이런 거대한 장치를 꾸민 건 아르센 뤼팽뿐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발목 잡고 장난치는 건 오직 그놈뿐이죠. 라울은 아르센 뤼팽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지휘관. 그 자와 함께라면 잠시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소녀는 석방됐습니다. 그놈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곧 도망칠 테죠. 서둘러야 합니다!"

"대원을 데려가라."

"열 명이 필요합니다."

"좋다. 스무 명이라도 가져가라." 지휘관도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서둘러라, 고르제."

"네, 지휘관." 형사는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한 채 뛰어나가며 외쳤다. "급습입니다! 그리고 지원 병력도요! 경보 발령!"

그는 플라망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지나가던 경찰 네 명을 붙잡고는, 마당 한쪽에 정차해 있던 자동차 중 한 대에 뛰어들었다.

그의 차 뒤로는 다른 자동차 한 대가 쫓아갔다. 여섯 명의 경찰을 태운 차였다. 그리고 세 번째 차도…

사실 이는 전격적인 동원이었다. 모든 종소리가 경보음을 울려야 했고, 모든 북이 울려야 했으며, 나팔은 집합을 알리고, 트럼펫과 사이렌은 돌격 신호를 외쳐야 마땅했다.

현청의 복도와 사무실 곳곳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부르며 소리쳤다.

"라울, 그건 아르센 뤼팽이야!" "아르센 뤼팽, 그게 라울이지!"

시간은 네 시를 조금 넘긴 무렵이었다.

경찰청에서 마로코 거리까지, 막힘 없이 달린다면 열다섯 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교통 체증을 고려해야 했기에, 그보다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거리였다.

제20장

정확히 네 시. 오트이(아우테유)의 방에서 침대 위에 누운 클라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한낮쯤 배고픔에 깨어난 그녀는 졸음과 함께 식사를 마쳤고, 다시 잠들었다.

라울은 조바심을 내었다. 그가 불안해서가 아니었다. 최소한의 신중함과 지혜가 요구되는 결정이라면, 그 결정을 미루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위대한 폴의 부활이 현재의 위험을 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후작의 증언과 안토닌의 진술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직감했다.

출발 준비는 모두 끝났다. 그는 위험에 대비해 하인들을 돌려보내고 혼자 남았다. 가방은 자동차에 싣혀 있었다.

네 시 십 분, 그가 갑자기 깨달았다.

"젠장! 오가에게 작별 인사도 못 하고 갈 수는 없잖아. 그녀가 지금 내 일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신문을 읽었을까? 나랑 라울 씨를 연결 지어 생각했을까? 이 오래된 일은 빨리 끝내야 해."

그가 물었다.

"트로카데로 팔리스 호텔입니다. 여보세요. 폐하의 스위트룸을 연결해 주시겠어요?"

바쁜 라울은 누구에게 전화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지 않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비서의 목소리도, 마사지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는 보로스티르 왕이 이미 파리를 떠났다고 믿었기에, 상대방이 여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가장 친절하고 다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오르가? 너야? 잘 지내, 내 사랑. 음, 나를 미워하고 무식한 놈 취급하겠지? 하지만 아니야, 오르가. 할 일이 너무 많고 걱정도 산더미야… 잘 안 들려, 사랑아… 남자의 큰 목소리 내지 마. 자, 이제… 불행히도 급하게 떠나야 해… 스웨덴 해안을 답사하는 연구 여행이라니. 정말 뜻밖이야! 왜 내 작은 라울에게 답장을 안 해? 화가 난 거야?"

작은 라울이 깜짝 놀랐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가 이미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는 왕의 목소리였다. 왕은 격분한 나머지 아내보다 더 격하게 r 발음을 굴리며, 전화기 반대편에서 꾸짖고 있었다.

"당신은 그저 더러운 개새끼일 뿐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당신을 경멸합니다."

라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맺혔다. 보로스티리아 왕이라니! 게다가 돌아보니 클라라는 깨어 있었다. 그녀는 방금 오간 통화 내용을 모두 들은 듯했다.

"누구한테 전화를 했어? 그 올가라는 여자는 대체 누구야?"

그는 당황해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올가의 남편은 아내의 바람기를 이미 잘 알고 있었다. 한 번 더, 한 번 덜, 별일 아니었다.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올가가 뭐야?" 라울이 클라라에게 물었다. "먼 친척이야. 입이 험한 아주머니지. 가끔은 예의 차려야 하거든. 그런데 보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준비됐다고?"

"응. 이제 떠날게. 파리의 공기는 건강에 해로워."

그가 신중하게 생각에 잠겨 있는 그녀를 보며 재촉했다.

"제발, 클라라. 여기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지체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녀가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걱정되는 게 있어?"

"조금씩 느껴지고 있어."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그리고 모든 것."

그의 진지함을 깨달은 클라라는 급히 옷을 입었다.

그때 정원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오던 쿠르빌이 오후 신문을 가져왔다. 라울이 그것을 훑어보았다.

"괜찮아. 폴의 상처는 치명적이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일주일 동안은 대답조차 할 수 없을 거야… 아랍인은 여전히 침묵을 고수하고 있고."

"안토닌은?" 클라라가 물었다.

"해방됐어." 라울이 냉정하게 단정했다.

"소식이 나왔어?"

"그래. 자작의 설명이 결정적이었지. 그녀를 풀어줬어."

그의 자신감은 너무도 확고해서 클라라는 곧바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쿠르빌이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여기 더 이상 유혹적인 서류는 없습니까?" 라울이 물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고 가라, 친구야. 잊지 마라. 너희는 매일 이슬랑생루이 섬의 새로운 센터에서 만나게 될 거다. 아니, 곧 차 있는 곳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나 클라는 라울의 재촉을 받아 끝내 장식을 마치고 있었다. 모자를 쓴 그녀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다.

"올가에게 맹세해 줘…."

"뭐라고? 그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 라울이 웃으며 외쳤다.

"곰곰이 생각해 봐…"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건 상속 재산이 있는 늙은 이모라고 확실히 말했잖아!"

"당신은 늙은 사촌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녀는 내 이모이자 내 사촌이기도 해. 그녀의 새아버지와 내 삼촌 중 한 명의 자매가 세 번째 결혼을 했거든."

그녀가 미소 지으며 그의 입에 손을 얹었다.

"거짓말하지 마, 사랑스러운 당신. 사실 그건 나도 상관없어요. 내가 질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니까요."

"쿠르빌? 그 친구에 대한 내 우정을 믿어 줘."

"입 다물어. 웃지도 말고." 그녀가 애원하듯 말했다. "내가 누구를 말하는지 잘 알잖아."

그가 그녀를 꼭 안아 주었다.

"너는 자기 자신을 질투하는 거야. 너는 네 모습을 질투하는 거지."

"내 모습을요. 당신이 맞아요. 표정이 다르고 눈빛이 더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나를."

"너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눈을 가졌어." 라울이 열정적으로 그녀에게 키스를 하며 말했다. "그 눈빛은 너무도 다정해."

"하지만 너무 많이 울었던 눈이잖아."

"웃음이 부족해 보이는 눈이군. 넌 웃음이 없어. 내가 가르쳐 주마."

"한 마디 더 하겠다. 안토닌이 왜 이틀 동안이나 그 오해를 방치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알아?"

"너에게 불리할까 봐 두려워서였지."

"그런 두려움이 생겼지?"

"그녀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는 기쁨에 춤을 추듯 몸을 흔들었다.

"아, 고마워! 정말로?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니? 뭐, 내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렇지. 안토닌이 나를 사랑해. 올가도, 조조트도, 쿠르빌도, 고제레도 모두 나를 사랑하거든."

그는 그녀를 품에 안아 계단 쪽으로 이끌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전화기!"

실제로 전화기가 근처에서 울리고 있었다.

라울은 수화기를 받았다. 쿠르빌이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헐떡이며 더듬거리는 목소리였다.

"고제레!… 저와 함께 두 명이 더 있었어요… 멀리서 봤어요, 밖으로 나간 직후에. 그들은 울타리 문을 부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라울은 기계기를 끊고, 몇 초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클라라를 잡아 어깨에 메었다.

"고제레."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짐을 진 채 그는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현관문 앞에 서서 그는 귀를 기울였다. 자갈 위를 밟는 발소리가 들렸다. 철창으로 보호된 흐린 유리창 너머로 그는 몇몇 실루엣을 포착했다. 그는 클라라를 내려놓았다.

"식당 쪽으로 물러나라."

"차고 쪽은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에워쌌을 거야. 아니라면 세 명 이상이었을 테니까… 세 사람쯤이면 내가 단숨에 처리할 수 있어."

현관 문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았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공격자들을 향해 섰다. 그들은 문짝을 부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무서워요, 클라라."

"무서우면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지. 칼리크 쓰던 그 때를 기억해. 안토닌은 감옥에서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잖아."

그가 다시 부드럽게 말했다.

"두렵다면, 나는 오히려 재미있어. 네가 다시 만나서 그 멍청이에게 잡히게 둘 것 같니? 웃어라, 클라라. 네가 지금 공연을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건 정말 코믹해."

문짝이 한 번에 열렸다. 고르제가 세 번의 도약으로 거실 문턱까지 뛰어올랐다.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

라울이 젊은 여자 앞에 서서 그녀를 가렸다.

"손 들어! 안 그러면 쏴!" 고르제 외쳤다.

약 다섯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던 라울이 비웃듯 웃었다.

"너 정말 용감하네! 매번 똑같은 바보 같은 소리를 하군. 내가 너를 쏠 줄 알았어? 나, 라울을!"

"당신을 쏘겠습니다, 뤼팽." 고제레가 triumphant하게 외쳤다.

"어? 내 이름을 알다니?"

"인정하는군요?"

"귀족 작위는 누구나 자랑스러워하지."

고제레가 다시 외쳤다.

"손 들어! 천만에, 안 그러면 쏴버리겠어."

"클라라도?"

"그녀가 여기 있더라도 쏘겠어."

라울이 몸을 피웠다.

"그녀가 여기 있어요, 덩치 큰 놈."

고제레의 눈이 동그래졌다. 팔이 축 늘어졌다. 클라라! 방금 에를몽 후작에게 돌려보낸 그 금발 소녀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 순식간에 불가능한 일로 보였다. 만약 정말 클라라라면, 그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면 다른 여자……

"자, 봐라!" 라울이 농담조로 말했다. "너는 이미 지쳤잖아. 조금만 더 힘내봐. 후우! 됐어. 그래, 멍청아, 여자가 둘이야. 하나는 네가 클라라라고 이름 붙인 네 고향 여자고, 다른 하나는…"

"큰 폴의情婦지."

"참 개자식 같으니라구!" 라울이 쏘아붙였다. "네가 사랑스러운 조조트의 남편이라고는 믿기 어렵군."

고제레는 분노에 치밀어 부하들을 독려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 녀석을 잡아라. 움직이면 쏴 죽이겠다, 이 더러운 놈!"

두 남자가 달려들었다. 라울은 그 자리에서 점프해, 발길질 하나에 그들의 배를 가격했다. 두 사람은 뒤로 물러났다.

"이건 내 방식의 수법이다!" 라울이 외쳤다. "이중 발차기라는 거지."

총성이 울렸지만, 고제레는 아무도 맞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쐈다.

라울은 깔깔 웃었다.

"자, 내 코니스를 망가뜨리는군! 정말 한심하네. 준비도 안 하고 무모하게 뛰어드는 너도 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가 간다. 내 주소를 알아냈겠지. 그리고 불에 탄 소처럼 달려들었을 거야. 아까운 친구여, 너한테는 스무 명쯤의 동료가 필요했어."

"백 명은 될 거야! 천 명은 될 거야!"

가제레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섰다. 아베뉴 쪽에서 자동차가 멈추는 소리가 났기 때문이다.

"좋아, 라울이 말했다. 내가 좀 지루해지고 있었거든."

"간악한 놈, 정말 잘했어!"

가제레는 보병을 이끌고 나가려다 방을 나섰다. 이상하게도 문은 처음부터 그의 등을 밀어붙이며 닫혔다. 그는 자물쇠를 향해 헛수고를 벌였다.

"힘들지 마라." 라울이 조언했다. "문은 자동으로 잠기니까. 이 문은 통나무 그대로 만든 거야. 관을 만드는那种 목재지."

그는 낮은 목소리로 클라라에게 말했다.

"조심해, 달콤한 사람아. 내 수법을 잘 봐두렴."

그는 방 안, 원래는 두 공간으로 나뉘었던 부분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 지워버린 벽이 있던 오른쪽 끝으로 달려갔다.

고제레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어떤 수단을 쓰든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돌진하며 소리쳤다.

"저놈을 죽여라! 우리가 놓치게 될 거야!"

라울은 버튼을 눌렀다. 경찰들이 무기를 준비하는 사이, 천장에서 철제 커튼이 떨어졌다. 그것은 덩어리처럼 단호하게 내려와 방을 둘로 나누었고, 동시에 안쪽 창문받이가 내려앉았다.

"킥!" 라울이 비웃었다. "단두대다! 고제레의 목이 잘렸네. 안녕, 고제레."

그는 사이드보드에서 물병을 하나 집어 들고 잔 두 개에 물을 채웠다.

"마셔, 사랑스러운 내 여인."

"우리 여기서 떠나요. 도망갑시다."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걱정 마, 클라라."

그녀에게 마시라고 재촉한 그는, 자신도 잔을 비웠다. 그는 매우 차분했고, 서두르지 않았다.

"저쪽에서 들리지? 그들은 상자 안에 있는 정어리처럼 꽉 차 있네. 커튼이 내려가면 모든 창문이 잠겨. 전선도 끊겼지. 완전히 암흑이야. 바깥쪽에서는 함락할 수 없는 요새고, 안쪽에서는 감옥이나 다름없어. 어때? 잘 짜여 있지? 놀랍지?"

"네 라울이 정말 무서운 놈이군!"

그녀는 전혀 열광할 기색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고, 그 순간 그녀는 기운을 차렸다.

"이제 시골로 가자. 자유도 누리고, 성실하게 일한 정직한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올 휴식도 취할 때야."

그는 작은 부엌으로 들어섰다. 부엌과 본 주방 사이에는 좁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찬장이 하나 있었다. 그는 찬장 문을 열었다. 그곳으로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네가 알아두어야 할 게 있어. 교훈 삼아 듣게." 그는 교훈적인 어조로 말했다. "잘 설계된 집에는 세 개의 탈출구가 있어야 해. 하나는 정문이고, 하나는 경찰이 눈치챌 수 있는 숨은 길이며, 마지막으로 경찰이 절대 모를 완전히 숨겨진 탈출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고르제레 경호팀이 차고 주변을 감시하는 동안, 우리는 땅속을 통해 빠져나가는 거지. 설치가 완벽하지 않은가? 이 저택을 팔아준 이는 은행가였어."

그들은 삼 분간을 걸었다. 그리고 가구가 하나도 없는 작은 집 안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랐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집은 번화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부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쿠르빌이 경계하고 있었다. 트렁크와 가방들이 차 안에 쌓여 있었다. 라울은 쿠르빌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자동차는 힘차게 출발했다.

한 시간 후, 당황한 고르제가 이사회장에 보고를 했다. 그들은 언론에 뤼팽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누설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부인하기로 했다.

다음 날 고제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그는 이렇게 발표했다.

'작은 금발 여인'은 클라라가 아니었다. 경찰이 체포했다가 풀어준 그 여인이었다. 그녀는 지난밤 마르키의 저택에 머물렀고, 이제 마르키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는 것이다.

다음 날 고제레는 또 다른 소식을 전했다. 두 여행자가 볼니크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확실한 정보에 따르면, 장 드를르몽은 이미 15년 전부터 이 성의 소유자였다. 그는 두 번째 경매에서 이 성을 다시 사들였다. 그 거래는 라울의 생김새와 일치하는 낯선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다.

고제레와 감독관은 즉시 모든 준비를 시작했다.

제21장

"오디가 변호사님, 안토닌이 말을 이었다. "말씀하시는 건 다 잘 들었어요. 정말 고마운 말씀이죠. 하지만…"

"오디가 변호사라고 불러 주지 마시오, 미망인 님."

"당신의 작은 이름쯤 불러달라고까지 하지는 않죠?"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야, 얼마나 기쁠지 모릅니다." 그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그건 곧, 제 바람을 들어주셨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렇게 쉽게 제 바람을 들어줄 수도, 거절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친애하는 선생님, 저는 사흘 전에야 돌아왔으니까요. 우리는 아직 서로를 잘 모르죠."

"언제쯤이면, 미망인 님, 제가 충분히 이해되어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4년? 3년? 너무 많은 걸까요?"

그는 안타까운 듯 손짓했다. 그는 알았다. 이 아름다운 여인으로부터 단 한 줄의 약속도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을. 그녀가 있었기에, 볼니크에서의 삶이 그에게 얼마나 덜 삭막하게 느껴졌는지.

대화는 끝이 났다. 오디가 씨는 소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위엄 있는 듯하면서도 속상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성을 떠났다.

안토닌은 홀로 남았다. 그녀는 폐허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정원과 숲 속을 거닐었다.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으며, 입가에는 늘 하던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새 옷을 입고 큰 풀짚모자를 쓴 채로, 가끔씩 가사를 흥얼거렸다. 그러다 들꽃을 꺾어 에를몽 후작에게 가져갔다.

후작은 그녀가 자주 앉아 즐기던 돌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테라스 끝자락에 자리한 그곳이었다. 후작은 그녀에게 말했다.

"참 예쁘다! 피로감도 감정도 자취를 감췄군, 그렇지? 그런데도 너는 아무것도 면하지 못했어."

"그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godfather. 이미 옛날 이야기라서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 정말로 행복해?"

"물론이에요, 대부님. 당신 곁에 있고, 제가 사랑하는 이 성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성은 우리 것이 아니야. 내일 우리는 이곳을 떠날 거야."

"이 성은 당신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가 비웃듯 웃었다.

"그래, 그 남자를 아직도 믿는 거야?"

"그 어느 때보다도 믿어요."

"나는 절대 믿지 않아."

"대부님, 당신은 이미 네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다고요."

드를르몽은 팔짱을 끼었다.

"그래, 네가 생각하는 건, 한 달 전쯤에 어렴풋이 정한 약속을 그가 꼭 지킬 거라는 거야? 그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잖아."

"오늘은 7월 3일이에요. 그는 교도소에서 제가 받은 편지에서 그 약속을 확인했어요."

"그건 단순한 약속일 뿐이야."

"그는 모든 약속을 꼭 지킨다."

"그럼, 오후 네 시?"

"네 시에 그곳에 있을 거다. 즉, 스무 분 뒤라는 뜻이지."

드를르몽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인정했다.

"사실, 네게 솔직히 말해 줄까? 나도 그걸 믿고 싶어. 정말 이상한 일이야, '신뢰'라는 게. 게다가 그 신뢰의 대상이 누구냐면? 내가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내 일을 처리해 주는, 그런 뜻밖의 방법을 쓰는 모험가 말이지. 온갖 경찰을 다 동원해서 자기에게 적을 만들면서까지. 어쨌든, 요즘 신문 좀 읽어봤지? 뭐라고 나오냐면? 내 세입자인 라울 씨가 바로 아르센 뤼팽이라는 거야. 바로 그 신비로운 클라라의 연인이라고. 그 클라라가 너와 비슷하다고 하더라. 경찰은 부정해. 하지만 오랫동안 어디에나 뤼팽이 있다고 보던 경찰이, 이제 부끄러움 때문에 어디에도 뤼팽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바로 이 사람이 우리 협력자라는 거지!"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더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여기 온 그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godfather. 그 사람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이지… 물론이지… 그는 정말 무서운 녀석이야. 인정해. 그리고 그 녀석이 남긴 인상이 너무도 강렬해서…"

"그 인상이 너무도 강렬해서, godfather는 다시 만나고 싶고, 그 녀석을 통해 지금도 놓치고 있는 진실을 알고 싶으신 거죠. 그가 라울이든 아르센 뤼팽이든, 우리의 모든 바람을 채워준다면 이름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는 목소리에 생기를 띠었다.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볼은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눈은 빛나고 있었다.

"분노하지 않을 거지, 안토닌?"

"아니요, godfather."

"그래, 나도 궁금하군. 만약 라울이라는 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오디가트 변호사는 더 좋은 대우를 받았을까?"

말을 다 마치지 못했다. 안토닌의 분홍빛 볼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녀의 시선은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랐다.

"오, godfather! 당신이 무슨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을 교회 종소리가 가볍게 울려 네 시를 다섯 분 앞둔 시각을 알렸다. 안토닌을 데리고 그는 성곽의 외벽을 따라 걸어가, 성문 쪽으로 이어진 낮은 통로 끝의 철제 못으로 박힌 무거운 문이 보이는 오른쪽 모퉁이에 숨었다.

"저기서 그가 종을 울릴 거예요."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몬테크리스토를 읽어봤니? 소설 속에서 그가 어떻게 소개되는지 기억나?"

"전 세계 곳곳에서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점심을 기다리고 있어. 몇 달 전, 그는 정오에 반드시 도착하겠다고 약속했지. 호스트는 여행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확한 시간에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

"정시가 되자, 마지막 타종과 함께 집사가 '몬테크리스토 백작님'이라고 알렸다. 우리는 똑같은 믿음과 불안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

천장 아래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관리인이 현관 계단을 내려왔다.

"이제야 몬테크리스토 백작님이시겠지?" 장 드를르몽이 말했다. "일찍 오는 것도 늦는 것만큼이나 매너에 어긋나는 법이야."

문이 열렸다.

예상했던 손님이 아니었다. 그들의 당황을 더 깊게 만드는 낯선 인물, 고제레였다.

"아, godfather....." 안토닌이 기절할 듯이 속삭였다. "그 사람, 무서워요.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도, 무서워요. 그가 여기 왜 왔죠? 정말 무서워요."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거야?" 장 드를르몽이 불쾌할 정도로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너를? 나를? 그건 우리랑 상관없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니마르 형사는 경비녀와 잠시 수군거린 뒤, 마르키를 발견하고는 곧장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지팡이 대신 손에 철제 손잡이가 달린 거대한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그는 뚱뚱하고 둔중했으며, 평범하지만 목이 굵고 힘이 세었다. 하지만 그의 평소의 날카로운 얼굴은 애써 친절해 보이려 애쓰고 있었다.

성당에서 네 번의 종소리가 울렸다.

"마르퀴 드 에를몽 각하, 잠깐 말씀 좀 들으실 수 있을까요?"

그 말투에는 지나칠 정도로 공손함이 섞여 있었다.

"무슨 일로?"

에를몽이 냉정하게 물었다.

"우리 사건에 관해서입니다."

"어떤 사건이요? 우리 사이에서는 그 일에 대해 이미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당신이 내 조카딸에게 보인 용납할 수 없는 태도는, 우리가 다시 관계를 맺으려는 마음을 전혀 일으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고제레가 덜 친절한 어조로 반박했다.

"우리의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사국 국장 앞에서 이미 그 사실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정보를 더 필요로 합니다."

마르퀴 드 에를몽은 30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치형 천장 아래 서 있던 감시녀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문을 꼭 잠가 두시오. 누가 두드리더라도 절대 열어선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입니다. 알겠지요? 그리고 열쇠를 주시오."

안토닌은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듯 손을 꼭 쥐어 주었다. 문이 닫히면, 만약 라울이 나타나더라도 고제레와 라울이 마주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었다.

간수부가 열쇠를 마르키에게 건네고 돌아섰다.

가니마르 형사가 미소 지었다.

"마르키님, 저는 당신이 저 말고 다른 방문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방문을 막으려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군요."

"지금 제 마음속에는 모든 방문객이 다 불청객으로 보입니다." 장 드 를르몽이 말했다.

"그중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말이지요."

"당신을 비롯해서요. 그러니 빨리 일을 끝내고,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그는 안토닌과 가니마르 형사의 동행을 받으며 마당을 가로질러 성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모퉁이를 돌아나서려 할 때, 테라스의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마르키와 안토닌은 경악하여 그 자리에 굳어 버렸다.

고르제레도 그들과 함께 멈춰 섰지만, 그는 매우 차분했다. 라울이 성벽 안쪽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라울은 그들을 보고 담배를 던져버린 뒤 일어나, 마르키에게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말씀드리건대, 신사께서, 약속 장소는 바로 이 벤치였습니다. 네 시의 종소리가 마지막 타율을 울리자마자, 저는 이곳에 앉았으니까요."

그는 밝은색 여행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허리선도 잘 잡힌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감돌아, 정말로 친근하고 매력적인 인상이었다. 그는 모자를 벗고 안토닌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미스. 몇몇 무례한 자들 덕분에 당신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제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행동을

이끄른 것은 오직 에를몽 후작의 이익뿐이었으니, 그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고르제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라울은 마치 그를 보지 못한 듯했고, 거구의 가니마르 형사의 모습은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했다.

고제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도 역시 무겁게, 그러나 같은 평온함으로, 상황이 전혀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처럼 태연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에를몽 후작과 안토닌도 같은 태도로 기다리고 있었다.

실제로 이 장면의 주인공은 라울뿐이었다. 나머지는 그저 귀 기울이고, 지켜보며, 라울이 자신을 무대로 부르길 기다릴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불쾌하지 않았다. 그는 걸음을 떼며 떠들기를 즐겼고, 특히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고 그가 꾸민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통의 규칙에 따라 간결하고 절제된 행동이 요구될 때였다.

손을 뒤로 깍지 낀 채 거닐며, 그는 차례로 자신만만한 모습, 사색에 잠긴 듯한 모습, 담백한 모습, 어두운 모습, 그리고 빛나는 모습을 지었다.

마침내 그의 오가기를 멈춘 그는 마르키에게 말했다.

"말하기 망설여졌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만난 자리도 사적인 자리이고, 낯선 사람이 옆에 있으니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그렇지 않네요. 우리가 할 말은 누구 앞에서든, 심지어 당신을 의심하며 책임을 묻는 그 경찰의 하급자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오직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양심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든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설 권리가 있죠."

그는 말을 멈췄다. 비록 지금이 위태로운 순간이고, 안토닌이 얼마나 불안하고 당황했는지 알겠으나,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고 웃음을 꾹 참았다.

라울의 거만하게 들리는 어조, 눈꺼풀의 미세한 떨림, 입꼬리의 살짝 올라감, 그리고 고관절 위에 비스듬히 기울어진 상체의 흔들림. 이 모든 것에서 풍기는 코믹함은 사건을 어둡게 해석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몰아냈다.

그가 뿜어내는 안도감은 무엇인가. 위험을 앞두고의 그 여유는 또 무엇인가.

그가 내뱉는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적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음은 분명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지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클라라 라 블롱드와 안토닌 고티에의 이중 생활, 두 사람의 외모적 유사성, 그리고 그들 일가의 행적. 그리고 '대(大) 폴'과 '라울 씨'의 행보, 어느 시점에서 이 완벽한 신사와 경찰 고제레가 충돌했던 일, 그리고 그 신사가 경찰을 압도했던 사실까지. 이 모든 것은 이미 결론이 난 문제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권력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일들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볼니크의 비극, 엘리자베트 호르네인의 죽음, 그리고 당신 재산의 회수입니다, 선생님."

"조금 긴 서두였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도 설명은 여러 문제를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낯선 사람의 굴욕적인 심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겠지요."

마르퀴는 쉴 새를 타서 반박했다.

"나는 어떤 심문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각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각하." 라울이 말했다. "볼니크 사건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법부가 이제 당신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로요. 사법부는 당신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정확한 정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왜 당신이 엘리자베트 호르네인과의 관계를 신고하지 않았는지, 왜 볼니

크 성을 비밀리에 매입했는지, 그리고 왜 때때로 밤중에 그곳으로 돌아갔는지 말입니다. 특히, 설득력 있는 증거들을 근거로 해서 당신을…”

마르퀴가 몸을 떨었다.

“나를 비난하다니! 무슨 말인가? 누가 나를 비난하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라울을 향하며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마치 갑자기 라울을 자신에게 덤비는 적수로 본 듯했다. 그는 또렷하게, 그러나 차갑게 되물었다.

“다시 묻지. 나를 고발한 자가 누구인가?”

“발텍스입니다.”

“그 도적 말이냐?”

“그 도적이 당신에 대해 아주 위험한 증거 자료를 모아 두고 있습니다. 병이 나으면 곧바로 검찰에 넘길 테죠.”

아ntonine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고르제레는 무표정했던 가면을 벗어던진 듯했다. 그는 귀를 기울이며 열정적으로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에를몽 후작이 라울에게 다가섰다. 그는 위압적인 어조로 명령했다.

“말해라… 내가 명령한다. 그 악당이 나를 뭐라고 고발하는지.”

"엘리자베트 호르네인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이 끔찍한 말들을 감쌌다. 하지만 후작의 표정은 금세 풀렸고, 그는 전혀 부끄러움이나 당황함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설명해 보시오." 그가 말했다.

라울은 설명을 시작했다.

"당신은 그 시절 이 마을 목동인 가시유 아저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좀 미쳐 보이는 순진한 분이었죠. 주베 부인 댁에 계실 때면 자주 그와 수다를 떨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시유 아저지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재주가 뛰어나다는 거죠. 슬링샷으로 돌을 던져 사냥감을 떨어뜨릴 만큼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황은 이 반쯤 미친 남자가 당신에게 뇌물을 받고 엘리자베트 호르네인을 죽였다는 추측과 일치합니다. 당신이 요청해 성벽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돌 하나를 던져 그녀를 살해했다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돼!" 마르키가 외쳤다. "명백한 이유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왜 죽인단 말인가?"

"그녀가 노래를 시작하기 직전 당신에게 맡겼던 보석을 빼앗기 위해서였죠."

"그 보석은 가짜였어."

"그 다이아몬드는 진짜였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행동을 가장 어둡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선생님!"

엘리자베트 호르네는 이 보석들을 아르헨티나의 억만장자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마르키 드 에를몽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격분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거짓말이다! 엘리자베트는 나보다 먼저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다! 내가 그 여자를 죽이라고 했겠는가? 내가 사랑했고, 결코 잊지 못한 그 여자를!"

그는 숨을 고르며 계속했다.

"그렇지 않은가? 그녀를 위해, 그녀의 기억을 위해 나는 이 성을 사들인 것이다. 그녀가 죽어간 그 장소가 나 외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가끔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도, 이 유적지에서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는가? 만약 내가 그녀를 죽였다면, 내가 그 끔찍한 죄악의 기억을 가슴에 간직했을 리가 없다."

"제발, 그런 혐오는 너무도 끔찍합니다!"

"잘했어요, monsieur!" 라울이 손을 비비며 말했다. "만약 스무 닷새 전부터 이렇게 활기차게 답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많은 불쾌한 일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했어요, monsieur!"

"저는 개인적으로, 끔찍한 발텍스의 비난도, 그가 모아둔 거짓말 투성이의 자료도 단 한 순간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시유? 슬링샷 사건? 다 장난일 뿐입니다. 모두 협박일 뿐이죠. 하지만 아주 교묘한 협박이라, 당신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고, 우리는 그로부터 모든 각오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유일한 해법은 진리, 즉 절대적이고 냉혹한 진리입니다. 그래야 오늘부터 진실을 법정에 대항할 수 있으니까요."

"진리요? 저는 그것을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지점에서, 제게는 오직 당신의 답변이 얼마나 명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아니면 아니오. 사라진 보석들은 진짜였습니까?"

마르키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소유였군요. 맞습니까? 당신은 누군가에게서 빼앗긴 유산을 찾기 위해 조사 기관을 동원했습니다. 저는 에를몽가의 재산이 칼리오스트로와 함께 인도에서 살았던 조상이 남긴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막대한 부를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꾸었을 것입니다. 제가 맞습니까?"

"저도 추측하건대, 칼리오스트로 에를몽가의 후손들이 이 보석으로 만든 목걸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오." 마르키가 말했다.

"그리고 그걸 엘리자베스 호르네인에게 빌려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혼이 확정되자마자 그녀는 내 아내가 될 예정이었소.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고, 사랑 때문이기도 했지만, 나는 그녀가 그 보석을 착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즐겼소."

"그녀가 그 보석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그날 그녀가 착용한 모든 보석이 전적으로 당신의 것이었나요?"

"아니오. 그 외에도 제가 이미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준, 매우 값비싼 진주 목걸이가 하나 더 있었소."

"직접 손수 건네주셨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보석상에게 시켜서 보내주었소."

라울이 고개를 저었다.

"보십시오, 발텍스가 얼마나 쉽게 당신을 조종했는지요. 만약 발텍스가 그 진주 목걸이가 그의 이모의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확보했다면, 그 문서는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질까요!"

라울이 덧붙였다.

"이제 남은 일은 진주 목걸이와 다른 목걸이들을 찾아내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엘리자베트 호르네인을 성벽 아래까지 모셨습니까?"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곳까지요."

"네, 여기에서 보이는 아카스나무 가로수 길까지요?"

"맞습니다."

"두 분은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숨어 지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자베트를 혼자 본 지가 이미 두 주가 넘었거든요.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를 안아 주었습니다."

"그다음?"

"그녀는 일부 곡을 부를 때 옷차림을 아주 단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모든 목걸이를 저에게 맡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고, 제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아우카바 거리 끝자락에서 꺾일 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유적의 위쪽 테라스에 도착했을 때도 목걸이를 여전히 착용하고 있었나요?"

"저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확인되었죠."

"알겠소. 하지만 발텍스 사건 기록에는 정반대의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사건 당시 엘리자베트 호르네는 이미 그 보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마르퀴가 말을 맺었다.

"그 보석들이 아쿠바 거리와 위쪽 테라스 사이에서 도난당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라울이 천천히, 음절 하나하나를 또렷이 끊어 말했다.

"보석은 도난당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도난당하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엘리자베스 호르네가 왜 살해당한 거지?"

"엘리자베스 호르네는 살해당하지 않았어요."

라울은 이렇게 충격적인 단정문으로 말을 이어가는 것을 즐겼다. 그의 눈동자에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면 그 기쁨이 잘 드러났다.

마르퀴가 놀라 외쳤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나는 상처를 직접 봤어. 누가 뭐라 해도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데 이의가 없었어. 범인은 누구지?"

라울이 팔을 들어 검지를 뻗으며 말했다.

"페르세."

"무슨 뜻이야?"

"범인을 묻는 거죠? 아주 진지하게 말씀드리자면, 페르세입니다."

그가 이어 말했다.

"이제 유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제22장

장 드를르몽은 라울의 요구에 즉각 따르지 않았다. 그는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고, 겉으로는 아주 동요한 듯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랐다는 뜻인가?" 그가 말했다. "나는 엘리자베트의 원수를 갚지 못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찾아다녔는지 모른다. 정말로 그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다는 말인가?"

"나는 그 진실을 알고 있다." 라울이 단언했다. "그리고 나머지, 사라진 보석들에 관해서는 내가 확신할 수 있다."

안토닌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맑은 얼굴에는 어떤 제약도 섞이지 않은 확고한 신뢰가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기쁜 확신을 전하기 위해 장 드를르몽의 손을 꼭 쥐었다.

고제레는 얼굴 근육이 모두 긴장된 상태였다. 턱이 굳어 있었다. 그 역시 자신의 무모한 노력으로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자신이 증오하는

상대에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굴욕적인 승리를 바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두려워했다.

장 다르를몽은 15년 전 가수 조제핀 발사모와 함께 걸었던 길을 다시 걸었다. 안토닌은 그 앞을 지나 라울과 고제레를 앞서 나갔다.

네 사람 중 가장 평온한 이는 단연 라울이었다. 그는 앞을 걷는 이 젊은이를 보며 기뻤고, 그녀가 클라라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눈여겨보았다. 몸짓이 덜 유동적이고 유연하지는 않았지만, 리듬은 더 정확했고 단순했다. 관능미는 덜했지만 자존감은 더 강했으며, 고양이 같은 우아함은 적었지만 자연스러움은 더 많았다.

그가 걷는 걸음걸이에 적어 둔 것을 되돌아보니, 안토닌의 태도와 얼굴 표정에서도 그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녀를 정면에서 바라볼 때면 더욱 뚜렷했다.

길 위에 얽힌 풀 때문에 두 번이나 걸음을 늦춰야 했다. 그 사이 그녀는 그와 나란히 걸었다. 그는 그녀가 얼굴을 붉이는 것을 눈치챘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단 한 마디의 말도 오가지 않았다.

마르키는 오목한 정원에서 솟아오른 돌계단을 올랐다. 이어 두 번째 테라스로 이어지는 계단을 넘었다. 테라스는 좌우로 아욱바 나무 줄기가 늘어섰고, 그 사이사이에는 이끼 낸고 금 간 받침대 위에 오래된 화병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왼쪽으로 꺾어, ruin(ruin) 사이를 오르는 경사와 계단을 향해 발을 옮겼다.

라울이 그를 막아섰다.

"여기서 두 분, 에리자보르 호르네와 당신, 오래 머물렀죠?"

"정확히 어디였나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요."

"성채에서 그쪽이 보이나요?"

"아니요. 관목들이 방치된 탓에 가지가 드문드문하죠. 하지만 예전에는 위아래로 두꺼운 커튼처럼 빽빽하게 서 있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수풀 끝에서 돌아섰을 때 에리자보르 호르네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군요?"

"확신하셔도 되나요?"

"물론이죠. 그녀의 실루엣이 내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날 향해 키스를 보내는 걸 봤어요. 그 열정적인 손짓, 그녀의 자세, 그리고 저기 있는 낡은 받침대, 그녀를 둘러싼 푸른 배경까지. 나는 아무것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원으로 다시 내려갈 때, 두 번째로 돌아봤죠?"

"네, 그녀가 아베뉴를 벗어나는 순간 바로 다시 보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그녀를 목격했나요?"

"바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즉시요."

"당연히 바로 목격해야 하지 않았나요? 그녀가 아베뉴를 벗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잖아요?"

라울은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습니까?" 드를르몽이 물었다.

안토닌도 온몸을 쭉 펴며 그를 응시했다.

"저는 복잡해 보이는 사건일수록, 사람들은 해답도 그만큼 복잡하기를 바란다는 게 재미있어서 웃는 겁니다. 단순한 해답은 쫓지 않죠. 사람들은 항상 기발하고 구불구불한 해답을 쫓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조사할 때, 도대체 무엇을 찾으러 갔나요? 목걸이를요?"

"아니요. 이미 도난당한 물건이었으니까요. 저는 살인자의 흔적을 따라갈 수 있는 단서를 찾으러 갔습니다."

"혹시 그 목걸이가 도둑맞은 게 아닐까, 당신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소?"

"한 번도 없었소."

"고제레도, 그의 동조자들도 마찬가지였지. 사람들은 늘 똑같은 질문만 되풀이할 뿐, 진짜 질문은 던지지 않곤 하오."

"그 진짜 질문이 무엇이죠?"

"당신이 저에게 조사하라고 강요했던, 유치하기 그지없는 질문이었소. '목걸이 없이 노래하는 게 더 편한 엘리자베트 호르네가, 혹시 그 보석을 어딘가에 숨겨두지 않았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런 보물을 길가에 방치할 리가 없잖소."

"길가에? 당신은 물론이고, 그녀도 잘 알고 있었소. 성 주변에는 온통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당신은, 그녀가 보석을 어딘가에 숨겨두었다고 보시오?"

"다시 내려올 때 주워 올리면 되잖아."

"하지만 비극이 일어난 뒤, 우리가 모두 달려왔을 때 우리가 그걸 보지 않았겠어?"

"만약 그녀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숨겼다면?"

"예를 들어, 그 오래된 꽃병처럼. 그건 그녀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고, 다른 꽃병들처럼 다육식물이나 그늘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들어 있었을 거야. 그녀는 발끝으로 몸을 일으키고, 팔을 뻗어서 보석을 꽃병 속 흙 위에 올려놓기만 했지.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어. 임시로 놓아둔 것일 뿐인데, 우연과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걸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어떻게… 영구적인 것이 되었다는 거지?"

"세상에. 식물들이 시들었고, 떨어진 잎들도 썩어 썩어서 결국 진흙 더미가 됐지. 그게 화분 바닥을 완전히 덮어버렸어. 마치 가장 숨기기 좋은 곳처럼."

드를르몽과 안투아니드는 그 평온한 확신에 압도되어 말문이 막혔다.

"당신이 그렇게 단정하시네요." 드를르몽이 말했다.

"진실이기 때문에 단정하는 거야. 직접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

자작은 망설였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러자 그는 엘리자베트 호르네가 했던 동작을 다시 취했다. 발끝으로 서서 팔을 뻗고, 화분 바닥에 시간이 지나며 쌓인 축축한 부식질 더미를 뒤적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래… 저기에 있군… 목걸이들이 느껴져… 보석들의 면들이, 그리고 그들을 이어주는 장식이… 내일 하나님! 그녀가 이런 것들을 지녔다는 생각에!"

그런 감정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도 망설여질 지경이었다. 그는 목걸이들을 하나씩 꺼냈다. 모두 다섯 개였다.

비록 더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루비의 붉음, 에메랄드의 초록, 사파이어의 파랑이 빛나고 있었고, 금 조각들까지 반짝였다. 그가 중얼거렸다.

"하나가 없군… 여섯 개가 있었어."

잠시 생각하더니 그는 다시 말했다.

"그래… 하나가 없어… 내가 그녀에게 주었던 진주 목걸이가 빠졌지. 이상하지 않은가? 이 목걸이가 다른 것들을 내려놓기 전에 이미 도난당한 걸까?"

그는 질문을 던졌지만,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였다. 마지막 수수께끼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울과 고제레의 시선이 마주쳤다. 가니마르 형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진주 목걸이를 훔친 건 저 녀석일 거야. 마법사 행세를 하지만, 사실 오늘 아침, 아니 어제부터 이미 모든 걸 뒤져서 자기 몫을 챙겼겠지.'

라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맞아, 친구. 네가 핵심을 찔렀군. 어쩔 수 없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법이야.'

순진한 안토닌은 아무런 추측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르퀴스를 도와 보석 목걸이를 정리하고 포장하는 일에 집중했다.

일이 끝나자, 에를몽 마르퀴스는 라울을 데리고 유적지로 향했다.

"계속 말해 주세요. 그녀에 대해,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가 어떻게 죽었나요? 누가 그 불쌍한 여자를 죽였나요? 저는 그 끔찍한 죽음을 결코 잊지 못했어요. 상심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죠. 정말로 알고 싶어요. 제발 들려주세요."

그는 라울이 모든 사물의 진실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양, 즉 베일 뒤에 숨겨진 물건을 마음대로 발견할 수 있는 존재인 양 질문했다. 라울이 단지 원하기만 해도 어둠이 빛으로 가득 차고, 가장 놀라운 진술들이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다.

그들은 상단 평지에 도착했다. 엘리자베스가 죽은 언덕 근처였다. 그곳에서는 성 전체와 공원, 그리고 입구 탑이 한눈에 들어왔다.

라울 바로 곁에 있던 안투아네트가 속삭였다.

"파견인 어른을 위해 정말 기쁩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고르제레가 무서워요. 어서 가셔야 해요!"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런 위험도 없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 특히 고르제레가 그토록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다 말하기 전까지는요. 내가 먼저 떠나라고요?"

그가 안심하는 것을 느끼고, 자작이 계속 질문을 쏟아내자, 라울은 설명을 시작했다.

"그 비극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요? 보십시오, 저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이 따라가게 한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 사고의 전개도 완전히 다른 지점에서 시작되었죠.

'도둑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라고 결론 내린 이유는, 처음부터 '살인자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살인자가 있었다면, 그 존재를 눈치 채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사십 명의 사람들 앞, 한낮의 밝은 햇살 아래에서 살인을 저지르면서 그 사십 명이 그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총성이라면 들렸을 것이고, 몽둥이 타격이라면 목격되었을 것이며, 돌 던지기라면 그 동작이 포착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보이지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순수하게 인간의 의지로 인한 살인 원인 말고 다른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르퀴가 물었다.

"죽음은 분명 우연이었습니까?"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니, 결국 우연의 소산이었다. 그런데 우연이 일으키는 현상은 무한하며, 가장 이례적이고 특이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나도 얼마 전, 한 남자의 명예와 재산이 계단 하나 없는 높은 탑 꼭대기에 숨겨진 한 장의 문서에 달려 있는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 어느 날 아침, 그 남자는 긴 밧줄의 양끝이 탑 양쪽으로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조사해 보니, 그 밧줄은 구형 풍선에서 온 것이었다. 승객들은 전날 밤 무게를 줄이기 위해 모든 장비를 던져버렸고, 우연히도 그 밧줄이 딱 필요한 곳에 떨어졌다. 등반에 아주 편리한 수단이 된 셈이다."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조합의 수는 너무도 많아서, 자연계에서는 매시간 수천 수만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군요."

"엘리자베트 호르네의 죽음은 매우 흔한 물리적 현상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는 극히 드문 일이지요. 이 가설은 발텍스가 목동 가시우를 지목하며, 그가 슬링캣으로 돌을 던졌다고 주장한 후에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가시우가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었지만, 돌이 엘리자베트 호르네를 맞혔을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녀의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인 설명이었죠."

"하늘에서 던져진 돌이라니?" 남작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왜 안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체 누가 그 돌을 던졌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잖습니까, 친애하는 당신. 페르세우스가요."

남작은 간곡하게 애원했다.

"제발, 장난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매우 진지합니다. 라울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수백만 개의 돌들이, 유성체나 운석, 행성의 파편들이 초고속으로 공간을 가로지르며 대기권에 진입할 때 불타오르다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하루에도 수 톤, 수 톤의 돌들이 쏟아져 내리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수백만 개의 운석을 수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중 하나가 끔찍하지만 가능하고, 이미 입증된 우연히 누군가를 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바보 같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잠시 멈춘 라울이 다시 말했다.

"그런데 투하되는 비처럼 쏟아지는 돌멩이들은 일 년 내내 발생하지만, 특정 시기에 더 자주, 더 빽빽하게 떨어집니다. 가장 잘 알려진 건 8월 9일부터 14일까지인데, 이 현상의 기원은 페르세우스자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유성우를 '페르세우스 유성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페르세우스를 비난하는 농담을 던진 겁니다."

마르퀴스가 의심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할 틈도 주지 않고, 라울은 계속했다.

"제手下에 있는 한 남자가 사흘 밤낮으로 밤마다 성벽의 균열 부분을 넘어와, 아침이 되면 그 언덕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와 오늘 아침부터 직접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언가 찾았습니까?"

라울은 호두알만 한 작은 공 하나를 들어 보였다. 완전한 구형이었지만 표면은 거칠었다. 융해된 물질이 표면을 덮으며 윤이 나는 검은 유리질 막을 형성했는데, 그 때문에 뾰족했던 각질들은 모두 무뎌져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 투사체는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들도 분명 봤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주목하지 않았죠. 그들이 찾던 건 총알이든, 인간이 만든 어떤 발사체든 그랬으니까요."

그가 말을 이었다.

"저에게 이 투사체의 존재는 그 사건이 실제였음을 증명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먼저,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보십

시오. 8월 13일. 지구가 페르세우스 유성우 아래로 지나가는 날 중 하나죠.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이 8월 13일이라는 날짜가 제 머릿속에 첫 번째 빛을 비추었던 단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논리와 추론에 기반한 증명이 아니라, 과학적 증거죠."

"어제 그 돌을 비시(Vichy)의 한 화학·생물학 실험실로 가져갔습니다. 그곳에서 바깥쪽 광택 층에 달라붙어 있던 탄화된 인간 조직 조각들을 찾아냈습니다. 네, 바로 피부와 살의 조각들이었죠. 살아 있는 생명체에서 뜯겨 나간 세포들이 불타는 총알과 접촉하며 탄화했고, 그 총알에 단단히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강하게 붙어 있었죠."

"이 시료들은 화학자가 보관 중이며, 공식적인 보고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보고서는 에를몽 씨, 그리고 만약 관심이 있다면 고제레 씨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라울은 고제레 씨를 향해 몸을 돌렸다.

"게다가 그 사건은 이미 십오 년 전부터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다시 열릴 일도 없죠. 고제르 씨도 어떤 우연의 일치 같은 것을 눈치채셨을 테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사실도 아셨겠죠. 하지만 그분에게 있는 건 거짓 증언을 가져온 발텍스가 줄 수밖에 없는 허약한 증거들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얼마나 처참하게

굴었는지 알기에, 더 이상 그 일을 파고들 엄두를 내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제르 씨?"

그가 그에게 정면으로 다가섰다. 마치 그제야 그를 발견한 듯이, 그는 그를 향해 쏘아붙였다.

"어때, 친구? 내 설명이 설득력 있지 않아? 진리의 정수라고 할 수 있지."

"도둑질도, 살인도 없었다고? 그럼 너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야? 사법 체계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다 헛소리라는 뜻이지?"

"나 같은 순진하고 착한 젊은이가 이 사건 속을 헤매는 너희를 지나쳐, 엉킨 실타래를 풀고, 아무도 찾지 못했던 총알을 주워 올리고, 목걸이를 돌멩이를 꿰듯 정성스럽게 다시 꿰어 줬잖아."

"그리고는 고개를 들고 입가에 미소를 띠며, 임무 완수의 자부심을 안고 떠났어. 잘 가, 친구. 고르제 씨에게 안부 전해주고, 이 이야기를 들려줘. 그가 좀 덜 지루해할 거야. 그리고 내 입지에 더 힘을 실어줄 테니까."

"너는 내게 이 정도는 갚아야 해."

가니마르 형사는 아주 천천ly 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무거운 손으로 라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라울은 깜짝 놀란 표정이 되었다.

"뭐야?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나를 체포한다니? 너 정말 대범하네. 내가 네 일을 대신 해줬는데, 감사 대신 수갑이라니? 그래, 만약 네 앞에 신사가 아니라 도둑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

고르제레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을 초월한 신사의 태도를 취했다. 사건을 지배하고, 남들이 뭐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태도였다.

라울이 수다를 떨며 시간을 끄는 것도 괜찮았다. 고르제레는 그 수다를 들으며 정보를 기록하고, 논리를 따져보고, 오직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일 뿐이었다.

마침내 그는 큰 휘슬을 집어 들고, 차분하게 입에 가져다 댔다. 날카로운 소리가 튀어나왔고, 그 메아리는 근처 바위들에 부딪혀 다시 계곡의 복도로 울려 퍼졌다.

라울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심각한 건가?"

가니마르 형사는 비웃듯 웃으며 위압적인 어조로 말했다.

"네가 그런 질문을 하다니?"

"또다시 대규모 격투전이란 말인가?"

"맞다. 하지만 이번엔 시간을 두고 준비했다. 어제부터 내 작은 친구여, 나는 그 영지를 감시해 왔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는 네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성 주변 모든 곳, 유적지 좌우로 이어져 이 급경사 절벽과 연결된 성벽 전체, 모든 곳이 경계되고 있다. 헌병대 분대, 파리에서 온 형사들, 지역 경찰서장들, 모두 동원되어 있다."

현관문 종소리가 울렸다.

고르제르가 말했다.

"공격의 첫 물결입니다. 이 팀이 안으로 들어가는 대로, 두 번째 휘슬 소리가 공격을 시작할 신호입니다. 도망치려 하면 총으로 쏴 죽입니다. 개처럼요. 명령이 분명합니다."

마르퀴가 나섰다.

"감사님, 제 동의 없이 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제 손님입니다. 저에게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문은 열리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은 부술 겁니다, 마르퀴님."

"문지르개로? 랄이 비웃었다. 도끼로? 밤이 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저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이나마이트로!" 고르제르가 포효했다.

"주머니에 다이나마이트가 있나?"

랄이 그를 따로 불러냈다.

"두 마디만 하마, 고제레. 내가 지난 한 시간 동안 보여준 태도를 보면, 우리 둘이 여기에서 어깨동무하며 친구처럼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네가 그걸 거부하니까, 내가 간곡히 부탁하네. 공격 계획을 포기하고, 역사적인 문들을 부수지 말며, 내가 존경하는 여자 앞에서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고제레는 눈꼬리로 그를 흘겨보며 말했다.

"장난하는 거야?"

라울은 분노했다.

"당신을 장난으로 여기지 않아, 고제레. 다만 네가 이 싸움의 모든 결과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

"모두 생각했지."

"하나만 빼고!"

"무슨 말이야?"

"네가 고집을 부리면, 두 달 뒤엔……"

"두 달 뒤라니?"

"나 조조트와 함께 이십 일 정도 짧은 여행을 떠날 거야."

고제레가 몸을 일으켰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낮고 거친 목소리로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먼저 네 목을 베겠어!"

"좋아요, 갑시다!" 라울이 신이 나서 외쳤다.

그는 장 드를르몽을 향해 몸을 돌렸다.

"선생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제레 씨를 모시고 성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 주십시오. 제가 엄숙히 약속합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을 것이며, 모든 일이 가장 평온하고 정중한 방식으로, 그리고 신사들끼리 치러질 것입니다."

라울은 장 드를르몽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에게 이 해결책은 궁지에 몰린 자신을 구해 주는 길이었기에, 그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가 자리를 뜨며 물었다.

"안토닌, 너도 올 거야?"

고제레가 재촉했다.

"너도 와, 라울."

"아니, 나는 남을 거야."

"아마 내가 저쪽에 있는 사이를 이용해 도망치려는 셈이지?"

"달려야 할 네가 운이 좋군, 고제레."

"그럼 나도 남을게. 발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럼 또다시 너를 묶고 입도 막아주지. 선택해."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잡히기 전 마지막 담배 한 대 피우는 거지."

고제레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가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도망칠 길은 전혀 없었다. 그는 에를몽 공작에게로 다가갔다.

안토닌은 그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힘이 부쳤다. 창백한 얼굴에는 극심한 불안이 역력했다. 입가에 맴돌던 미소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다.

"무슨 일이에요, 마들렌?" 라울이 다정하게 물었다.

안토닌은 절박한 표정으로 그를 빌었다.

"어딘가 피하시죠… 안전한 숨을 곳이 분명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숨어야 한다는 거지?"

"뭐라고요? 그럼 그들이 당신을 잡으러 오는 건가요!"

"절대로요. 저는 떠날 겁니다."

"도망칠 길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죠? 제가 떠나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당신을 죽일 거예요."

"그게 당신을 슬프게 할까요? 만약 당신이 그날 성에서 모욕을 당한 남자에게 조금이라도 연민을 느낀다면 말이에요. 아니요,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고작 몇 분일 뿐이죠. 그런데 저는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라울은 그녀를 건드리지도, 의식시키지도 않은 채 그녀를 조금 더 안쪽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해야 공원의 어느 곳에서도 두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넓은 벽 한쪽과 무너진 폐허 더미 사이에는 약 십 미터쯤 되는 빈 공간이 있었다. 그곳은 강물이 흐르는 절벽 위를 내려다보았고, 말끔히 쌓은 작은 석벽이 둘레를 감싸고 있었다.

그곳은 마치 고립된 방 같았다. 넓은 창문 너머로 강이 흐르는 심연과 물결치는 평야의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다.

안투안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전보다 덜 초조해 보였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서운 마음은 덜해요. 그리고 에를르몽 씨를 대신해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성을 그대로 유지하시겠죠, 제안하신 대로요?"

"그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건 오직 당신만이 답해 주실 수 있어요. 마르키 드 에를몽이 제 아버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 그분에게 건넸던 편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아주 명확했죠."

"저는 진실을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사이가 어색해지곤 했어요. 이제 드디어 마음껏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클라라도 그분의 딸이 맞나요?"

"네, 클라라는 당신의 이복자매입니다."

"저는 그에게 그 사실을 말해 두겠습니다."

"그분도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이 저에게 해 주는 일을 클라라도 똑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클라라도 만나게 되겠죠? 그녀가 저에게 편지를 써 주길 바랍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과장된 어조도, 지나친 진지함도 없었다. 다시금 사랑스러운 미소가 그녀의 입꼬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라울은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시선은 아름다운 입술에서 단 한 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은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죠, 맞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깊이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의 기억을 통해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을 아쉬움과 함께요. 제가 그녀에게서 사랑하는 것은, 그녀가 파리에 도착해 제 집으로 들어왔던 그날의 첫 인상이에요. 그 소녀는 잊을 수 없는 미소를 지니고 있었고, 처음부터 저를 감동시킨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후로 항상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안토닌이나 클라라라고 불리는 단 한 명의 여자만 있다고 생각했죠. 이제 두 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저는 아름다운 그 이미지를 가져갑니다. 그 이미지는 제 사랑의 상징이자,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도 저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요!"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있나요?"

"네, 우리가 다시는 만나지 않을 테니."

"우연한 외모의 닮음이 우리를 서로에게 묶어 놓았어. 클라라를 사랑한 이후로, 나는 너를 사랑하게 됐지. 그녀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너의 동정심, 너의 우정에 섞이지 않을 리가 없으니까."

그녀는 숨을 죽이며,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 속삭였다.

"제발, 가세요."

그가 난간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 그녀가 놀라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아니야! 아니야! 그쪽으로 가지 마!"

"다른 길이 없어."

"그건 끔찍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제발요."

그 끔찍한 위험의 위협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잠시 동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여자의 모든 공포와 불안, 그리고 간절한 호소가 드러나 있었다.

그런데 성에서, 혹은 아마도 빈 정원에서부터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르제와 그의 부하들이 폐허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아 있어요… 제발 남아 있어요. 제가 구해 드릴게요… 아, 끔찍하다!"

라울은 다리를 작은 벽 너머로 내밀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토니네… 저는 절벽 벽면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 도전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저에게는 이 일이 장난 같은 일일 뿐이라고 맹세합니다."

다시 한번 그녀는 그의 영향력 아래 놓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었다.

"안토닌, 미소 지어 줘요."

그녀는 고통스러운 인내로 미소 지었다.

"아, 안토닌이 저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데, 내가 무슨 일을 당할 수 있겠나?" 라울이 말했다. "더 잘해 줘, 안토닌. 나를 보호해 주려면 내 손을 잡아."

그녀는 그 앞에 섰다. 손을 내밀었지만, 그가 입맞추기 전에 다시 거두었다. 그녀는 몸을 굽혔고, 몇 초 동안 망설이다가 속눈썹을 반쯤 감은 채로, 결국 더 깊이 고개를 숙여 자신의 입술을 내밀었다.

그 동작은 기묘할 정도로 순수했고, 순결함이 가득했다. 라울은 그녀가 그 행동에 형제자매 간의 다정함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도 그 깊은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습관 같은 것이었다. 그는 미소 짓는 부드러운 입술을 가볍게 스쳤고, 소녀의 순수한 숨결을 마셨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자신이 느낀 격렬한 감정에 놀라 몸을 비틀거리며, 간신히 말을 이었다.

"가세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가세요… 잊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폐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절벽 틈바구니에 매달린 라울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지 않았다. 그 깊은 심연 속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다.

다가오는 거친 목소리들을 들으며 그녀는 신호를 기다렸다. 라울이 자신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반드시 보낼 신호였다. 그녀는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울이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 아래, 평지에서는 그림자들이 오갔다. 그들은 몸을 낮추며 덤불을 헤치고 있었다.

마르퀴가 불렀다.

"안토닌!… 안토닌!"

몇 분이 흘렀다. 그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때 계곡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이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쁨에 찬 메아리가 메아리를 부르는 듯했다.

그녀는 슬픈 미소를 띠며 속삭였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작별이오… 작별이요…"

이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 클라는 여관 방에서 답답함을 달래고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열이 난 듯 떨리는 몸으로.

"그녀를 봤어?"

"먼저 물어봐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고르제와 만났는지, 어떻게 그 무서운 포효에서 벗어났는지 말이에요. 정말 고생이었죠. 하지만 제 차례는 잘 치렀습니다."

"그녀는요? 그녀에 대해 말해줘요."

"목걸이를 찾았어요. 그리고 총알도."

"그녀는요? 그녀를 봤어요? 시인하세요!"

"누구? 아, 안토닌 고티에? 음, 맞아요. 그녀가 그곳에 있었어요. 우연이었죠."

"그녀와 말을 나눴어요?"

"아니요. 그분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무슨 이야기를요?"

"오, 바로 당신에 관한 것이었죠. 그분은 당신이 자신의 자매라고 간파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분이 저와 비슷해 보이나요?"

"네. 아니요. 어쨌든 대략 그런 느낌이에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 드릴게요, 내 사랑."

그녀는 그날은 아무 말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스페인으로 향하는 자동차 안에서 그녀는 가끔씩 질문을 던졌다.

"그분은 예쁘나요? 저보다 더 예쁘거나, 덜 예쁘거나? 시골 출신 특유의 아름다움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라울은 최선을 다해 답했지만, 가끔은 마음이 조금 흩어지곤 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르제에게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떠올리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사실 운명은 그에게 우호적이었다. 로맨틱한 그 탈출은, 고르제의 속임수를 모른 채 아무 준비 없이 벌인 것이었다. 공간 너머로 이루어진 그 탈출은 정말 멋졌다고 할 만했다. 그리고 차갑지만 상큼한 미소를 짓는 처녀의 키스는, 그에게 있어 어떤 달콤한 보상이었는가!

"안토닌! 안토닌!"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발텍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말을 하지 않았다.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르제는 발텍스, 즉 대(大) 폴의 두 살인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아냈다. 그 증거는 너무나 확실해, 그 도적은 정신이 혼미해졌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목이 매달린 채 발견되었다.

아랍인은 자신의 밀고 대가로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 두 건의 살해 사건에 연루된 그는 강제 노역형을 선고받았고, 탈옥 시도 중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다. 삼 달 뒤, 꼬꼬제 고르제가 열흘간 집을 뛰쳐나갔다가 아무런 설명 없이 다시 부부 생활로 돌아왔다는 사실이다.

"받거나 말거나야. 나랑 살래?"

그때의 꼬꼬제는 그 어느 때보다 매혹적이었다. 눈빛이 빛나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눈이 부신 고르제는 용서를 빌며 팔을 벌려 그녀를 맞이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올가 여왕이 국왕과 함께 파리를 떠난 지 정확히 여섯 달째가 끝나는 무렵이었다. 보로스티리아 왕국의 종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며 커다란 소식을 알렸다.

십 년 동안의 기다림 끝에, 더 이상 희망이 없던 때였다. 올가 여왕이 마침내 후계자를 낳았다.

국왕이 발코니에 나타나 광란의 군중에게 아이를 보여주었다. 그분은 기쁨과 정당한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왕조의 미래가 보장된 것이다.